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안태윤(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홍성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조원)

본 보고서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1 제주특별자치도 연구 용역 과제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 무 속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은 성별과 무관한 이슈로 인식되어 왔으나 대형 자연재해와 재난에 여성을 비롯한 노약자의 피해가 많고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율이 낮을 뿐 아니라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
리사회 전반에 재난 재해 관련 안전 정책에서 여성들이 비가시 되어 왔음
-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강남역 지하철 사건 안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하
고 여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정부 및 지역단위에서 진행되어 왔고 최
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 안
전이슈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정책과 연계하기 시작함
- 제주지역에서는 2018년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등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범죄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적·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에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안마련이 더욱 필요함
- 재난 재해 관련 성별분리 통계 현황 및 대응 매뉴얼을 분석하여 성별영향을 검토하고
안전정책 의사결정과정, 재난교육 참여 등 안전 활동의 여성참여 등을 점검하고 도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국내·외 안전 관련 정책 현황 및 이슈 검토
 - 중앙정부 및 제주지역 안전정책 및 법령 분석하여 제도적인 현황을 검토함
 - 안전 정책 관련 해외사례 및 국제이슈를 점검하고 제주지역 안전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안전관련 도민의 실태와 인식, 정책수요 파악

-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위험 경험, 피해 가능성 등
- 안전교육 및 훈련 경험, 참가배경, 안전장비 사용법, 재난안전 대응능력 등
- 안전교육 및 관련활동을 통한 정책참여 방안, 안전관련 정책수요 및 개선방안 등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제주지역 재난대응 개선방안 제안

-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
- 안전교육 및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 재난 구조현장에서의 성별경험을 반영한 성인지적 대응방안

3. 연구 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됨

〈연구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 연구 검토 • 관련 분야 정책 현황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4단계	조사 실시 (설문조사, 전문가 집단면접)	⇔	•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429명 대상 면대면 설문조사 •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 집단면접(FGI)(15명) - 제주지역 여성 자율방재단, 안전교육 강사, 의용소방대 활동가
5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안	⇔	• 연구진회의(3회) • 조사결과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나. 연구방법

○ 문헌자료 검토

- 국내·외 안전관련 법령, 정책, 해외사례, 통계자료 등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 및 현황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약 429명
- 내용 : 안전인식, 재난대처 방법 및 능력, 안전교육 및 활동경험, 정책수요 등

○ 전문가 집단면접(FGI)

- 대상 : 안전관련 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약 15인

제2장 재난대응 관련 정책 동향

1. 재난재해 개념 및 범위

- 재난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재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9조 3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성을 안전취약 계층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재난재해 관련 정책 동향 및 현황

가. 재난재해 관련 정책 및 법

1) 재난관리 정책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총괄부처는 행정안전부로서,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 가운데에는 재난관리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이 포함되어 있음
- 중앙정부 재난안전 정책의 핵심은 1)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2)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3) 안전 환경·문화 조성, 4) 현장 중심 재난대응·복구 역량 강화, 5) 체계적·효율적인 위기대응체계 구축임
- 중앙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옴
- 중앙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서 안전취약계층에는 임산부와 재난취약계층을 돌보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이들을 동반하여 이동·대피하여야 하는 돌봄담당자(주로 여성)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성인지 관점에 기반 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재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재난관련 법제도

〈재난안전관련 법과 조직의 변천과정〉

년도	법	조직
1950~1980년대	1962년 재해구호법 1967년 자연재해대책법 1975년 민방위기본법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984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948년 내무부(건설국, 토목국) 1961년~1991년 건설부(국토 건설청) 재해대책 업무 관장
1990년대	1992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1995년 재난관리법	1991년 내무부 재해대책 업무 이관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 (내무부, 총무처 통합)
2000년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6년 풍수해보험법 2007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008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8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9년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2004년 소방방재청(재난관리 업무전담기구) 신설 2008년 행정안전부 신설(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통합)
2010년대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016년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2016년 소하천정비법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 2014년 국민안전처 [안전행정부(사회재난), 소방방재청(자연재난), 해양경찰청 통합]

출처 : 행정안전부(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나.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재해 대응 정책

1)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도시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제주 안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4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안전도시의 여건을 충족하고 공인되었음
- 2012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사고손상률 저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분야별 사고손상에 따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도민의 체험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재난 유형별 관리 체제

-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운영하여 관련부서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고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등 유형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대응기준을 정하고 담당부서별 임무와 근무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3) 안전체험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내외 방문객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0년 11월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스스로 행동하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선박과 항공기 특성화 체험관을 갖추고 있으며, 재난현장 전문가의 지도로 21개 체험종목의 맞춤형 종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 안전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련 정책 중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도 분청 3개 사업(안전문화운동 확산, 재난심리안정지원 사업, 주민봉사대 운영) 제주시 2개 사업(안전관리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모두 5개 사업임

3. 재난·재해 현황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연간 재산피해 현황에 대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2,162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의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있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인천, 부산경북, 경남 등에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지역은 2018년 2019년 2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지역은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섬이라는 특성으로 많은 자연재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22명 남짓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2018, 2019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여 기후로 인한 재난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사고손상 사망 현황

- 시도별 총 사망자 및 사고손상 사망자 현황
 - 전국 사고손상 사망자는 2019년 기준 27,282명, 조사망률은 53.1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사고사망자는 매년 약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률은 624(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로 최근 3년간 약간 줄었지만 전국의 53.1인데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사고손상 주요 요인별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자살, 운수(교통사고), 익사 사망자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익사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사고손상 사망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70%)이 여성

(30%)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최근 5년간의 총 사망자수 대비 손상사망자 비율은 약 10% 남짓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

제3장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 정책

1. 재난안전매뉴얼의 성인지 분석

가. 재난예방 및 대비단계

1)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비가시화

- ‘태풍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은 남성기자 1인이 태풍 관련 대응요령을 해설하는 영상임. 이 영상에는 해설자뿐만 아니라 재난대응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남성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마치 여성은 재난을 예비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음. 여성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재난대응의 참여자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2) 성별 고정관념

- 재난대비요령을 제시한 매뉴얼에 재현된 일상생활의 모습에는 여성은 식사준비와 청소 등 가사를 담당하고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성별 역할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낙뢰 예보 시 행동요령에서는 우산 대신 비옷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안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재연함
- 황사 예보 시 귀가 후에는 황사에 노출된 손과 발 등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씻고 과일과 야채는 세척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둔다는 설명에서 손을 씻는 것은 남성, 과일을 씻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표현함

3) 가족중심주의 및 1인 가구에 대한 고려 부재

- 「국민행동요령」의 자연재난행동요령에는 태풍 예보 시 핵심행동요령과 상세행동을 제시하고 있음. 상세행동 중에는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에 대비합니다.” 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동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 또한 호우 사전준비 상세행동요령에도 “1.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2.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합니다.” 라고 기술함

4) 성별 분리통계 산출 미비

-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훈련담당자의 훈련준비·실시·평가·개선 재난대비훈련 가이드북(훈련담당자용)」에 제시된 재난피해보고서 양식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인원수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성별구분 없이 전체 총 인원수만을 산출하는 경우, 성별에 따른 피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어 재난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좁힐 수 없음. 성별구분 란을 추가하여 성별 분리통계를 산출하고 성별 차이와 그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5) 재해약자의 범위 확대 필요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2021)에 따르면, 재해약자를 유아, 고령자, 장애인으로만 설정하고 있음. 임신·수유부와 재난약자(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를 돌보는 돌봄담당자 역시 재해약자를 동반한 이동과 대피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재해약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나. 재난대응단계

1) 가족중심주의 및 1인 가구에 대한 고려 부재

-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할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태풍 예보 시) 가족과 함께 실내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가뭄발생 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재난예비단계의 매뉴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두고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음. 대

응답단계에서 역시 1인 가구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혼자서 대응하여야 하는 1인 가구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성별 고정관념 및 여성성에 대한 편견 반영

- 낙뢰 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여주는 동영상에서 낙뢰 발생 시에는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설거지나 샤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재연됨. 가사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낙뢰 발생 시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는 요령에서는 여성이 두려워하며 남성에게 몸을 의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음

3)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비가시화

- 대부분의 매뉴얼에서 재난대응활동을 하는 사람은 남성으로 그려져 있음. 여성도 재난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4) 재해약자 동반 대응요령 제시 미비

- 지진발생 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재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영유아, 아동,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재난대응방법과 재해약자를 동반하여 대피하여야 하는 돌봄담당자를 위한 대응요령은 부재함. 재난 발생 시 약자를 돌보는 돌봄담당자의 어려움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크고 대응방법도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제시가 필요함

5) 여성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 표현

-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음. 기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모습, 길에서 낙뢰에 맞은 남성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후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표현된 부분들이 있음

다. 재난복구단계

1)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주변화

- 재난예비 및 대응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지나간 후 복구단계에서도 복구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음

2) 구호약자의 범위 확대 필요

-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후 심리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2017)을 발간함. 이 매뉴얼에 의하면 구호약자를 다음과 같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장기요양급여대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3) 성별통계산출 필요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2017)의 서식을 살펴보면, 재난심리회복상담 신청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을 기재하는 칸이 없음. 성별구분란을 추가하여 상담자의 성별 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재난발생시 일일보고 서식의 피해 현황란에도 성별구분란 없이 사망자수와 부상자 총수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성별 격차를 파악할 수 없음. 재난과 관련된 모든 통계 산출은 성별을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서 재난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해외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의 재난안전 정책

- 일본은 1995년 6,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한신대지진에 이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2011년 말 기준 2만 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33만 여명의 피난주민을 낳음.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대피시설에서의 성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재난복구과정에서 가정폭력 증가 등이 보고되면서 양성평등관점에서의 재난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일본에는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특히 남해 트리프 지진과 수도직하지진 등 향후 30년 이내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이 대두함에 따라 이전의 조사보고를 기반으로 양성평등관점에서의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음

나. 미국의 재난안전 정책

- 미국은 재난 발생 시 1차적인 대응은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의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연방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임(장미혜 외. 2015 : 110)
 -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재난과 관련된 기획 및 훈련, 피해대응 및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주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음
 -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재난대비와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지침서를 발간하여 큰 틀에서 재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여성 및 재난취약자와 관련된 정책으로 재난대응이나 복구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대량 재난피해자 보호 및 보호소 제공(Care/Sheltering), 감정 및 심리치료 지원(Emotional/Psychological), 위생 및 건강지원(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어린이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음

다. 시사점

- 일본의 재난안전대책은 성인지 관점에서 재난 시 성별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남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성별분리통계 산출과 활용, 정책담당자의 양성평등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난대응담당 직원의 양성평등관점 이해 촉구와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재난대응팀에 양성평등담당 직원 배치, 재난대응부서와 양성평등담당부서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대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재난과 관련된 기획 및 훈련, 피해대응 및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주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고 큰 틀에서 재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플로리다 주정부의 경우 임산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에게 대피와 보호를 위한 안

내를 하고 있고 대피준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층으로는 노인,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들, 이동이 자유롭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안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제4장 제주지역 안전 인식 및 재난대응 실태와 정책수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본 조사는 제주지역 도민의 안전인식 및 교육·훈련 경험, 재난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제주지역의 안전 환경 조성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이고 429명이 조사에 참여함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	세부내용
○ 안전에 대한 인식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정도
	· 관심 있는 안전 분야
	·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위험 경험
	· 재난 피해 원인
	· (유형별) 재난재해 피해 가능성
○ 안전 교육·훈련 및 활동 경험	·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수강 경험 및 종류
	· 안전교육 미참가 이유
	· 유형별 안전장비 사용방법 인지도 (소화기, 완강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 안전장비 사용방법 교육 장소
	· 유형별 재난대응 능력(대피방법, 생존수영, 응급처치, 위기대처능력, 비상구·소화전·화재경보기 등 위치 인지, 비상물품 준비)
	· 재난대처능력의 성별차이여부 및 원인
	· 안전 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 유형

조사내용	세부내용
○ 재난대응 및 정책 수요	· 재난정보 및 지식 습득기회 참여여부
	· 필요한 재난교육 및 훈련
	· 적절한 재난 교육 장소
	· 재난교육에 필요한 지원
	·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위치 인지여부
	· 대피소 홍보 방법
	· 대피소 설치 및 운영 방법
	· 안전체험관 인지/이용/만족도
	· 안전체험관 운영방안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 안전 분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2. 조사 결과

가. 안전에 대한 인식

1) 관심 있는 안전 분야

- 가장 관심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염병·질병·환경오염(37.1%), 자연재해(수해, 태풍, 가뭄, 폭염, 황사 등, 24.7%)와 교통사고(24.0%)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최근 코로나의 영향과 자연재해에 민감한 지역적 특성의 영향으로 풀이됨

2) 재난 안전 인식

-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2.93으로 보통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정도(평균 2.89점)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 인식은

보통정도라고 볼 수 있음

3) 재난으로부터 위험 경험

- 최근 1년 이내 자연재해(19.6%)와 사회재난 위험 경험(21.2%)을 한 비율은 약 20% 정도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지역(32.1%)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험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남

4) 재난피해 원인

- 재난피해의 원인에 대한 응답(1순위+2순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28.7%), ‘안전 및 예방 교육의 부족’(24.5%), ‘개인의 대처 능력 부족’(1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안전 및 예방교육의 부족’(25.8%)이 남성(23.1%)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31.9%)가 여성(25.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5)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

-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5점 척도 조사 결과 전염병·질병·환경오염(평균 3.59)과 교통사고(평균 3.44)로 높게 나타났고 태풍·집중호우·대설(평균 3.34), 가뭄·폭염·황사(평균 3.15), 화재·가스폭발·지반침하(평균 3.02)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풍랑·해일(평균 2.63)과 건물·시설물붕괴(평균 2.65)는 가장 낮게 나타남

나. 안전교육·훈련 및 활동 경험

1) 최근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 수강 경험

-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25.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한 안전교육 분야는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26.8%), 소방안전 교육(25.0%), 재난 재해 및 사회재난대응 요령(2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 부족(22.3%), 생계 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0.8%), 지역에서 교육기회 없음(16.5%) 순

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부족(24.1%),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17.8%), 생계 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17.5%)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생계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4.5%), 교육 실시에 대한 정보 부족(20.3%),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15.0%)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정보부족, 남성은 생계활동이 안전 교육 수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2)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 : 성별차이 뚜렷함

-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96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평균 3.26)이 여성(평균 2.68)보다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2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2.44)이 여성(평균 2.01)보다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4점 척도 기준 평균 2.43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2.73)이 여성(평균 2.13)보다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68이고, 남성(평균 2.93)이 여성(평균 2.44)에 비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2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2.43)이 여성(평균 2.02)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3)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 교육 장소

-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TV·신문 등 대중매체(28.2%)를 통한 학습, 직장(16.8%), 학교(1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TV·신문(31.3%), 직장(17.9%), 학교(17.6%), 안전체험관(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TV·신문(25.8%), 군대·예비군·민방위 훈련(24.3%), 직장(15.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을 통한 학습경험은 여성(14.7%)이 남성(7.8%)보다 높게 나타나 안전관련 기관의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재난대응 능력 : 성별 차이 뚜렷함

-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 남성(평균 3.37)이 여성(평균 3.06)에 비해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생존수영 수행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78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성(평균 3.23)이 여성(평균 2.35)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 응급처치 가능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88점을 나타냈고, 남성(평균 3.11점)이 여성(평균 2.65점)에 비해 응급처치 가능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위기대처 능력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89점으로 조사되었고, 남성(평균 3.10)이 여성(평균 2.68)에 비해 위기대처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생활공간 내 비상구나 화재경보기·소화전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3.48)이 여성(평균 3.22)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응급처치 및 비상물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3점이고, 남성(평균 2.27)이 여성(평균 2.1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5) 재난대응의 성별차이 여부

- 재난대응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성별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나타났고 성별로 재난대응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체적으로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능력부족(34.8%), 남녀의 근력차이(32.9%), 여성의 신체적 활동제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13.8%)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능력차이'에 관한 항목에서는 여성(36.6%)이 남성(33.3%)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녀의 근력차이'에 항목에서는 남성(33.8%)이 여성(31.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차이를 남성은 타고난 차이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교육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6) 안전 관련 활동 참여 여부

- 안전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15.6%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하고 있는 안전 관련 활동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점검(58.2%), 안전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26.9%)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점검(여성 60.6%, 남성 55.9%)과 안전 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여성 30.3%, 남성 23.5%) 부분에서 모두 남성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참여율을 나타냄

다. 재난대응 및 정책수요

1) 재난 대비 정보 습득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필요한 재난재해 교육

- 재난 대비 정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의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4점 척도 기준 평균 2.78로 나타났고 참여할 예정(60.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에서 필요한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피난 및 대피훈련(30.2%), 상처 등 응급처치 훈련(20.2%), 기구 등을 사용한 응급 구조 훈련(1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희망 장소

-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장소로 희망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동 단위 주민센터(24.6%), 전문 교육기관(19.4%), 각 직장 단위(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동 단위 주민센터(여성 24.9%, 남성 24.3%)와 각종 지역사회 복지관 및 수련관(여성 14.4%, 남성 12.2%)에서 교육받기를 남성에 비해 더 희망하는 반면, 남성은 각 직장 단위(남성 18.4%, 여성 15.8%), 온라인 교육(남성 14.6%, 여성 8.9%)을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

-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 및 훈련정보 안내(18.8%)와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1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16.8%),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1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여성 17.8%, 남성 15.7%)와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여성 20.1%, 남성 17.4%), 교육시간의 다양화(여성 11.6%, 남성 8.3%)부분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남성은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남성 13.3%, 여성

10.7%)부분에서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4) 재난 재해 대피소 위치 인지 여부 및 홍보방안

-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2%로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27.1%)이 여성(21.5%)보다 대피소 위치 인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알람 서비스 제공(38.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피소 안내 표시(17.8%), 도내 대피소 지도 작성 및 배포(1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5) 대피소 설치·운영 시 우선적 고려사항

-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뉴스 등 신속한 정보제공 장치(29.8%), 시설 내 순찰 실시로 안전 확보(27.2%), 칸막이 설치를 통한 사생활 보호(2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지원체계(32.6%), 성별을 고려한 물품 지원(26.5%), 대피소 운영에 주민 참여(2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6) 안전체험과 인지도·만족도, 운영방안

- 제주지역에 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에 불과함
 - 성별 인지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23.3%)이 남성(21.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안전체험관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4%로 매우 적은 비율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7.1%)이 여성(3.7%)에 비해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4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체험교육 참여 인센티브 확대(19.6%)와 지속적인 도민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19.1%)이 다음으로 높게 조사됨

7) 안전 환경 조성 정책 방향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21.3%),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21.2%),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13.5%), 안전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1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남성 23.1%, 여성 19.6%)과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남성 16.4%, 여성 10.7%)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여성 23.7%, 남성 18.6%) 부분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인식과 제도개선은 남성이, 교육기회 관련 정책은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음

8) 안전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 안전 분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 교육 확대(33.2%),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혜택 제공(13.2%), 재난 취약 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1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안전교육 확대(여성 34.2%, 남성 32.1%) 부분에서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의용소방대·지역민방위 등 기존 활동의 효율적 활용(남성 11.2%, 여성 8.7%)과 주민·공무원·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성화(남성 10.5%, 여성 8.7%)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제5장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전문가 집단면접 조사개요

- 제주지역의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 안전 활동가는 지역자율방재단 6명과 의용소방대 9명으로 구성하였고 의용소방대 구성원 중에는 안전관련 전문 강사 4명이 포함됨

○ 조사내용

구분	세부내용
안전 활동 참여 과정	· 활동 참여 계기 및 배경 · 교육 및 자격 취득 과정
주요 안전 활동	· 자연 재난 발생 시 주요 활동 · 화재 발생 시 주요 활동 · 재난대비 예방 및 점검 활동
단체 활동의 의미 및 한계	· 봉사활동의 의미 및 한계 · 여성 활동가의 한계 · 조직 및 활동영역에서의 성별분리
성인지 관점의 개선점	·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의 어려움 · 조직문화와 단체활동에서의 성별차이 · 기타 성인지 관점의 개선점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2. 조사결과

가.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과정

- 안전 활동 참여자들의 활동 계기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나 전문적 능력향상을 위한다기보다는 봉사활동의 연장으로 부녀회 활동 등 사람을 많이 사귀고 자신의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재난대응 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의미와 자부심도 있음

나. 주요 안전 활동 : 남성대원 보조, 대피안내, 물품정리 등 주변적 역할

- 참여자들은 폭설이 내리면 눈길을 치우거나 화재 발생 시 잔불을 정리하고 홍수가 발생하면 양수기 투입이나 배수구 정비 등의 재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장비를 점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정리하거나 복구지원에 참여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활동도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부분 안전장비나 물품을 정리, 소방관 안내와 보조,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배급 등 주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 안전 활동의 의미 및 한계 : 재난대응 자신감,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함

- 재난대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는 위급한 순간에 남을 도울 수 있고 교육을 하는 등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마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지만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은 부족함
- 여성으로서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체력적인 한계와 재난 발생 시 남성 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종 장비 사용 기회가 없고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음

라. 성인지 관점의 안전 활동 문제점

- 재난 안전 활동을 위해서는 어려운 교육과정과 훈련 등 많은 공부와 실전연습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남성보다 적극성이 부족하며 전문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함
- 여성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점은 활동가를 위한 사무실이 없어 탈의나 소지품을 보관할 공간조차 없고, 비옷이나 장화가 남성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 하다 보니 몸에 너무 크고 무거워 활동이 불편함
- 단체의 조직구성이나 주요 활동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하여 여성 활동가의 입장은 체력적으로는 남성에 비해 부족하지만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장점도 있어 여성도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남성 활동가 중심의 조직 운영은 여성이 남성의 기를 살리기 위해 더 움직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지역의 특성과 정서가 작용함
 - 남성 중심적 단체 운영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여성들이 임원도 맡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성역할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도 필요함

마. 정책적 개선방안

- 재난 발생 시 구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임산부나 특히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현장에서 여성의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

분에 대한 접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안전 교육 및 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 필요함
- 각종 재난, 범죄 등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안전 활동 분야에 여성 단원들을 보다 더 많이 위촉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도 필요함
 -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소방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도 이루어져야 함
- 여성 활동가의 교육과 훈련 및 실습을 확대하여 현장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의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탈의실이나 사무실 등 공간 마련, 자율봉사활동가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여성용 안전 장비 구입 및 배급도 필요함
 - 여성 활동가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이나 회의수당 인상 및 지급, 주차 및 유류비 지원 등 혜택제공도 고려할만함
 - 여성 활동가들이 안전하게 예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기 충격기와 같은 안전 장비와 의약용품을 비롯하여 생리대 등 여성용품의 지원도 필요함

제6장 성인지적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가. 안전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1)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
- 지원 대상에 임신부나 아이동반 보호자를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개정안

구분	현재	개정안
제 5조 (지원 대상)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임신부나 아동돌봄 보호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 조례제정에 포함될 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 교육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실태조사 실시할 때 성별분리통계 및 분석의 의무를 포함
- 교육실시 : 도민대상 안전교육 실시에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재난약자 고려하는 계획 수립
- 교육내용, 강사의 자격 및 역량강화, 교육홍보
- 위원회 성별균형 고려하여 구성

나. 안전교육 및 훈련에 여성 참여 확대

1)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

- 여성안전 활동가(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여성안전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및 대피방법, 지역 내 재난대피소 위치,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생활안전 수칙 등
 - 교육 대상 : 각 마을단위 부녀회, 여성단체 등
- 기대효과
 - 여성의 안전교육 참여 확대로 재난대응 능력 제고

- 여성 안전 전문 강사 활동 확대로 전문성 강화 및 여성 일자리 기회 제공

2)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에 여성 참여 인센티브 제공

○ 읍면동 주민자치 안전교육의 지원 확대

- 주민센터의 문화강좌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는 기존의 교육 방안은 지속적으로 실시 하되 모든 강좌에 간단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 안전교육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다. 여성 활동가 양성 및 환경 개선

1) 여성 안전 활동가를 위한 주민 센터 내 공간 설치

- 재난 발생 시 여성안전 활동가(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의 활동준비를 위한 탈의 실과 소지품 보관 사물함 등을 비치하여 출동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함

2) 여성안전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여성재난안전 활동가 과정 개설을 통한 안전전문 활동가 양성하여 재난 발생 시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
 - 참여확대를 위하여 마을단위 부녀회나 여성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교육비 지원 및 교육과정 수료 이후 활동가로 참여 시 수당 지급

3) 여성 안전 활동가를 위한 의류 및 장비 개선

-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등 안전관련 여성 활동가의 활동에 필요한 의류나 장비 등의 성능을 높이고 몸에 맞는 것으로 구입하여 지급
- 여성의 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생리대, 선크림, 신변보호를 위한 전기충격기 등)

라. 성인지 관점 재난대응 정책 강화

1) 안전 활동가 대상 성인지 교육

- 여성안전 활동가의 의견조사 결과 의용소방대, 소방인력,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 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및 내실화 필요함
- 사업 내용
 - 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에 성인지 내용 반영 (안전교육 전문 인력 육성·활용 영역)

2)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
 - 도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대중교통시설, 지역방송(자막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 안전체험교실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내용 포함하도록 모니터링 실시
-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복장구입
 - 안전체험관 이용 대상자 중 여성 및 복장이 불편한 이용자(스커트, 정장 등)를 위한 체험복(활동복) 구입 및 대여

3) 성인지 관점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 여성 및 재난취약자를 위한 재난 취약지역 발굴 및 안내
 - 기존 대피소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대피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대피소 지도제작 및 보급
 -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장소선정 및 안내, 시설물 설치, 운영 등에 재난취약자의 이해를 고려한 안내서 작성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6
가. 연구절차	6
나. 연구방법	7

제2장 재난대응 관련 정책 동향

1. 재난·재해 개념 및 범위	11
2. 재난·재해 관련 정책 동향	12
가. 재난·재해 관련 정책 및 법	12
나.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재해 대응 정책	18
3. 재난·재해 현황	24
4. 사고손상 사망 현황	30

제3장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 정책

1. 재난안전매뉴얼의 성인지 분석	37
가. 재난예방 및 대비단계	37
나. 재난대응단계	43
다. 재난복구단계	48
2. 해외사례 및 시사점	54
가. 일본의 재난안전 정책	54
나. 미국의 재난안전 정책	56
다. 시사점	58

제4장 제주지역 안전 인식 및 재난대응 실태와 정책수요

1. 조사 개요	63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63
나. 조사내용	63
다.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64
2. 조사 결과	67
가. 안전에 대한 인식	67
나. 안전교육·훈련 및 활동 경험	80
다. 재난대응 및 정책수요	106
3. 소결	120

제5장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집단면접 조사개요	129
2. 조사결과	130
가.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과정	130
나. 주요 안전 활동 : 남성대원 보조, 대피안내, 물품정리 등 주변적 역할	132
다. 안전 활동의 의미 및 한계 : 재난대응 자신감,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함	133
라. 성인지 관점의 안전 활동 문제점	135
마. 정책 개선방안	137
3. 소결	140

제6장 성인지적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5
2. 정책제안	150
가. 안전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150
나. 안전교육 및 훈련에 여성 참여 확대	152
다. 여성 활동가 양성 및 환경 개선	154
라. 성인지 관점 재난대응 정책 강화	156
3.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59
부록 1 : ‘제주지역 재난안전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설문지	161
부록 2 : 성인지 관점의 대피소 체크리스트 예시(일본)	168

표 목 차

<표 2-1> 중앙정부 재난안전정책별 주요 사업내용	14
<표 2-2> 안전취약계층별 안전종합대책	16
<표 2-3> 재난안전관련 법과 조직의 변천과정	17
<표 2-4> 재난안전 예산현황(2015~2020)	17
<표 2-5> 자연재해 : 시도별 피해현황(2017~2019)	24
<표 2-6> 자연재해 유형별 재산피해 현황(2019)	25
<표 2-7> 최근 10년간 재해별 인명피해 현황	25
<표 2-8> 지역별 사고발생 인명피해 현황(2019, 사망)	26
<표 2-9> 사고손상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전국/제주) 2018~2019	30
<표 2-10> 사고손상 사망자 원인별 순위(전국/제주) 2019	30
<표 2-11> 사고손상 사망자 중 남녀 비율(2019)	31
<표 2-12> 제주 총 사망자 대비 사고손상 사망자 현황 비교(2015~2019)	31
<표 2-13> 시도별 총 사망자 및 사고손상 사망자 현황 비교(2015~2019)	32
<표 4-1> 설문조사 내용	63
<표 4-2>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65
<표 4-3> 관심 있는 안전 분야	67
<표 4-4> 일상생활 안전여부_자연재난	69
<표 4-5> 일상생활 안전여부_사회재난	70
<표 4-6> 최근 1년 이내 자연재난 위험 경험	71
<표 4-7> 최근 1년 이내 사회재난 위험 경험	72
<표 4-8> 재난피해 원인(1+2순위)	73
<표 4-9>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태풍, 집중호우, 대설 ...	74
<표 4-10>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가뭄, 폭염, 황사	76
<표 4-11>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_풍랑, 해일	78
<표 4-12>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교통사고	78

<표 4-13>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화재, 가스폭발, 지반침하··	78
<표 4-14>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건물, 시설물 붕괴·····	79
<표 4-15>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전염병, 질병, 환경오염 등··	79
<표 4-16> 최근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 수강 경험·····	81
<표 4-17>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수강 분야 (다중응답)·····	82
<표 4-18> 안전 관련 교육 미수강 이유 (1+2순위)·····	83
<표 4-19> 제주지역 안전교육 횟수 적정 여부·····	84
<표 4-20>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기 사용법·····	85
<표 4-21>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완강기 사용법·····	86
<표 4-22>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전 사용법·····	87
<표 4-23>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폐소생술·····	88
<표 4-24>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장충격기 사용법·····	89
<표 4-25> 성별 안전장비 사용법 인지·····	91
<표 4-26> 여성의 연령별 안전장비 사용능력·····	92
<표 4-27>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 교육 장소 (1+2순위)·····	93
<표 4-28> 재난대응 능력_대피방법 인지 정도·····	94
<표 4-29> 재난대응 능력_생존수영 수행 정도·····	95
<표 4-30> 재난대응 능력_응급처치 가능 정도·····	96
<표 4-31> 재난대응 능력_위기대처 능력 정도·····	97
<표 4-32> 재난대응 능력_생활공간 내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의 위치 인지···	99
<표 4-33> 재난대응 능력_식량, 식수, 응급처치 물품 등 비상물품 준비·····	100
<표 4-34> 성별 재난대처 능력·····	101
<표 4-35> 재난대응의 성별차이 여부·····	103
<표 4-36> 성별 재난대응능력 차이 발생원인 (1+2순위)·····	104
<표 4-37> 안전 관련 활동 참여 여부·····	105
<표 4-38> 안전 관련 활동 유형·····	106
<표 4-39> 재난 대비 정보 습득 프로그램 참여 의사·····	107
<표 4-40> 지역에서 필요한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내용 (1+2순위)·····	108
<표 4-41>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희망 장소 (1+2순위)·····	108

<표 4-42>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 (1+2순위)	110
<표 4-43> 재난 재해 대피소 위치 인지 여부	111
<표 4-44>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 (1+2순위)	112
<표 4-45>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113
<표 4-46>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114
<표 4-47> 안전체험관_설치·운영 인지 여부	115
<표 4-48> 안전체험관 이용 경험 여부	116
<표 4-49> 안전체험관_이용 만족도	116
<표 4-50>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 방안	117
<표 4-51> 안전 환경 조성 정책 방향(1+2순위)	118
<표 4-52> 안전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1+2순위)	119
 <표 5-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29
<표 5-2>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	130
 <표 6-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개정안	 150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절차	7
<그림 2-1>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9
<그림 2-2> 제주특별자치도 방재체계	20
<그림 2-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21
<그림 2-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22
<그림 2-5> 전국 도로 교통사고 현황	26
<그림 2-6> 지역별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	27
<그림 2-7> 전국 화재사고 현황	27
<그림 2-8> 지역별 수난사고 현황	28
<그림 2-9> 전국 수난사고 인명피해 현황	28
<그림 2-10> 전국 등산 사고 현황	29
<그림 2-11> 전국 추락사고 현황	29
<그림 3-1> 태풍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동영상)	38
<그림 3-2>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38
<그림 3-3> 다중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조직과 임무)	39
<그림 3-4> 낙뢰 및 황사 예보 시 행동요령(동영상)	40
<그림 3-5> 식중독 예방 행동요령(동영상)	40
<그림 3-6> 전기안전 행동요령	41
<그림 3-7> 재난피해보고서 양식	42
<그림 3-8>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재해약자)	43
<그림 3-9>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민방공경보 시)	44
<그림 3-10> 국민행동요령(낙뢰 발생 시)	45
<그림 3-11> 국민행동요령(폭염특보 시)	45
<그림 3-12> 국민행동요령(폭설 시)	46

<그림 3-13> 국민행동요령(어촌 한파 시)	46
<그림 3-14> 여성의 재난대응활동	47
<그림 3-15> 재난복구활동(호우)	48
<그림 3-16> 재난심리회복 상담신청서(서식)	50
<그림 3-17>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실적 보고(서식)	51
<그림 4-1> 일상생활 안전여부_자연재난	69
<그림 4-2> 일상생활 안전여부_사회재난	70
<그림 4-3> 최근 1년 이내 자연재난 위험 경험	71
<그림 4-4>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태풍, 집중호우, 대설	75
<그림 4-5>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태풍, 집중호우, 대설	75
<그림 4-6>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가뭄, 폭염, 황사	77
<그림 4-7>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가뭄, 폭염, 황사	77
<그림 4-8>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	80
<그림 4-9> 최근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 수강 경험	81
<그림 4-10>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기 사용법	85
<그림 4-11>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완강기 사용법	86
<그림 4-12>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전 사용법	87
<그림 4-13>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폐소생술	89
<그림 4-14>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장충격기	90
<그림 4-15>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 교육 장소	93
<그림 4-16> 재난대응 능력_대피방법 인지 정도	95
<그림 4-17> 재난대응 능력_생존수영 수행 정도	96
<그림 4-18> 재난대응 능력_응급처치 가능 정도	97
<그림 4-19> 재난대응 능력_위기대처 능력 정도	98
<그림 4-20> 재난대응 능력_생활공간 내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의 위치 인지	99
<그림 4-21> 재난대응 능력_식량, 식수, 응급처치 물품 등 비상물품 준비	100
<그림 4-22> 성별 재난대응능력 차이 발생원인 (1+2순위)	105
<그림 4-23>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희망 장소 (1+2순위)	109

<그림 4-24>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 (1+2순위)	110
<그림 4-25> 재난 재해 대피소 위치 인지 여부	111
<그림 4-26>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 (1+2순위)	112
<그림 4-27>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113
<그림 4-28>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114
<그림 4-29>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 방안	117
<그림 4-30> 안전 환경 조성 정책 방향(1+2순위)	119
<그림 4-31> 안전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1+2순위)	12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안전은 오랫동안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주로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세월호 사건(2014)을 계기로 재난과 안전 관련 현안이 부각되기 시작함
-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 공동체’를 목표로 선정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관련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은 성별과 무관한 이슈로 인식되어 왔으나 대형 자연재해와 재난에 여성을 비롯한 노약자의 피해가 많고¹⁾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율이 낮을 뿐 아니라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부족한 실정²⁾에서 우리사회 전반에 재난 재해 관련 안전 정책에서 여성들이 비가시 되어 있어 왔음
 - 허라금(2012)은 2000년대 초 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사망자의 75%가 여성)나 싸이클론(사망자의 90% 여성) 등 자연재해에서 여성의 희생이 남성에 비해 훨씬 컸음에 주목하고 아시아 지역현장에서 일어난 재난연구들을 바탕으로 재난에 취약하게 하는 젠더의 구성적인 면을 밝혔고 재난현상을 이해하는데 젠더 중립적인 관점이 갖는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재난에 대한 이해를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할 필요성(허라금, 2015)을 언급하였음
 - 강희영(2015)은 여성들이 재난 재해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 경험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반적으로 스스로 재난에 대한 관심이나 대비능력이 부족하여 재난대응 정책에 젠더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강남역 지하철 사건 안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

1) 허라금. 2012.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 철학』 13집. P. 1-26.

2) 강희영. 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200-205.

하고 여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정부 및 지역단위에서 진행되어 왔고³⁾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 안전이슈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정책과 연계하기 시작(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0., 2016)함

- 재난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는 그동안 물성적(gender blind) 관점에서 시행되었던 정책을 여성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고 중앙부처(여성가족부)와 경기, 강원, 서울 등에서 시도되었음
- 안태운(2014)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성별이슈를 검토하고 재난대처의 각 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단계, 정책결정 및 평가체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난안전대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김동식 등(2015)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재난안전 역량 실태를 분석하고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과 관련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민연경 등(2020)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불이나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차이를 밝히고 재난안전 정책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함

○ 제주지역에서 2018년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등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범죄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적·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에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안마련이 더욱 필요함
- 제주지역 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유형별 의식수준을 파악하고 안전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도민안전 체감도 조사를 실시⁴⁾하고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의 검토와 정책제안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1) 체감형 안전교육 활성화와

3) 김동식 외. 2015. 「재난안전관리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안태운. 201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4) “제주도 안전체감도, 도민에게 듣는다”. 도민안전실 보도자료 2020. 10. 5

안전규제 강화, 2) 산업현장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백서 발간사업 필요,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및 규제 강화, 5) 안전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방안 개선, 6) 안전예방을 위한 대응조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7) 제주안전 지킴이를 통한 홍보 일자리 창출, 8) 코로나10 관련 도민 체감형 대책 강구 등을 제안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2020)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대비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실시하였으나 안전 취약계층에 여성이 제외되었음⁵⁾
 - 안전관련 일부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⁶⁾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도민 인식이나 경험, 재난대처 능력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은 부족한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안심비상벨 및 CCTV 설치, 안심택배 등)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와 폭력으로부터 안전정책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난 안전의 범주에 젠더관점의 실태파악과 정책반영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없었음
- 재난 재해 관련 성별분리 통계 현황 및 대응 매뉴얼을 분석하여 성별영향을 검토하고 안전정책 의사결정과정, 재난교육 참여 등 안전 활동의 여성참여 등을 점검하고 도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 박창열·라정일. 2019. 「안전취약계층 재난대비 지원체계개선방안」. 제주연구원.

6)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 본청의 ‘안전문화운동 확산’,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주민봉사대 운영’, 제주시의 ‘안전관리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 등임(제주 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자료, 2020)

2.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영역을 포함함
- 국내·외 안전 관련 정책 현황 및 이슈 검토
 - 중앙정부 및 제주지역 안전정책 및 법령 분석하여 제도적인 현황을 검토함
 - 안전 정책 관련 해외사례 및 국제이슈를 점검하고 제주지역 안전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안전정책 및 사업의 성별분리 통계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에 있어 성별차이가 발견되고 있는지를 검토함
- 안전관련 도민의 실태와 인식, 정책수요 파악
 -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위험 경험, 피해 가능성 등
 - 안전교육 및 훈련 경험, 참가배경, 안전장비 사용법, 재난안전 대응능력 등
 - 안전교육 및 관련활동을 통한 정책참여 방안, 안전관련 정책수요 및 개선방안 등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제주지역 재난대응 개선방안 제안
 -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
 - 안전교육 및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 재난 구조현장에서의 성별경험을 반영한 성인지적 대응방안

3. 연구 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됨

〈그림 1-1〉 연구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 연구 검토 • 관련 분야 정책 현황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4단계	조사 실시 (설문조사, 전문가 집단면접)	⇔	•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429명 대상 면대면 설문조사 •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 집단면접(FGI)(15명) - 제주지역 여성 자율방재단, 안전교육 강사, 의용소방대 활동가
5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안	⇔	• 연구진회의(3회) • 조사결과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나. 연구방법

○ 문헌자료 검토

- 국내·외 안전관련 법령, 정책, 해외사례, 통계자료 등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 및 현황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약 429명
- 내용 : 안전인식, 재난대처 방법 및 능력, 안전교육 및 활동경험, 정책수요 등
-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면대면 조사

○ 전문가 집단면접(FGI)

- 대상 : 안전 관련 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약 15인
 - 안전정책 분야 담당자 및 전문가 여성안전 활동가(의용소방대, 재난안전 교육 강사, 자율방재단)
- 내용 : 안전 활동 및 교육 경험, 활동의 의미와 한계, 활동과정에서의 성별차이 여부, 지역안전을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정책수요 등

제 2 장

재난대응 관련 정책 동향

- 1. 재난재해 개념 및 범위
- 2. 재난재해 관련 정책 동향
- 3. 재난재해 현황
- 4. 사고손상 사망 현황

1. 재난·재해 개념 및 범위

- 재난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풍수해(風水害)를 비롯한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임
-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개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외재난이라 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으로 정의하여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9조 3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성을 안전취약 계층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체제는 기본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고, 재난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사회적(인위적)재난, 자연재해로 구분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재난의 특성은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기 쉬움
- 재난은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고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음
- 재난의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재난·재해 관련 정책 동향

가. 재난·재해 관련 정책 및 법

1) 재난관련정책 수립과정

- 우리나라는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면서 최초의 국가재난관리계획인 방재기본계획제도를 수립함. 1977년에는 방재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를 전담하는 방재계획관실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강화함. 제1차 방재기본계획(1977~1981)은 풍수해와 가뭄 등 주로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수립됨. '90년대 이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인적재난이 빈발하자 정부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를 추진하고 재난관리법령을 재정비하여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함.⁷⁾ 그리고 인적재난 중심의 국가재난관리계획(1996~2004)과 자연재난대응을 위한 방재계획으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함
- 2004년에는 태풍 루사(2002년)와 대구 지하철참사(2003년) 등 초대형 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방방재청을 설립함. 그리고 종전의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고, 중앙부처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으로 구분

7) 행정안전부(2021),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하고 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분야별 계획 수립체계를 확립함. 이후 매 5년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음(제1차 2005~2009, 제2차 2010~2014, 제3차 2015~2019, 제4차 2020~2024). 동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⁸⁾

- 향후 5년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세부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지침 제공
-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적 운영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단계별 국가 역량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부처별 지역별로 관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종합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 제시
- 재난에 대하여 회복력을 가진 안전한 공동체 형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각종 민간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제시

2) 재난관리 정책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총괄부처는 행정안전부로서,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 가운데에는 재난관리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이 포함되어 있음⁹⁾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특징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범정부적 조직체계를 갖추어 재난을 관리하는 것임. 즉 대통령 직속 하에 재난대응 및 복구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대규모 재난 시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차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범정부 통합대응 재난 시 본부장 국무총리, 차

8)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에 근거함.

9) 행정안전부는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로, 2014년 11월에는 인사처와 안전처를 분리하여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고, 2017년 7월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ois.go.kr>

장 행정안전부 장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각 부처에서 소관 재난유형을 관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를 설치하고, 지자체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지역(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를 설치하여 대응함. 또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를 두고 있음¹⁰⁾

- 중앙정부 재난안전 정책의 핵심은 1)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2)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3) 안전 환경·문화 조성, 4) 현장 중심 재난대응·복구 역량 강화, 5) 체계적·효율적인 위기대응체계 구축임. 각 정책별 주요 사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표 2-1> 참조)

〈표 2-1〉 중앙정부 재난안전정책별 주요 사업내용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 확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안전지수 공표 : 지자체 안전수준 측정, 1~5등급 공표 3.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해소 : 매년 주요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실시 4.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 개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이를 통한 안전정책 수립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1. 안전 기준 및 제도의 지속적 관리·개선 : 안전기준 심의, 시스템에 등록 관리 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 사전 검토 제도 운영 3. 생활안전정보 제공 : 치안, 교통, 재난, 사고 등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지도위에 제공하는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 안전사고 등 정보 제공 4. 안전신문고 운영 :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위험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포털, 앱을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 운영 5.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긴급신고(112, 119)와 비긴급신고(110) 3개 번호로 단순화, 신고접수 내용 및 위치 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긴급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안전 환경·문화 조성	1. 안전무시관행 근절 :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선정 및 종합 근절대책 추진 2.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국민이 참여하는 실천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구성 등 민관협력 강화

10) 행정안전부(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3.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 6대 안전분야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4.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재난안전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한 재난유형별 교육과정 운영, 생활안전체험 과정 편성, 해외 국가들과의 공동연수과정 운영, 대국민안전교육전문강사 등록 및 활용, 10개 대학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
현장 중심 재난대응·복구 역량 강화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5개 유관기관이 연중 합동 상황근무로 국가재난상황 총괄 관리 2. 재난대응체계 혁신 : 재난발생 시 지자체의 역할, 책임, 기능 등을 정리한 '지자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 매뉴얼 제작 및 제공 3. 국민참여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 매년 중앙부처(24개), 공공기관(54개), 모든 지자체(245개)가 참여하는 1,000회 이상 합동훈련 실시, 전국 지진 대피훈련,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 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등 국민참여 훈련프로그램 확대 4. 현장 중심의 재난자원 활용 및 협력체계 강화 : 각 기관 보유 자원정보의 체계적 관리 위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5. 재난 피해 복구 지원 : 재난피해 입은 지자체에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 6. 현장 맞춤형 구호서비스 제공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재해구호물자비축기준' 등 규정 마련,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자체 재난구호지원사업 추진, 민간기업과 재난구호분야 협약 체결,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및 재난심리상담 실시 7. 보험을 통한 재난피해 보상체계 구축 : 국민의 인명·재산상 피해 보상 위해 풍수해보험과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 운영
체계적·효율적인 위기대응체계 구축	1. 범정부적 비상대비 체계 강화 : 비군사분야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행정기관, 자원관리업체 관리, 비상대비 동원자원 기본계획 수립 및 각 부처 동원계획 조정, 전시 재난대비 연습 및 지역 통합방위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2. 민방위 체계 구축 :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한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정부 지도하의 주민의 자위적 활동 관리, 교육훈련 실시, 시설 운용 등

출처 : 행정안전부(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 중앙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옴. 급속한 고령화를 반영하여 2016년 10월에는 노인 안전종합대책, 2017년 9월에는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12월에는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종합대책, 2018년 5월에는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별로 세부과제를 추진함. 각 안전대책별로 주요 정책분야와 소관부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표 2-2> 참조)

〈표 2-2〉 안전취약계층별 안전종합대책

대상	분야	소관부처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노인	노인교통안전관리 강화, 노인 생활안전 개선,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강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장애인	장애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국인·다문화가족	외국인·다문화가족을 위한 재난안전기반 강화, 외국인·다문화가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외국인·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출처 : 행정안전부(2020), 「2019 행정안전백서」

-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서 안전취약계층에는 임신부와 재난취약계층을 돌보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이들을 동반하여 이동·대피하여야 하는 돌봄담당자(주로 여성)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성인지 관점에 기반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재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재난관련 법제도

- 우리나라는 1995년 각종 인적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면서 국가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함. 중앙정부의 재난관련 법과 조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2-3> 참조)

〈표 2-3〉 재난안전관련 법과 조직의 변천과정

년도	법	조직
1950~1980년대	1962년 재해구호법 1967년 자연재해대책법 1975년 민방위기본법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984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948년 내무부(건설국, 토목국) 1961년~1991년 건설부(국토 건설청) 재해대책 업무 관장
1990년대	1992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1995년 재난관리법	1991년 내무부 재해대책 업무 이관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내무부, 총무처 통합)
2000년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6년 풍수해보험법 2007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008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8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9년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2004년 소방방재청(재난관리 업무전담기구) 신설 2008년 행정안전부 신설(행 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 부 일부 통합)
2010년대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016년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2016년 소화전정비법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 2014년 국민안전처 [안전행정 부(사회재난), 소방방재청(자 연재난), 해양경찰청 통합]

출처 : 행정안전부(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4) 재난관련 예산

- 최근 5년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연평균 3.6%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사업장 산재, 자살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와 도로시설, 철도설비 등 노후 기반시설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표 2-4> 참조)¹¹⁾

〈표 2-4〉 재난안전 예산현황(2015~2020)

(단위 : 조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14.7	14.6	14.3	15.2	15.9	17.5

출처 : 행정안전부(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11) 행정안전부(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 2020년 기준 주요 재난사고유형별로 재난안전예산을 살펴보면, 풍수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로교통재난사고, 철도교통재난사고, 미세먼지, 가뭄, 감염병, 사업장 산재, 가축 및 수산물 전염병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¹²⁾

나.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재해 대응 정책

1)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도시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제주 안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4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안전도시³⁾로서의 여건을 충족하고 공인되었음
- 2008년에 제주손상감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설립하고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2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사고손상을 저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분야별 사고손상에 따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도민의 체감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재난 유형별 관리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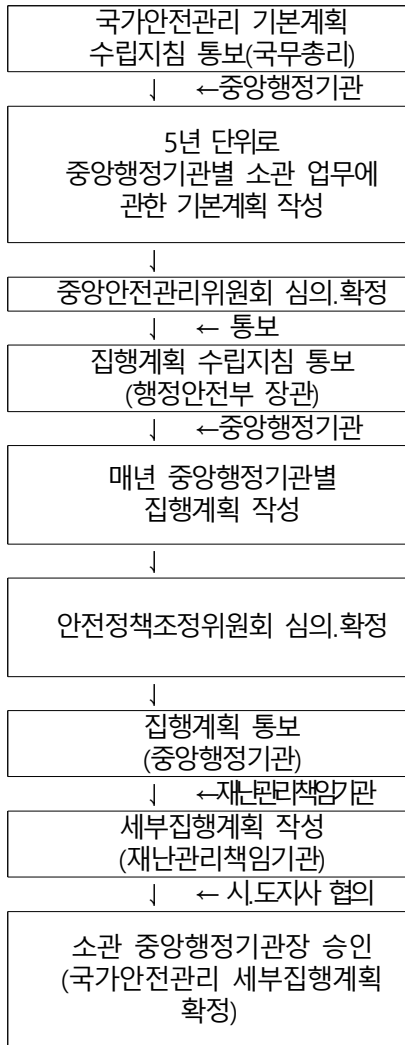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역단위 단체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집행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12) 행정안전부(2021), 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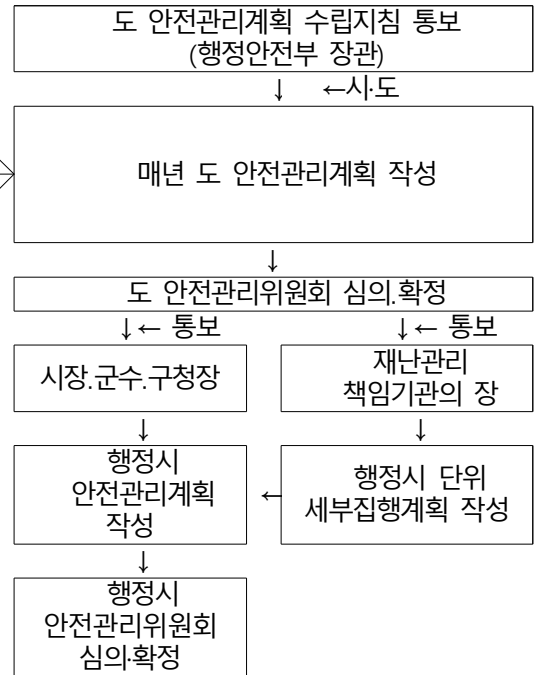
1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이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톡홀름 사고손상세계 학술대회 선언문에 담긴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jeju.go.kr/safe/safe/safe.htm>)

〈그림 2-1〉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자료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안전정책과 내부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3개 영역, 43개 유형의 사업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자연재난) 풍수해, 지진, 폭염, 등 9개 유형(14개 세부추진대책)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교통 재난·사고, 감염병 등 26개 유형(62개 세부추진대책)

- (공통) 안전문화, 재난구호 및 복구, 재난안전관리체계, 국가핵심기반사고, 취약계층 지원 등 8개 유형(30개 세부추진대책)

〈그림 2-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②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 비상 I 단계(주의, Yellow)

1. 가동기준

태풍	호우.홍수.강풍	대설.한파.지진	폭염.건조.가뭄	해일.풍랑.적조
예비특보 발효시	도전역 주의보 또는 2개지역 이상 경보 (산간제외) ※ 행정시는 1개지역 이상 경보 (산간제외)	도전역 주의보 또는 2개지역 이상 경보 (산간제외) ※ 행정시는 1개지역 이상 경보 (산간제외)	도전역 주의보 또는 2개지역 이상 경보 (산간제외) ※ 행정시는 1개지역 이상 경보 (산간제외)	제주도 앞바다 주의보 또는 2개지역 이상 경보 ※ 행정시는 1개지역 이상 경보

2. 실무반 편성

근무원	총 4+α명	
상황관리 총괄반 (4)	반 장(1)	재난수습주무과장
	재난정보수집팀 대응상황보고팀 상황관리총괄팀 행정지원팀 (3)	- 재난상황관리반(3)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공보관(α), 복지청소년과(α), 생활환경과(α), ICT융합담당관(α), 도시건설과(α), 미래산업과(α), 교통정책과(α), 보건건강위생과(α), 자치행정과(α), 교통생활안전과(α), 방호구조과(α), 재난대응과(α), 친환경농정과(α), 수산정책과(α), 해양산업과(α), 해운항만물류과(α), 문화정책과(α),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α)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https://jeju.go.kr/safe/disaster/prevention.htm>)

〈그림 2-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⑤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명)	반 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팀(4)	- 재난상황관리반(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재난대응과(1) 재난수습 주무부서(1)
	대응상황보고팀(2)	- 재난수습주무부서(1), 재난수습책임조직(1)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팀(4)	- 재난수습주무부서(2), 재난수습 책임조직(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2)	- 총무과(1), 재난수습주무부서(1) ※ 주요인사 방문시 의견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공보관(α), 복지청소년과(α), 생활환경과(α), ICT융합담당관(α), 도시건설과(α), 미래산업과(α), 교통정책과(α), 보건건강위생과(α), 자치행정과(α), 교통생활안전과(α), 방호구조과(α), 재난대응과(α), 친환경농정과(α), 수산정책과(α), 해양산업과(α), 해양환경물류과(α), 문화정책과(α), 상하수도본부 검염관리과(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교육청(β), 해병제9여단(β), 경찰청(β), 해양경비안전본부(β), 기상청(β), KT제주고객본부(β), 한국전력공사(β), 한국전기안전공사(β), 한국가스안전공사(β) - 기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https://jeju.go.kr/safe/disaster/prevention.htm>)

3) 안전체험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내외 방문객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0년 11월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스스로 행동하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선박과 항공기 특성화 체험관을 갖추고 있으며, 재난현장 전문가의 지도로 21개 체험종목의 맞춤형 중

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체험이 가능한 안전유형은 태풍이나 선박을 비롯한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항공사고, 보건안전, 화재안전 등 사회적 재난에 관한 체험 및 안전관리 방법으로 구성됨

4) 안전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련 정책 중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도 본청 3개 사업(안전문화운동 확산, 재난심리안정지원 사업, 주민봉사대 운영) 제주시 2개 사업(안전관리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모두 5개 사업임
-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은 도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 참여 기회가 적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별참여자 비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여성 고령자 노인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의 수혜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재난심리안정지원 사업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상담지원을 통해 재난이전의 일상회복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심리상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재난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나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익수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민간관리요원의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분석, 도민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실시되었으나 여성단원들의 임무 재조정,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단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성역할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재난 · 재해 현황

- 자연재해로부터 연간 국민의 재산피해 현황에 대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2,162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의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있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인천, 부산경북, 경남 등에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지역은 2018년 2019년 2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지역은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섬이라는 특성으로 많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표 2-5〉 자연재해 : 시도별 피해현황(2017~2019)

(단위 : 천원)

시도별	2017	2018	2019
합계	187,302,271	141,284,191	216,225,874
서울	44,613	2,622,682	126,000
부산	1,803,408	7,297,329	1,931,608
대구	-	103,930	28,971
인천	2,549,600	521,535	10,406,647
광주	2,400	28,292	26,355
대전	1,200	3,010,277	6,566
울산	-	574,018	2,996,476
세종	32,360	758,601	38,850
경기	2,880,502	19,850,417	6,775,115
강원	7,122,028	7,886,873	32,932,889
충북	57,717,484	9,609,517	868,554
충남	24,481,916	2,395,708	5,702,842
전북	71,761	5,249,000	3,033,836
전남	148,416	20,205,812	19,519,371
경북	86,649,762	41,773,463	117,543,996
경남	3,474,948	17,377,142	11,740,264
제주	321,873	2,019,595	2,547,534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자연재해현황-시도별 피해현황

- 자연재해의 유형별 재산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98.4%로 가장 크고 다음이 호우, 대설, 폭염 순으로 나타남

〈표 2-6〉 자연재해 유형별 재산피해 현황(2019)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태풍	호우	대설	폭염	풍랑, 강풍	기타
피해액	216,225	212,778	1,651	671	618	481	26
비율(%)	100	98.41	0.76	0.31	0.29	0.22	0.01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재해연보」

- 최근 10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22명 남짓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2018, 2019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여 기후로 인한 재난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2-7〉 최근 10년간 재해별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호우	7	77	2	4	2		1	7	2		10.2
태풍	7	1	14				6		3	18	4.9
대설											
기타*									48	30	7.8
계	14	78	16	4	2		7	7	53	48	22.9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재해연보」

주: 2018년 기타에 표시된 48명은 '폭염' 피해 사망자 수임(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제출 자료에 근거)

주: 2019년 기타에 표기된 30명은 '폭염' 피해 사망자 수임

(2019년부터 '폭염' 인명피해 수는 통계청에서 공표한 통계 수치에 따름)

- 2019년도 기준 전국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이 가장 많고(3,349명), 추락(825명), 익사 등 수난사고(475명), 화재(28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은 도로교통(66명), 익사 등 수난사고(31명), 해양(9명) 순으로 나타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은 것은 전국수치와 같지만 수난사고와 해양사고로 인

한 사망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있음

〈표 2-8〉 지역별 사고발생 인명피해 현황(2019, 사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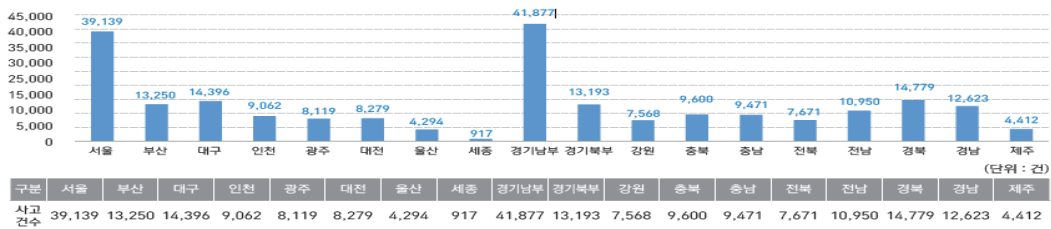
사고 유형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325	358	181	164	178	85	106	88	18	1,263	307	294	403	329	448	481	501	121
도로 교통	3,349	247	127	97	133	49	73	53	15	604	187	195	309	248	295	367	284	66
화재	285	37	9	11	14	10	9	4	-	47	16	15	33	13	23	15	26	3
해양	58	-	-	-	1	-	-	4	-	-	4	-	2	6	16	5	11	9
수난 (약사등)	475	25	14	15	12	4	10	13	1	49	50	41	25	25	55	26	79	31
등산	66	1	4	2	2	2	2	-	-	11	9	7	2	4	2	5	8	5
추락	825	32	18	33	12	11	8	9	2	530	15	22	13	22	17	19	56	6
농기계	83	-	-	1	-	2	-	1	-	-	4	5	6	5	21	18	19	1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사고발생 인명피해 현황(사망)

- 전국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41,877건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917건으로 가장 적음. 제주지역은 4,4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전국 도로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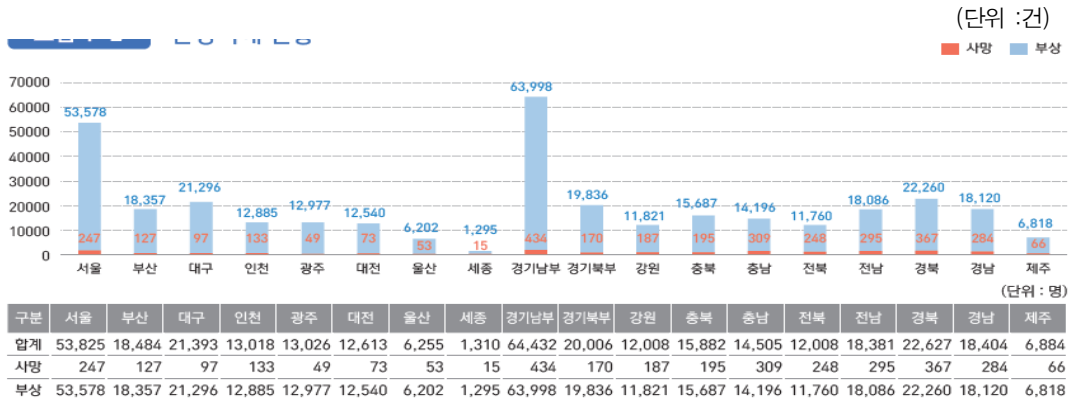
자료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2134)

- 2019년 기준으로 지역별 교통사고의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사망 434명, 부

상 63,998명)와 서울(사망 247명, 부상 53,578명)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보였으며 제주지역은 사망과 부상을 모두 합해 6,884명의 인명피해가 나타났으며 사망도 66명이 발생함

〈그림 2-6〉 지역별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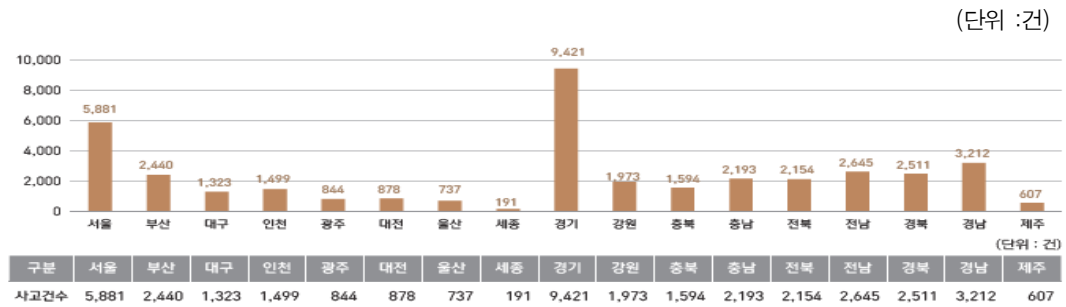


자료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r=2134)

- 2019년 기준 전국 화재사고 현황은 경기도가 9,421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지역도 60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전국 화재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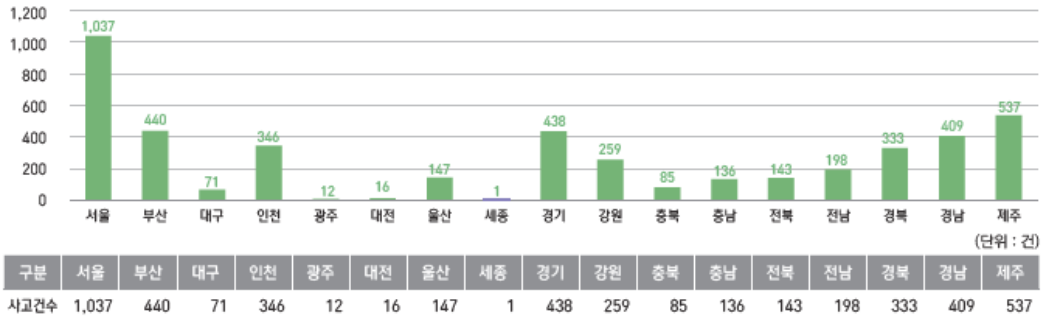
자료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r=2134)

- 2019년 전국 수난사고 현황은 서울시가 1,037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지역이 537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여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남

〈그림 2-8〉 지역별 수난사고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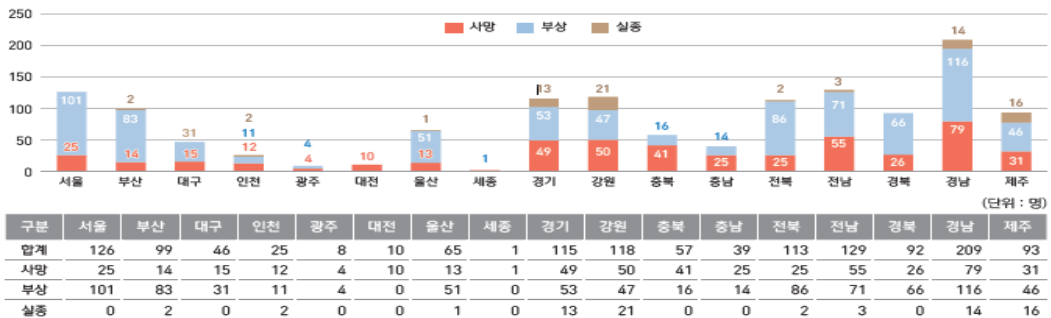
자료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r=2134)

- 2019년,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현황은 경남이 20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은 93명으로 사망 31명, 부상 46명, 실종 16명으로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전국 수난사고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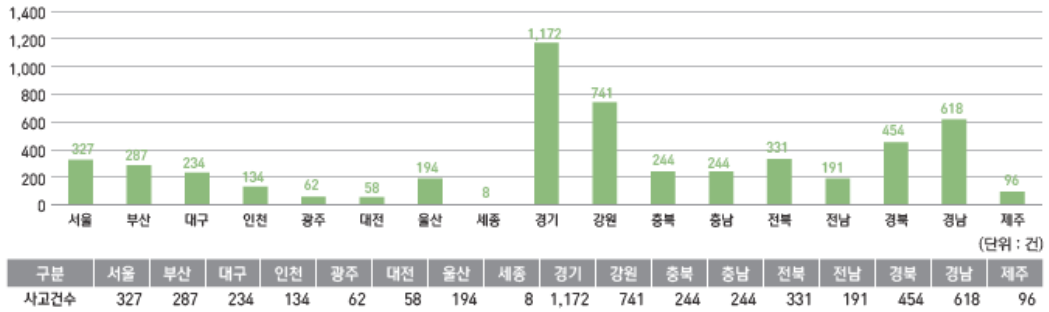
자료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r=2134)

- 전국 등산 사고 현황은 2019년 기준, 경기도가 1,172건으로 가장 많고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강원(741건), 경남(618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제주지역은 96건 발생함

〈그림 2-10〉 전국 등산 사고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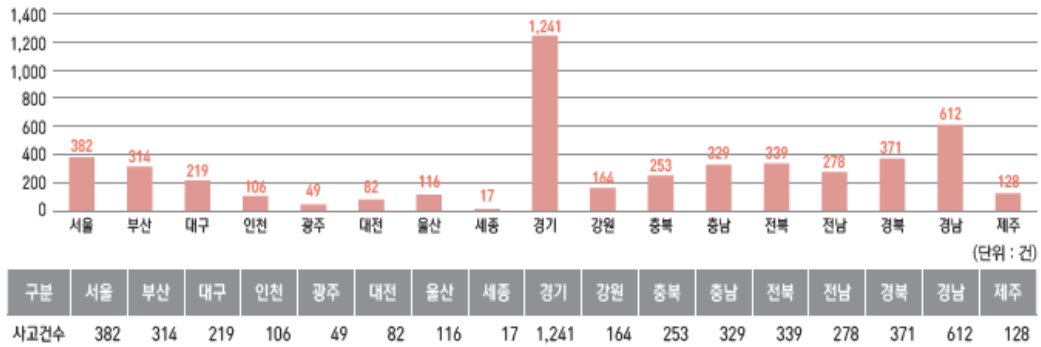
자료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r=2134)

- 전국 추락사고 현황은 2019년 기준, 경기(1,241건)와 경남(612건)이 많이 발생했고 제주지역도 128건으로 적지 않은 수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림 2-11〉 전국 추락사고 현황

(단위 : 건)



자료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r=2134)

4. 사고손상 사망 현황

- 사고로 인한 손상사망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와 사회적 재난 혹은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임
- 2019년 통계청의 기준으로 보면 전국 사고손상 사망자는 27,282명이고 이중 제주지역은 414명으로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대비 손상사망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 2-9〉 사고손상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전국/제주) 2018~2019

(단위 :명)

사고손상	전 국			제 주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사망자수	28,040	27,282	↓758 (2.7%)	422	414	↓8 (1.9%)
조사망률	54.7	53.1	↓1.6 (2.9%)	64.3	62.4	↓1.9 (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2019년도 사고손상으로 인한 사망원인 등 통계 분석 결과

주 : 조사망률은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일 년간 신고된 총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의 인구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 2019년 기준 사고로 인한 손상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해/타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운수사고, 낙상/추락, 익사/익수, 가해/타살, 화재/연기, 유독물질 순으로 나타남

〈표 2-10〉 사고손상 사망자 원인별 순위(전국/제주) 2019

(단위 :명,%)

순위	사망원인	전국		제주	
		사망자수	점유율	사망자수	점유율
합 계		27,282	100	414	100
1	자해/타살	13,799	50.6	210	50.7
2	기타	5,260	19.3	77	18.6
3	운수사고	4,221	15.5	74	17.9
4	낙상/추락	2,665	9.8	23	5.6
5	익사/익수	470	1.7	18	4.3
6	가해/타살	408	1.5	7	1.7
7	연기, 불, 불꽃	238	0.9	5	1.2

순위	사망원인	전국		제주	
		사망자수	점유율	사망자수	점유율
8	유독성물질	221	0.8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내부자료, 2019

- 사고손상 주요 요인별 사망자 중 기타와 사망자 수가 매우 적은 가해/타살, 연가.불꽃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제외한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자살, 운수(교통사고), 익사 사망자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익사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표 2-11〉 사고손상 사망자 중 남녀 비율(2019)

(단위 :명)

구분	계	자해	운수	낙상	익사	가해	화재	기타
계	414(100%)	210(50.7%)	74(17.9%)	23(5.6%)	18(4.3%)	7(1.7%)	5(1.2%)	77(18.6%)
남자	290(70%)	159(38.4%)	52(12.6%)	16(3.9%)	13(3.1%)	5(1.2%)	2(0.5%)	43(10.4%)
여자	124(30%)	51(12.3%)	22(5.3%)	7(1.7%)	5(1.2%)	2(0.5%)	3(0.7%)	34(8.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2019년도 사고손상으로 인한 사망원인 등 통계 분석 결과

- 2019년 기준 사고손상 사망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70%)이 여성(30%)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최근 5년간의 총 사망자수 대비 손상사망자 비율은 약 10% 남짓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

〈표 2-12〉 제주 총 사망자 대비 사고손상 사망자 현황 비교(2015~2019)

(단위 :명)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사망자	18,490	3,339	3,542	3,738	3,912	3,959
사고손상 사망자	2,017	391	379	411	422	414
사고손상 사망자 비율	10.9%	11.7%	10.7%	11.0%	10.8%	10.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2019년도 사고손상으로 인한 사망원인 등 통계 분석 결과

○ 시도별 총 사망자 및 사고손상 사망자 현황

- 전국 사고손상 사망자는 2019년 기준 27,282명, 사망률은 53.1%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사고사망자는 매년 약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률은 62.4%로 최근 3년간 약간 줄었지만 전국의 53.1%인데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표 2-13〉 시도별 총 사망자 및 사고손상 사망자 현황 비교(2015~2019)

(단위 :명,%)

시 도 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전 국	총사망자	275,895	541.5	280,827	549.4	285,534	557.3	298,820	582.5	295,110	574.8
	사고사망자	28,784	56.5	28,218	55.2	27,154	53	28,040	54.7	27,282	53.1
서 울	총사망자	43,053	434.6	43,540	443.8	42,932	441.5	45,219	468.9	43,829	457.6
	사고사망자	4,251	42.9	4,290	43.7	4,126	42.4	4,132	42.9	3,889	40.6
부 산	총사망자	20,820	598.5	21,074	607.8	21,434	622.0	22,570	660.3	22,260	656.6
	사고사망자	1,950	56.1	1,867	53.8	1,739	50.5	1,749	51.2	1,982	58.5
대 구	총사망자	13,081	529.3	13,502	547.4	13,629	553.9	14,070	574.4	13,752	565.7
	사고사망자	1,256	50.8	1,294	52.5	1,176	47.8	1,291	52.7	1,303	53.6
인 천	총사망자	13,452	466.0	14,119	485.9	14,290	489.9	15,316	524.0	15,131	516.9
	사고사망자	1,471	51.0	1,462	50.3	1,316	45.1	1,463	50.1	1,439	49.2
광 주	총사망자	7,443	508.0	7,247	495.8	7,560	518.8	7,781	535.7	7,635	527.0
	사고사망자	729	49.8	664	45.4	714	49.0	725	49.9	698	48.2
대 전	총사망자	6,961	459.7	6,958	462.2	7,029	469.4	7,403	498.4	7,502	509.7
	사고사망자	787	52.0	759	50.4	691	46.2	838	56.4	721	49.0
울 산	총사망자	4,915	422.5	4,947	424.2	4,886	420.4	5,349	463.4	5,268	459.8
	사고사망자	550	47.3	549	47.1	510	43.9	585	50.7	563	49.1
세 종	총사망자	979	536.1	1,065	471.3	1,159	444.8	1,259	425.3	1,221	374.3
	사고사망자	97	53.1	123	54.4	97	37.2	156	52.7	128	39.2
경 기	총사망자	53,005	429.6	55,215	441.4	56,852	448.3	60,050	466.9	60,568	464.3

시 도 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	사망률
강 원	사고사망자	6,062	49.1	5,772	46.1	5,762	45.4	5,815	45.2	5,831	44.7
	총사망자	11,301	737.0	11,437	744.5	11,545	751.3	11,976	781.2	11,906	778.9
	사고사망자	1,202	78.4	1,150	74.9	1,139	74.1	1,159	75.6	1,145	74.9
충 북	총사망자	10,638	677.1	10,787	684.0	11,104	701.7	11,334	714.4	11,363	714.9
	사고사망자	1,122	71.4	1,184	75.1	1,112	70.3	1,132	71.4	1,027	64.6
충 남	총사망자	14,469	703.8	14,600	704.4	15,321	732.2	15,802	749.9	15,596	738.9
	사고사망자	1,651	80.3	1,587	76.6	1,625	77.7	1,652	78.4	1,600	75.8
전 북	총사망자	13,721	738.3	14,062	758.2	14,295	773.8	14,552	793.6	14,525	799.8
	사고사망자	1,349	72.6	1,358	73.2	1,440	77.9	1,294	70.6	1,262	69.5
전 남	총사망자	16,543	873.3	16,561	874.8	16,848	892.7	17,219	917.3	16,787	900.9
	사고사망자	1,780	94.0	1,627	85.9	1,519	80.5	1,483	79.0	1,359	72.9
경 북	총사망자	20,862	777.2	20,978	781.7	21,278	794.5	22,289	835.8	21,703	817.8
	사고사망자	2,012	75.0	2,094	78.0	1,878	70.1	1,926	72.2	1,883	71.0
경 남	총사망자	21,313	638.7	21,193	633.0	21,634	644.6	22,719	676.8	22,105	660.2
	사고사망자	2,124	63.7	2,059	61.5	1,899	56.6	2,218	66.1	2,038	60.9
제 주	총사망자	3,339	546.2	3,542	564.0	3,738	580.4	3,912	595.7	3,959	596.7
	사고사망자	391	64.0	379	60.3	411	63.8	422	64.3	414	62.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내부자료 2020.

제 3 장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 정책

1. 재난안전매뉴얼의 성인지 분석
2.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재난안전매뉴얼의 성인지 분석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에는 재난예방과 대비 방법 그리고 재난 후의 재난심리상담과 관련된 매뉴얼이 다수 탑재되어 있음. 재난 예방대비에는 「국민행동요령」과 「준비점검」, 「자율안전점검」, 「어린이놀이 시설점검」, 「재난훈련」, 「비상연락망」 등 6개 분야가 탑재되어 있고, 각 분야 별로 세부적인 예방법을 제시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음
- 「국민행동요령」은 다시 자연재난행동요령, 사회재난행동요령, 생활안전행동요령, 비상대비행동요령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범주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음
- 자연재난행동요령은 19가지의 자연재난(태풍, 호우, 낙뢰, 강풍, 풍랑, 대설, 한파, 폭염, 황사, 지진, 해일, 지진해일, 화산폭발, 가뭄, 홍수, 해수면상승, 산사태, 침수, 자연우주물체 추락)에 대해 사전준비, 대응 등 단계별로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탑재된 재난안전매뉴얼들을 성인지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재난예방 및 대비단계, 재난대응단계, 재난복구단계의 세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또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성을 재난대응활동의 적극적 참여자로 표현한 부분도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할 것임

가. 재난예방 및 대비단계

1)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비가시화

- ‘태풍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은 남성기자 1인이 태풍 관련 대응요령을 해설하는 영상임. 이 영상에는 해설자뿐만 아니라 재난대응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남성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마치 여성은 재난을 예비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음. 여성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재난대응의 참여자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그림 3-8> 참조)

〈그림 3-1〉 태풍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동영상)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을 하는 이미지도 남성으로만 표현되어 있음(<그림 3-9> 참조)

〈그림 3-2〉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2021)을 살펴보면, 위기단계별 조직과 임무를 나타낸 그림에서 재

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성으로만 그려져 있음. 실제로 여성도 일선 현장에서 재난대비와 대응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활동모습도 나타내야 함 (<그림 3-10> 참조)

〈그림 3-3〉 다중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조직과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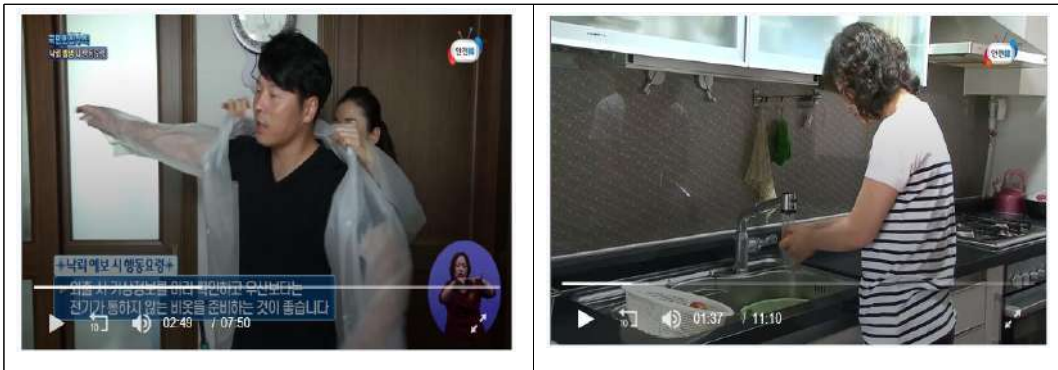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2021),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2) 성별고정관념 반영

- 재난대비요령을 제시한 매뉴얼에 재현된 일상생활의 모습에는 여성은 식사준비와 청소 등 가사를 담당하고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성별역할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낙뢰 예보 시 행동요령에서는 우산 대신 비옷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안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재연함
- 황사 예보 시 귀가 후에는 황사에 노출된 손과 발 등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씻고 과일과 야채는 세척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둔다는 설명에서 손을 씻는 것은 남성, 과일을 씻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표현함(<그림 3-11> 참조)

〈그림 3-4〉 낙뢰 및 황사 예보 시 행동요령(동영상)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 「국민행동요령」의 생활안전행동요령 중 식중독 편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치우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그려지고 남성은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역할로 표현되고 있음. 특히 용기를 입에 대고 마심으로써 용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남성이고, 오염된 용기를 세척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그림. 이는 남성은 식품관리에 무지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관리나 식품관리는 여성의 책임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성역할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그림 3-12> 참조)

〈그림 3-5〉 식중독 예방 행동요령(동영상)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9일 검색)

- <우리집안전점검표>에서는 전기안전을 위해 전기제품과 콘센트 주변을 청소하고 부엌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잠그는 것도 여성의 역할로 그려짐. 남성은 가사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는 반면, 여성은 청소와 음식준비, 더불어 부엌의 안전관리도

여성의 책무로 그리고 있음(<그림 3-13> 참조)

<그림 3-6> 전기안전 행동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30일 검색)

3) 가족중심주의 및 1인 가구에 대한 고려 부재

- 「국민행동요령」의 자연재난행동요령에는 태풍 예보 시 핵심행동요령과 상세행동을 제시하고 있음. 상세행동 중에는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에 대비 합니다.” 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동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 또한 호우 사전준비 상세행동요령에도 “1.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2.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 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합니다.” 라고 기술함
-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는 이웃을 포함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보다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주된 가구유형이 1인 가구로 변화한 만큼 1인 가구의 재난대응요령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¹⁴⁾

14)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된 가구유형이 2005년에는 4인 가구(27%)였으나, 2015년에는 1인 가구(27.2%)로 변화하였음. 또한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에는 29.8%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2010년 23.9%에서 2019년에는 30.2%로 증가하여, 4인 가구 비중 보다 높게 나타남.

4) 성별분리통계 산출 미비

-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훈련담당자의 훈련준비·실시·평가·개선 재난대비훈련 가이드북(훈련담당자용)」에 제시된 재난피해보고서 양식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인원수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성별구분 없이 전체 총 인원수만을 산출하는 경우, 성별에 따른 피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어 재난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좁힐 수 없음. 성별구분란을 추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고 성별 차이와 그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그림 3-7〉 재난피해보고서 양식

작성 양식				
구분	내용			
발생 일시				
발생 장소	- ○○시 ○○구 ○○동			
	- 피해 대상 시설			
	- 피해 지역			
발생 규모	피해 상황	직접		
		간접		
	피해 범위			
	인명 피해	직접	사망: 명 부상: 명 실종: 명	합계: 명
		간접	☒ 재해약자 확인(영/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재산 피해		소백만원	
	이재민 피해		명 (가구)	

34 훈련담당자의 훈련준비·실시·평가·개선 재난대비훈련 가이드북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30일 검색)

5) 재해약자의 범위 확대 필요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2021)에 따르면, 재해약자를 유아, 고령자, 장애인으로만 설정하고 있음. 임신·수유부와 재난약자(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를 돌보는 돌봄담당자 역시 재해약자를 동반한 이동과 대피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재해약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그림 3-15〉 참조)

〈그림 3-8〉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재해약자)

재해약자 파악 및 보조						
▶ 위기상황 발생 시 재해약자들이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재해약자 유형 및 인원을 파악하고 사전계획 수립 (재해약자 현황 파악)						
고령자	유아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 휠체어, 피난 보조기기 등 재해약자 우선대피에 필요한 장비 구비						

출처 : 행정안전부(2021),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나. 재난대응단계

1) 가족중심주의 및 1인 가구에 대한 고려 부재

-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할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태풍 예보 시) 가족과 함께 실내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가뭄발생 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¹⁵⁾ 재난예비단계의 매뉴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두고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음. 대응단계에서 역시 1인 가구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혼자서 대응하여야 하는 1인 가구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상대비행동요령 중 민방공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에 의하면, “우리 가족, 전쟁이 나면 어떡해요?” 라고 하여 가족 중심의 전쟁대비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음. 또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남성으로 그려져 있어, 여성 보다는 남성이 재난대응에 더 적극적이고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편견을 줄 수 있음. 1인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과 같은 비상시 1인 가구의 불안은 더 크

15) 가뭄발생시 행동요령으로 ‘1. 주방이나 세탁할 때에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합니다. 2. 화장실이나 욕실에서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합니다. 3. 실외에서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음.

므로 1인 가구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그림 3-16> 참조)

〈그림 3-9〉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민방공경보 시)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9일 검색)

2) 성별고정관념 및 여성성에 대한 편견 반영

- 낙뢰 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여주는 동영상에서 낙뢰 발생 시에는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설거지나 샤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재연됨. 가사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별역할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낙뢰 발생 시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는 요령에서는 여성이 두려워하며 남성에게 몸을 의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음. 여성은 남성 보다 약하고 감정적이며 불안감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그림 3-17> 참조)

〈그림 3-10〉 국민행동요령(낙뢰 발생 시)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 폭염 안전수칙에서는 폭염특보 시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서 여성은 과일을 깎고 남성은 아이와 노는 모습으로 표현됨. 가시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별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음(<그림 3-18> 참조)

〈그림 3-11〉 국민행동요령(폭염특보 시)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3)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비가시화

- 대부분의 매뉴얼에서 재난대응활동을 하는 사람은 남성으로 그려져 있음. 여성도 재

난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그림 3-19> 참조)

〈그림 3-12〉 국민행동요령(폭설 시)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 한파 발생 시 어촌 양식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남성만 그려지고 있음. 어촌에도 여성 어업인이 남성과 함께 일하고 재난대응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되어야 함(<그림 3-20> 참조)

〈그림 3-13〉 국민행동요령(어촌 한파 시)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4) 재해약자 동반 대응요령 제시 미비

- 지진발생 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재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영유아, 아동,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재난대응방법과 재해약자를 동반하여 대피하여야 하는 돌봄담당자를 위한 대응요령은 부재함. 재난 발생 시 약자를 돌보는 돌봄담당자의 어려움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크고 대응방법도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제시가 필요함

5) 여성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 표현

- 성별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음. 기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모습, 길에서 낙뢰에 맞은 남성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후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표현된 부분들이 있음 (<그림 3-21> 참조)

〈그림 3-14〉 여성의 재난대응활동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다. 재난복구단계

1)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주변화

- 재난예비 및 대응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지나간 후 복구단계에서도 복구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음
- 호우가 지나간 뒤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고 청소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영상매뉴얼에서 복구활동을 하는 것은 모두 남성으로 그려져 있음. 여성도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활동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그림 3-22> 참조)

〈그림 3-15〉 재난복구활동(호우)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2021년 6월 22일 검색)

2) 구호약자의 범위 확대 필요

-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후 심리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2017)을 발간함. 이 매뉴얼에 의하면, 구호약자를 다음과 같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장기요양급여대상 노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구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처 : 행정안전부(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2017), 4쪽.

- 그러나 구호약자에는 신체적 약자인 영유아와 아동, 장애인뿐만 아니라 언어소통과 문화이해, 정보입수에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 그리고 신체적 약자(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를 돌보는 사람(성별 무관), 혼자 재난을 겪어야 하는 1인 가구도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 회복과 사회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구호약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2017)에 의하면, 재난경험자의 신체적 반응으로 ‘두통, 심장박동 증가, 위장 장애,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어지러움, 피로감, 긴장, 면역력 저하’를 제시하였으나, 신체적 반응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성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생리주기 변동, 생리통 증가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3) 성별통계 산출 필요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2017)의 서식을 살펴보면, 재난심리회복상담 신청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을 기재하는 칸이 없음. 성별구분란을 추가하여 상담자의 성별 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그림 3-23> 참조)

〈그림 3-16〉 재난심리회복 상담신청서(서식)

∴
재난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앞면 >

재난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위 본인은 OO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무료 재난심리회복상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심리상담 만족도 조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상담신청일로부터 2년간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상담신청은 가능하나 만족도조사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접수기관 :
부서 :
담당 :
전화번호 :

출처 : 행정안전부(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 67쪽.

- 마찬가지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실적을 성별로 산출하여 신청인원 대비 수혜인원을 파악하여 정책수혜의 성별 형평성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그림 3-24> 참조)

년 분기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 실적

[illegible][illegible]

▶ 상담방법 및 참여요원

(단위 : 명)

사회재난					자연재난					기 타					상담 요원
계	방문	전화	내방	온라인	계	방문	전화	내방	온라인	계	방문	전화	내방	온라인	

▶ 심리지원 결과(횟수)

(단위 : 명)

구분	이재민 발생자	심리지원 상담인원	상담횟수				상담결과		
			1차	2차	3차	4차이상	정상 회복	병원 인계	지속 관리대상
계(누계)			0(%)	0(%)	0(%)	0(%)	0(%)	0(%)	0(%)
0 월									
0 월									

▶ 심리지원 결과(고위험군율)

(단위 : 명)

구분	재난사례 (유형,일시, 장소 등)	1차 상담시			2차 상담시			3차 상담시		
		상담 인원	경증	고위 험군	상담 인원	경증	고위 험군	상담 인원	경증	고위 험군
계 (누계)		0 (100%)	0 (%)	0 (%)	0 (100%)	0 (%)	0 (%)	0 (100%)	0 (%)	0 (%)

▶ 취약계층 심리지원 결과

재난사례 (유형,일시, 장소 등)	추진결과		
	일시, 장소, 방법	대상 및 인원	추진상황 및 결과
(예시)산불 2014.00.00. 00시00구00동일대	(예시) 2014.00.00. 경로당, 학교 등 집단방문, 개별방문	(예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00명	(예시)1회 상담실시후 고위험군 00명에 대하여 3회 실시후 정상회복 등

▶ 관련요원 및 지역주민 교육·홍보실적

구분	교육일시, 장소	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추후계획
계(누계)				
0 월				
0 월				

▶ 재난관리기금 활용

-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용 등 조례개정 여부
-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 업무협약 (기간 : 센터 개소일 ~ 현재)

연번	업무협약 체결 기관명	체결일시	비고
1			

▶ 교육·워크숍 참여실적

구 분	개최일시/장소	참석인원(명)	비고
○○ 주관 워크숍 등			
재난심리전문가 교육과정			
시·도 자체 워크숍			

▶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참석 재난심리회복지원 워크숍 개최

행사개요(일시/장소 등)	단체/부단체장 참석여부	행사사진

▶ (기 타)사도간 상호 협력지원

연번	재난발생지역(재난유형)	일 시	협력내용	비고
-	-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



출처: 행정안전부(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 (2017), 72~75쪽.

- 그 외 재난발생시 일일보고 서식의 피해현황란에도 성별구분란 없이 사망자수와 부상자 총수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성별 격차를 파악할 수 없음. 재난과 관련된 모든 통계 산출은 성별을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재난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해외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의 재난안전 정책¹⁶⁾

1) 기본인식

- 일본은 1995년 6,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한신대지진에 이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2011년 말 기준 2만 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33만 여명의 피난주민을 낳음.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대피시설에서의 성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재난복구과정에서 가정폭력 증가 등이 보고되면서 양성평등관점에서의 재난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일본에는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특히 남해 트리프 지진과 수도직하지진 등 향후 30년 이내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이 대두함에 따라 이전의 조사보고를 기반으로 양성평등관점에서의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음.¹⁷⁾
-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해당되는 일본의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제5차 계획에는 재난과 환경문제에 대한 양성평등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동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여성과 아동, 노약자가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재난에 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해 피해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양성평등의 시점에서 재난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평상시의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비상시에는 가사와 육아,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고, 배우자 폭력과 성폭력 등 젠더문제가 더 확대·강화됨을 지적하고 있음

2) 성과목표

- 동 계획은 재난관련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관련 위원회와 방재활동을 담당하는 소방

16) 일본의 재난안전정책에 관해서는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함. <https://www.gender.go.jp> 검색일 2021.7.14.

17) 남해 트리프 지진은 남해 트리프 연안 지역에서 진도 8~9의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0~80% 라는 관측임. 수도직하지진은 도쿄권 및 주변지역에서 그 내부를 진원지로 하는 대규모지진을 말하며, 이 중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0% 정도라고 보는 조사결과로 2020년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공표한 바 있음. <https://www.gender.go.jp>

대원의 여성비율 증가를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의 방재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20년 기준 16.1%에서 2025년에는 30%까지 높이고,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시정촌 방재위원회의 여성비율은 2020년 8.8%에서 2025년 30%로 높이며,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조직의 수를 2020년 기준 1,741개 조직 중 348개에서 2025년까지 0으로 줄인다는 성과목표를 수립함. 또한 소방관리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직원 중 직급과 제복을 가진 소방사무 종사자) 중 여성비율을 2019년 기준 2.9%에서 2026년 5%로 올리며, 소방단원(다른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에서 소방방재활동을 하는 소방단 단원) 중 여성비율을 2019년 기준 3.2%에서 2026년 10%를 목표로 상향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함

3) 정책의 기본방향

○ 일본의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중 재난안전분야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임.

① 국가 재난안전관련 행정에 양성평등 관점 강화

- 평상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위기관리부서와 양성평등부서(남녀공동참여국)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재난안전정책의 양성평등관점 강화를 위해 중요함. 따라서 중앙정부가 솔선하여 국가의 재난대응에 양성평등관점 도입을 추진하여야 함
-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첫째, 재난대응대책회의 등에 양성평등부서의 구성원을 추가하여 회의에서 양성평등관점의 재난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여 대응을 촉진하도록 함. 둘째, 재난대응 행동요령과 매뉴얼 등에 양성평등관점에 기반한 재난 시 고려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함. 셋째,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관점의 재난대응을 이해하도록 촉진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촉진

- 재난대응 시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관점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적임
- 「방재기본계획」, 「대피소운영가이드라인」, 「재난대응력을 강화하는 여성의 관점 :

양성평등관점의 재난대응 및 복구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기관리부서와 양성평등부서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의사결정과 재난대응현장에서의 여성 참여, 성별통계 작성 및 활용, 재난 피해와 요구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대응, 대피생활에서의 성별 안전성 확보, 평상시의 준비, 초동단계, 대피생활, 복구의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관점의 대응을 촉진하도록 함

③ 국제적인 방재협력에서의 양성평등한 참여

- 제58회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자연재해의 젠더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결의안(2014)과 제3회 유엔방재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센다이방재기본계획 2015-2030」(2015) 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관점에 기반한 국제적인 방재협력을 실시하고, 정부의 지식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함
-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제58회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자연재해의 젠더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결의안(2014)과 제3회 유엔방재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센다이방재기본계획 2015-2030」(2015)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내 실행을 추진하고, 국제회의에서 양성평등관점의 재난안전정책추진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도록 함

4) 양성평등관점의 재난대응 및 복구 가이드라인

- 일본의 양성평등 담당부서인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은 동일본대지진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자연재해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가 확보되지 않고, 성별 요구도 차이가 고려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반영하여, 2020년 5월 양성평등관점에 기반한 재난대응 및 복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이하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7가지의 기본방침과 재난단계별로 적용할 조치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함

나. 미국의 재난안전 정책

- 미국은 재난 발생 시 1차적인 대응은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의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연방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임(장미혜 외, 2015 : 110)

-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재난과 관련된 기획 및 훈련, 피해대응 및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주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음
 -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재난대비와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지침서를 발간하여 큰 틀에서 재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여성 및 재난취약자와 관련된 정책으로 재난대응이나 복구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대량 재난피해자 보호 및 보호소 제공(Care/Sheltering), 감정 및 심리치료 지원(Emotional/Psychological), 위생 및 건강지원(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어린이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음
- 국가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국가방재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기능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재난대비 지원 대책도 포함되어 있음
- 재난약자 취약집단(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재난당시는 물론 발생 이후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미국 전역의 재난취약 계층의 위기계획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피해자의 지원정책은 음식, 안내건과 같은 서비스 동물, 통신 수단, 세면시설과 화장실, 명상실, 정신건강서비스, 의료 및 치과서비스, 의약품, 이동수단 등을 포함함
- 그 내용은 일반 이재민도 포함하지만 주로 어린이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플로리다 주정부에서는 재해 시 취약계층을 분류하고 그 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¹⁸⁾
- 재난 발생 시 대피준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층으로는 노인,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들, 이동이 자유롭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이 포함되

18) (<https://www.floridadisaster.org>)

어 있음

- 플로리다 주에서는 여성을 재난취약자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신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에게 대피와 보호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음
- 또한 재난용품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안내서에 영유아와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동반할 경우 특별히 필요한 물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 시사점

- 해외사례를 볼 때 일본의 재난안전대책은 성인지 관점에서 재난 시 성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안전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가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의견과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여성의 가정 내 책임이 커지고 남성은 경제적 부양의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최근에는 일하는 여성, 돌봄노동을 하는 남성도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재난대응체제를 검토하여 가족돌봄 부담의 경감과 남녀의 심신 건강 유지,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난발생 시에는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돌봄노동자(대부분이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중요해짐
 - 과거 재난 경험에 의하면 재난발생 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간 폭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가하는 폭력도 나타남. 그러나 재난 시에는 피해자가 상담을 하거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워 피해가 잠재화할 우려가 있음
 - 여성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재난 시에는 사업소 폐쇄나 휴업, 해고 등으로 수입 감소 혹은 수입이 없어질 우려가 큼. 또한 복구단계에는 남성고용이 우선시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남
- 또한 성별분리통계 산출과 활용, 정책담당자의 양성평등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난대응담당 직원의 양성평등관점 이해 촉구와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재난대응팀에 양성평등담당 직원 배치, 재난대응부서와 양성평등담당부서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대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재난과 관련된 기획 및 훈련, 피해대응 및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주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고 큰 틀에서 재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원하는 지침에 대량 재난피해자 보호 및 보호소 제공(Care/Sheltering), 감정 및 심리치료 지원(Emotional/Psychological), 위생 및 건강 지원(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어린이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지매뉴얼을 안내하고 있음
 - 여성을 재난취약집단에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난약자 취약집단(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위기계획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안에 포함하고 있음
 - 플로리다 주정부의 경우 임산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에게 대피와 보호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고 대피준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층으로는 노인,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들, 이동이 자유롭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이 포함하고 있어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음

제 4 장

제주지역 안전 인식 및 재난대응 실태와 정책수요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본 조사는 제주지역의 도민의 안전인식 및 교육·훈련 경험, 재난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제주지역의 안전 환경 조성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이고 429명이 조사에 참여함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대면 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은 7월 26일~8월 25일까지 약 1달간 조사함
- 표집방법은 제주지역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표집을 하되, 산북(제주시)과 산남(서귀포시)지역의 인구편차를 고려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을 별도로 표집 하였음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4.73\%$ 임
- 자료분석 및 처리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나. 조사내용

〈표 4-1〉 설문조사 내용

조사내용	세부내용
○ 안전에 대한 인식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정도
	· 관심 있는 안전 분야
	·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위험 경험
	· 재난 피해 원인
	· (유형별) 재난재해 피해 가능성
○ 안전 교육·훈련 및 활동 경험	·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수강 경험 및 종류
	· 안전교육 미참가 이유
	· 유형별 안전장비 사용방법 인지여부 (소화기, 완강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조사내용	세부내용
	· 안전장비 사용방법 교육 장소
	· 유형별 재난대응 능력(대피방법, 생존수영, 응급처치, 위기대처능력, 비상구·소화전·화재경보기 등 위치 인지, 비상물품 준비)
	· 재난대처능력의 성별차이여부 및 원인
	· 안전 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 유형
○ 재난대응 및 정책 수요	· 재난정보 및 지식 습득기회 참여여부
	· 필요한 재난교육 및 훈련
	· 적절한 재난 교육 장소
	· 재난교육에 필요한 지원
	·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위치 인지여부
	· 대피소 홍보 방법
	· 대피소 설치 및 운영 방법
	· 안전체험관 인지/이용/만족도
	· 안전체험관 운영방안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 안전 분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다.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는 모두 429명으로 여성(51.0%), 남성(49.0%)이 비슷한 규모로 표집 되었음
- 연령별로는 50대(23.8%)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30대(58.1%)에서 여성의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게 표집 되었음
- 소득별로는 100만원대(25.6%)와 200만원대(30.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100만원 미만(여성 67.1%)과 100만원대(여성 68.2%)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200만원대(남성 54.2%), 300~499만원(남성 70.6%), 500만원 초과집단(남성 81.0%)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최종학력별로는 전문대/대졸(50.6%)과 고졸(41.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성별로는 저학력(중졸 여성 74.1%, 고졸 여성 53.4%)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전문대/대졸 남성 53.0%, 대학원 이상 66.7%)일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분포는 제주시 동지역이 38.0%, 제주시 읍면지역 13.1%, 서귀포 동지역 28.0%, 서귀포 읍면지역 21.0%로 재난대응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인구수 대비 서귀포 지역 조사대상자를 과표집 하였음
- 직업별로는 전체적으로 자영업(23.1%)과 판매/서비스직(17.9%)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은 판매/서비스직(55.8%)과 전업주부(100.0%), 남성은 1차산업종사자(71.9%)와 무직(66.7%),사무직(5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출신지역별로는 제주지역(85.5%), 제주 외 국내(9.6%), 국외 결혼이주자(4.9%)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국내이주자는 남성(61.0%)의 비율이 높고 결혼이주자는 여성(95.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2〉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219 (51.0)	210 (49.0)
연령	20대	70 (16.3)	33 (47.1)	37 (52.9)
	30대	74 (17.2)	43 (58.1)	31 (41.9)
	40대	89 (20.7)	44 (49.4)	45 (50.6)
	50대	102 (23.8)	49 (48.0)	53 (52.0)
	60대 이상	94 (21.9)	50 (53.2)	44 (46.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2 (19.1)	55 (67.1)	27 (32.9)
	100만원 ~ 199만원	110 (25.6)	75 (68.2)	35 (31.8)
	200만원 ~ 299만원	131 (30.5)	60 (45.8)	71 (54.2)
	300만원 ~ 499만원	85 (19.8)	25 (29.4)	60 (70.6)
	500만원 초과	21 (4.9)	4 (19.0)	17 (81.0)
최종학력	중졸이하	27 (6.3)	20 (74.1)	7 (25.9)
	고졸	176 (41.0)	94 (53.4)	82 (46.6)
	전문대/대졸	217 (50.6)	102 (47.0)	115 (53.0)
	대학원수료 이상	9 (2.1)	3 (33.3)	6 (66.7)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38.0)	89 (54.6)	74 (45.4)
	제주시 읍면지역	56 (13.1)	28 (50.0)	28 (50.0)
	서귀포시 동지역	120 (28.0)	62 (51.7)	58 (48.3)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21.0)	40 (44.4)	50 (55.6)
결혼유무	미혼	115 (26.8)	51 (44.3)	64 (55.7)
	기혼사실혼 포함	298 (69.5)	158 (53.0)	140 (47.0)

구분			여성	남성
재난취약자 동거여부	이혼 및 별거	16 (3.7)	10 (62.5)	6 (37.5)
	영유아(0-6세)	182 (42.4)	92 (50.5)	90 (49.5)
	미성년 자녀(7~20세)	247 (57.6)	127 (51.4)	120 (48.6)
직업	1차산업 종사자	32 (7.5)	9 (28.1)	23 (71.9)
	사무직	56 (13.1)	23 (41.1)	33 (58.9)
	생산직/노무직	27 (6.3)	13 (48.1)	14 (51.9)
	전문직	50 (11.7)	25 (50.0)	25 (50.0)
	자영업	99 (23.1)	48 (48.5)	51 (51.5)
	판매/서비스직	77 (17.9)	43 (55.8)	34 (44.2)
	전업주부	30 (7.0)	30 (100.0)	0 (0.0)
	학생	27 (6.3)	16 (59.3)	11 (40.7)
	은퇴/무직	18 (4.2)	6 (33.3)	12 (66.7)
	기타	13 (3.0)	6 (46.2)	7 (53.8)
출신지역	제주	367 (85.5)	183 (49.9)	184 (50.1)
	제주외 국내	41 (9.6)	16 (39.0)	25 (61.0)
	결혼이주자	21 (4.9)	20 (95.2)	1 (4.8)

2. 조사 결과

가. 안전에 대한 인식

1) 관심 있는 안전 분야

- 가장 관심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염병·질병·환경오염(37.1%), 자연재해(수해, 태풍, 가뭄, 폭염, 황사 등, 24.7%)와 교통사고(24.0%)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최근 코로나의 영향과 자연재해에 민감한 지역적 특성의 영향으로 풀이됨

〈표 4-3〉 관심 있는 안전 분야

(단위 : 명, %)

구분		자연재해(수해, 태풍, 폭염, 가뭄, 황사 등)	교통사고(차, 선박, 항공 등)	사회적 재난(화재, 가스폭발, 건물시설물 붕괴 등)	전염병, 질병, 환경오염 등	기타	χ ²
합계		429	106 (24.7)	103 (24.0)	60 (14.0)	159 (37.1)	1 (0.2)
성별	여성	219	45 (20.5)	48 (21.9)	34 (15.5)	92 (42.0)	0 (0.0)
	남성	210	61 (29.0)	55 (26.2)	26 (12.4)	67 (31.9)	1 (0.5)
연령	20대	70	14 (20.0)	16 (22.9)	9 (12.9)	31 (44.3)	0 (0.0)
	30대	74	12 (16.2)	30 (40.5)	4 (5.4)	28 (37.8)	0 (0.0)
	40대	89	19 (21.3)	27 (30.3)	16 (18.0)	26 (29.2)	1 (1.1)
	50대	102	32 (31.4)	19 (18.6)	20 (19.6)	31 (30.4)	0 (0.0)
	60대 이상	94	29 (30.9)	11 (11.7)	11 (11.7)	43 (45.7)	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31 (19.0)	39 (23.9)	25 (15.3)	68 (41.7)	0 (0.0)
	제주시 읍면지역	56	12 (21.4)	20 (35.7)	8 (14.3)	16 (28.6)	0 (0.0)
	서귀포시 동지역	120	21 (17.5)	29 (24.2)	20 (16.7)	49 (40.8)	1 (0.8)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42 (46.7)	15 (16.7)	7 (7.8)	26 (28.9)	0 (0.0)
직업	1차 산업 종사자	32	18 (56.3)	6 (18.8)	3 (9.4)	4 (12.5)	1 (3.1)
	사무직	56	12 (21.4)	17 (30.4)	9 (16.1)	18 (32.1)	0 (0.0)
	생산직/노무직	27	7 (25.9)	4 (14.8)	2 (7.4)	14 (51.9)	0 (0.0)
	전문직	50	15 (30.0)	17 (34.0)	8 (16.0)	10 (20.0)	0 (0.0)
	자영업	99	29 (29.3)	13 (13.1)	13 (13.1)	44 (44.4)	0 (0.0)
	판매/서비스직	77	13 (16.9)	24 (31.2)	12 (15.6)	28 (36.4)	0 (0.0)
	전업주부	30	2 (6.7)	8 (26.7)	4 (13.3)	16 (53.3)	0 (0.0)
	학생	27	5 (18.5)	5 (18.5)	4 (14.8)	13 (48.1)	0 (0.0)
	은퇴/무직	18	2 (11.1)	4 (22.2)	4 (22.2)	8 (44.4)	0 (0.0)
	기타	13	3 (23.1)	5 (38.5)	1 (7.7)	4 (30.8)	0 (0.0)

* p<0.05, ** p<0.01, *** p<0.001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은 전염병·질병·환경오염(여성 42.0%, 남성 31.9%), 남성은 교통사고(여성 21.9%, 남성 26.2%)와 자연재해(여성 20.5%, 남성 29.0%)에 약간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은 고령층(50대 31.4%, 60대 이상 30.9%)에서 높게 나타났고, 교통사고는 30대(40.5%)와 40대(30.3%)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질병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은 20대(44.3%)와 60대 이상(45.7%)에서 높은 관심을 보임
- 지역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제주시(41.7%)와 서귀포의 동지역(40.8%)은 전염병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제주시 읍면지역은 교통사고(35.7%), 서귀포 읍면지역은 자연재해(46.7%)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자연재해는 1차 산업 종사자(56.3%) 집단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교통사고는 사무직(30.4%)과 전문직(34.0%), 판매/서비스직(31.2%)에서, 전염병과 환경오염 항목에서는 생산/노무직(51.9%), 전업주부(53.3%) 자영업(44.4%), 학생(48.1%) 집단에서 높은 관심도는 나타냄

2) 재난 안전 인식

□ 자연재난 안전 인식

-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2.93점으로 보통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평균 2.98)이 여성(평균 2.89)에 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안전인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낮은 연령층인 20대(평균 3.13), 30대(평균 3.04), 40대(평균 3.13)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50대(2.79)와 60대 이상(2.65) 고 연령층에서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신지역별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결혼이주자(평균 3.48)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제주출신(평균 2.90)이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제주에서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도 풀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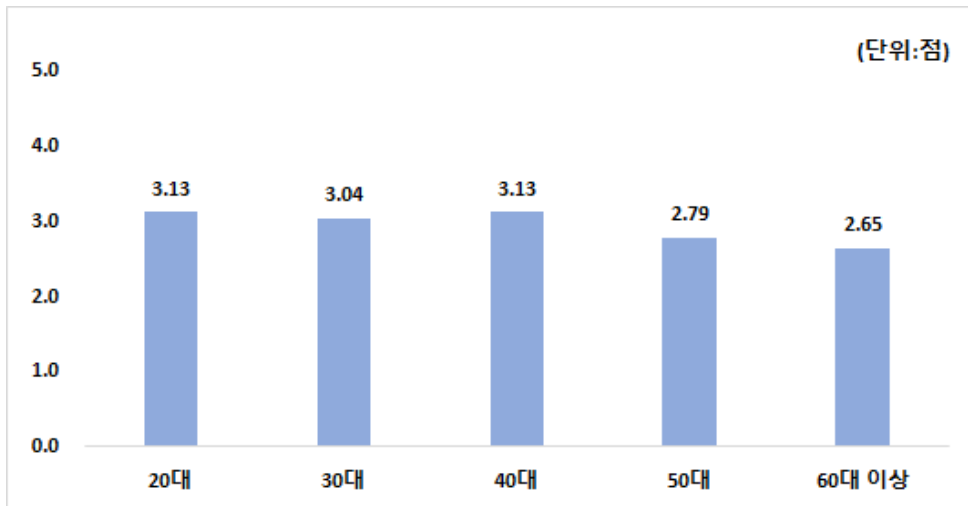
〈표 4-4〉 일상생활 안전여부_자연재난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안전 하지 않음	약간 안전 하지 않음	보통	안전한 편임	매우 안전함	평균 (점)	t/F
합계		429	39 (9.1)	89 (20.7)	176 (41.0)	113 (26.3)	12 (2.8)	2.93
성별	여성	219	16 (7.3)	55 (25.1)	91 (41.6)	52 (23.7)	5 (2.3)	2.89
	남성	210	23 (11.0)	34 (16.2)	85 (40.5)	61 (29.0)	7 (3.3)	2.98
연령	20대	70	4 (5.7)	14 (20.0)	23 (32.9)	27 (38.6)	2 (2.9)	3.13
	30대	74	6 (8.1)	13 (17.6)	30 (40.5)	22 (29.7)	3 (4.1)	3.04
	40대	89	3 (3.4)	14 (15.7)	43 (48.3)	26 (29.2)	3 (3.4)	3.13
	50대	102	12 (11.8)	26 (25.5)	36 (35.3)	27 (26.5)	1 (1.0)	2.79
	60대 이상	94	14 (14.9)	22 (23.4)	44 (46.8)	11 (11.7)	3 (3.2)	2.65
출신 지역	제주	367	35 (9.5)	82 (22.3)	145 (39.5)	95 (25.9)	10 (2.7)	2.90
	제주 외 국내	41	4 (9.8)	6 (14.6)	21 (51.2)	9 (22.0)	1 (2.4)	2.93
	결혼이주자	21	0 (0.0)	1 (4.8)	10 (47.6)	9 (42.9)	1 (4.8)	3.48

* p<0.05, ** p<0.01, *** p<0.001

〈그림 4-1〉 일상생활 안전여부_자연재난



□ 사회재난 안전 인식

○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정도(평균 2.89점)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성(평균 2.93)이 여성(평균 2.84)보다 약간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자연재해 인식과 마찬가지로 20대(평균 3.14), 30대(평균 3.01), 40대(평균 3.03)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50대(평균 2.75)와 60대 이상(평균 2.60) 고 연령층에서는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출신지역별로는 제주출신(평균 2.85)이 가장 낮은 안전인식 정도를 나타냈고 결혼이주자(평균 3.43) 집단이 가장 높은 안전인식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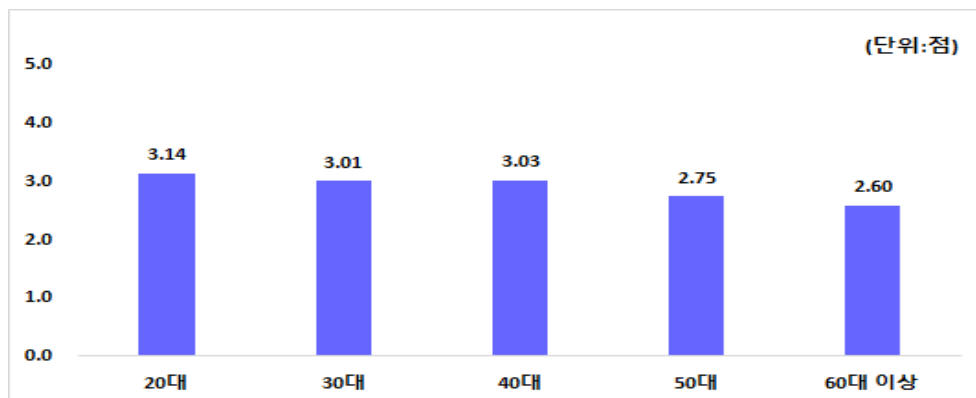
〈표 4-5〉 일상생활 안전여부_사회재난

(단위 : 명, %)

구분		전혀 하지	안전 않음	약간 하지	안전 않음	보통	안전한 편임	매우 안전함	평균 (점)	t/F
합계		429	35 (8.2)	105 (24.5)	173 (40.3)	106 (24.7)	10 (2.3)	2.89		
성별	여성	219	15 (6.8)	58 (26.5)	96 (43.8)	46 (21.0)	4 (1.8)	2.84	- .914	
	남성	210	20 (9.5)	47 (22.4)	77 (36.7)	60 (28.6)	6 (2.9)	2.93		
연령	20대	70	4 (5.7)	12 (17.1)	25 (35.7)	28 (40.0)	1 (1.4)	3.14	5.023**	
	30대	74	6 (8.1)	12 (16.2)	34 (45.9)	19 (25.7)	3 (4.1)	3.01		
	40대	89	3 (3.4)	21 (23.6)	38 (42.7)	24 (27.0)	3 (3.4)	3.03		
	50대	102	9 (8.8)	33 (32.4)	35 (34.3)	24 (23.5)	1 (1.0)	2.75		
	60대 이상	94	13 (13.8)	27 (28.7)	41 (43.6)	11 (11.7)	2 (2.1)	2.60		
출신 지역	제주	367	32 (8.7)	94 (25.6)	147 (40.1)	86 (23.4)	8 (2.2)	2.85	3.451*	
	제주 외 국내	41	3 (7.3)	10 (24.4)	15 (36.6)	12 (29.3)	1 (2.4)	2.95		
	결혼이주자	21	0 (0.0)	1 (4.8)	11 (52.4)	8 (38.1)	1 (4.8)	3.43		

* p<0.05, ** p<0.01, *** p<0.001

〈그림 4-2〉 일상생활 안전여부_사회재난



3) 재난으로부터 위험 경험

□ 자연재난 위험 경험

○ 최근 1년 이내 자연재해 위험을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없다’는 응답이 80.4%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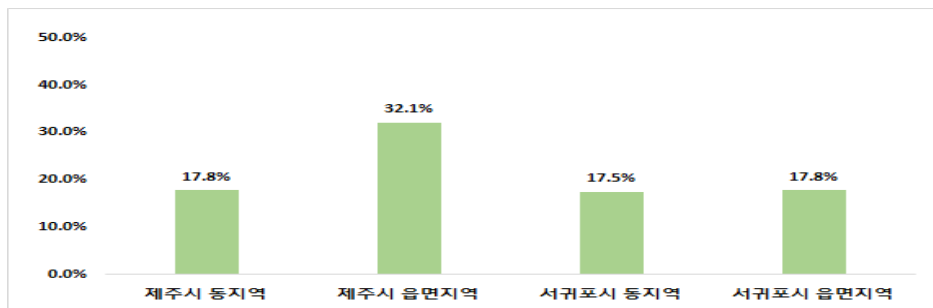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20.5%)이 남성(18.6%)에 비해 약간 자연재난의 위험을 느낀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 차이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대(15.7%)에서 ‘자연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50대(2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지역(32.1%)이 가장 ‘자연재난 위험 경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최근 1년 이내 자연재난 위험 경험

구분			있다		없다		χ ²
합계			84	(19.6)	345	(80.4)	
성별	여성	219	45	(20.5)	174	(79.5)	.266
	남성	210	39	(18.6)	171	(81.4)	
연령	20대	70	11	(15.7)	59	(84.3)	1.587
	30대	74	16	(21.6)	58	(78.4)	
	40대	89	16	(18.0)	73	(82.0)	
	50대	102	23	(22.5)	79	(77.5)	
	60대 이상	94	18	(19.1)	76	(80.9)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29	(17.8)	134	(82.2)	6.459
	제주시 읍면지역	56	18	(32.1)	38	(67.9)	
	서귀포시 동지역	120	21	(17.5)	99	(82.5)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16	(17.8)	74	(82.2)	

(단위 : 명, %)

〈그림 4-3〉 최근 1년 이내 자연재난 위험 경험



□ 사회재난 위험 경험

○ 최근 1년 이내 사회적 재난의 위험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21.2%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20.1%)보다 남성(22.4%)이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미미한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고 50대(23.5%)가 가장 사회재난 위험 경험이 높고 60대 이상(18.1%)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지역별로는 제주도 읍면지역(32.1%)이 타 지역보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직업별로는 사회적 재난 위험 경험이 높은 집단은 사무직(32.1%)과 판매/서비스직(26.0%), 낮은 집단은 전업주부(13.3%), 기타(15.4%), 자영업(16.2%) 순으로 나타나 공적 영역에 활동이 적은 직업군이 사회적 재난의 위험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4-7〉 최근 1년 이내 사회재난 위험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χ^2
합계			429	91 (21.2)	338 (78.8)		
성별	여성	219	44 (20.1)	175 (79.9)		.336	
	남성	210	47 (22.4)	163 (77.6)			
연령	20대	70	14 (20.0)	56 (80.0)		1.078	
	30대	74	17 (23.0)	57 (77.0)			
	40대	89	19 (21.3)	70 (78.7)			
	50대	102	24 (23.5)	78 (76.5)			
	60대 이상	94	17 (18.1)	77 (81.9)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32 (19.6)	131 (80.4)		4.643	
	제주시 읍면지역	56	18 (32.1)	38 (67.9)			
	서귀포시 동지역	120	24 (20.0)	96 (80.0)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17 (18.9)	73 (81.1)			
재난취약자 동거유무	있음	182	43 (23.6)	139 (76.4)		1.102	
	없음	247	48 (19.4)	199 (80.6)			
직업	1차 산업 종사자	32	7 (21.9)	25 (78.1)		8.954	
	사무직	56	18 (32.1)	38 (67.9)			
	생산직/노무직	27	5 (18.5)	22 (81.5)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χ^2
	전문직	50	9	(18.0)	41	(82.0)	
	자영업	99	16	(16.2)	83	(83.8)	
	판매/서비스직	77	20	(26.0)	57	(74.0)	
	전업주부	30	4	(13.3)	26	(86.7)	
	학생	27	7	(25.9)	20	(74.1)	
	은퇴/무직	18	3	(16.7)	15	(83.3)	
	기타	13	2	(15.4)	11	(84.6)	

4) 재난피해 원인

○ 재난피해의 원인에 대한 응답(1순위+2순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28.7%), ‘안전 및 예방 교육의 부족’(24.5%), ‘개인의 대처 능력 부족’(1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8〉 재난피해 원인(1+2순위)

(단위 : 명, %)

구분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	피난대피 인프라 (대피소, 안내시설 등) 부족	담당자 (혹은 기관)의 관리 부실	안전 및 예방교육의 부족	개인의 대처 능력 부족	언어 및 용어이해 부족	지역 정보 부족	기타
성별	합계	858 246 (28.7)	100 (11.7)	104 (12.1)	210 (24.5)	133 (15.5)	14 (1.6)	49 (5.7)	2 (0.2)
	여성	438 112 (25.6)	54 (12.3)	53 (12.1)	113 (25.8)	68 (15.5)	10 (2.3)	26 (5.9)	2 (0.5)
	남성	420 134 (31.9)	46 (11.0)	51 (12.1)	97 (23.1)	65 (15.5)	4 (1.0)	23 (5.5)	0 (0.0)
최종 학력	중졸이하	54 15 (27.8)	1 (1.9)	8 (14.8)	15 (27.8)	14 (25.9)	0 (0.0)	1 (1.9)	0 (0.0)
	고졸	352 93 (26.4)	46 (13.1)	35 (9.9)	88 (25.0)	55 (15.6)	11 (3.1)	23 (6.5)	1 (0.3)
	전문대/대졸	434 132 (30.4)	51 (11.8)	58 (13.4)	103 (23.7)	62 (14.3)	3 (0.7)	24 (5.5)	1 (0.2)
	대학원 수료 이상	18 6 (33.3)	2 (11.1)	3 (16.7)	4 (22.2)	2 (11.1)	0 (0.0)	1 (5.6)	0 (0.0)
거주 지역	제주시	326 92 (28.2)	28 (8.6)	42 (12.9)	80 (24.5)	51 (15.6)	8 (2.5)	24 (7.4)	1 (0.3)
	동지역 읍면지역	112 30 (26.8)	13 (11.6)	13 (11.6)	29 (25.9)	19 (17.0)	3 (2.7)	4 (3.6)	1 (0.9)
	서귀포시 동지역	240 64 (26.7)	37 (15.4)	28 (11.7)	61 (25.4)	35 (14.6)	3 (1.3)	12 (5.0)	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80 60 (33.3)	22 (12.2)	21 (11.7)	40 (22.2)	28 (15.6)	0 (0.0)	9 (5.0)	0 (0.0)

- 성별로는 여성은 '안전 및 예방교육의 부족(25.8%)'이 남성(23.1%)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31.9%)'가 여성(25.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력별로는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 항목에서는 고학력 집단(전문대/대졸 30.4%, 대학원 이상 33.3%)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안전 및 예방교육의 부족' 항목에서는 저학력 집단(중졸이하 27.8%, 고졸 25.0%)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귀포 읍면지역(33.3%)이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 항목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5)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

□ 태풍, 집중호우, 대설

- 태풍, 집중호우, 대설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34점으로 나타나 약간 높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집단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동지역(제주시 동지역 평균 3.31, 서귀포시 동지역 평균 3.09)보다 읍면지역(제주시 읍면지역 평균 3.54, 서귀포시 읍면지역 평균 3.63)이 태풍, 호우, 대설 등에 관한 재난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 직업별로는 1차 산업 종사자(평균 4.00)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전업주부(평균 3.13)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표 4-9〉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태풍, 집중호우, 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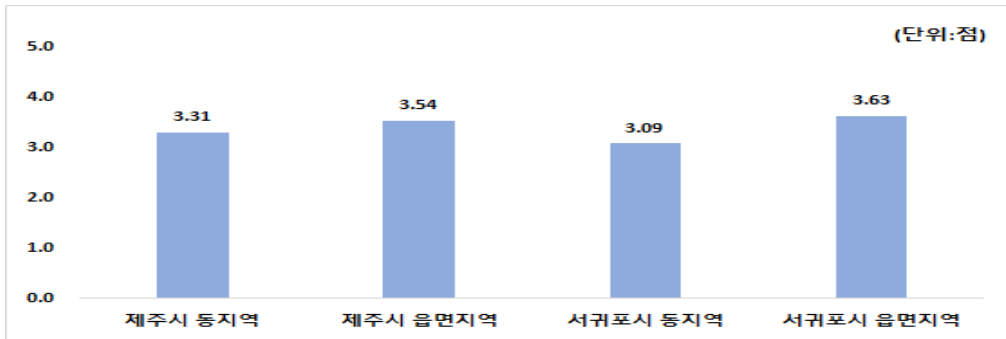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수)	t/F
합계		429	8 (1.9)	62 (14.5)	170 (39.6)	152 (35.4)	37 (8.6)	3.34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1 (0.6)	30 (18.4)	59 (36.2)	64 (39.3)	9 (5.5)	3.31					7.599** *
	제주시 읍면지역	56	0 (0.0)	5 (8.9)	22 (39.3)	23 (41.1)	6 (10.7)	3.54					
	서귀포시 동지역	120	6 (5.0)	22 (18.3)	54 (45.0)	31 (25.8)	7 (5.8)	3.09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1 (1.1)	5 (5.6)	35 (38.9)	34 (37.8)	15 (16.7)	3.63					
직업	1차 산업 종사자	32	0 (0.0)	1 (3.1)	8 (25.0)	13 (40.6)	10 (31.3)	4.00					2.638**
	사무직	56	0 (0.0)	9 (16.1)	24 (42.9)	16 (28.6)	7 (12.5)	3.38					
	생산직/노무직	27	1 (3.7)	2 (7.4)	13 (48.1)	9 (33.3)	2 (7.4)	3.33					
	전문직	50	0 (0.0)	9 (18.0)	19 (38.0)	16 (32.0)	6 (12.0)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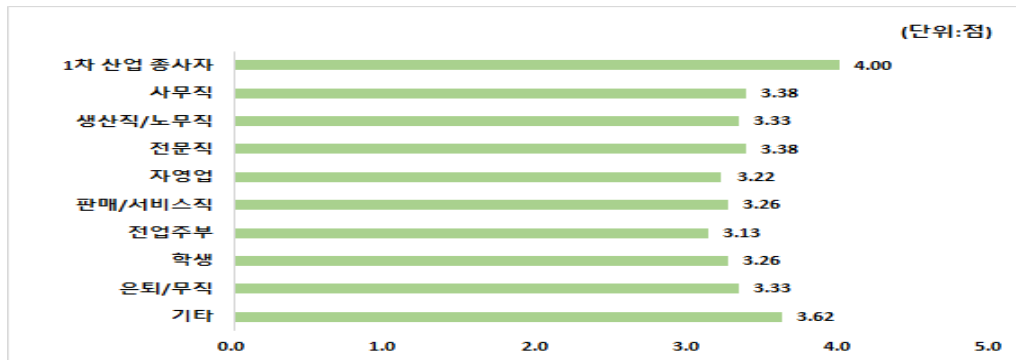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수)	t/F
	자영업	99	3 (3.0)	17 (17.2)	40 (40.4)	33 (33.3)	6 (6.1)	3.22					
	판매/서비스직	77	2 (2.6)	15 (19.5)	24 (31.2)	33 (42.9)	3 (3.9)	3.26					
	전업주부	30	1 (3.3)	5 (16.7)	14 (46.7)	9 (30.0)	1 (3.3)	3.13					
	학생	27	0 (0.0)	2 (7.4)	16 (59.3)	9 (33.3)	0 (0.0)	3.26					
	은퇴/무직	18	1 (5.6)	2 (11.1)	7 (38.9)	6 (33.3)	2 (11.1)	3.33					
	기타	13	0 (0.0)	0 (0.0)	5 (38.5)	8 (61.5)	0 (0.0)	3.62					

* p<0.05, ** p<0.01, *** p<0.001

〈그림 4-4〉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태풍, 집중호우, 대설



〈그림 4-5〉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태풍, 집중호우, 대설



□ 가뭄, 폭염, 황사

○ 가뭄, 폭염, 황사에 대한 직접적 피해 가능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15점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집단적인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음
- 지역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서귀포 읍면지역(평균 3.49)이 가장 재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 직업별 집단 간 차이도 의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차 산업 종사자(평균 3.94)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자영업 집단(평균 2.93)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출신지역별로는 결혼이주자 집단이 평균 3.57로 가뭄, 폭염, 황사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국내이주민이 평균 2.93으로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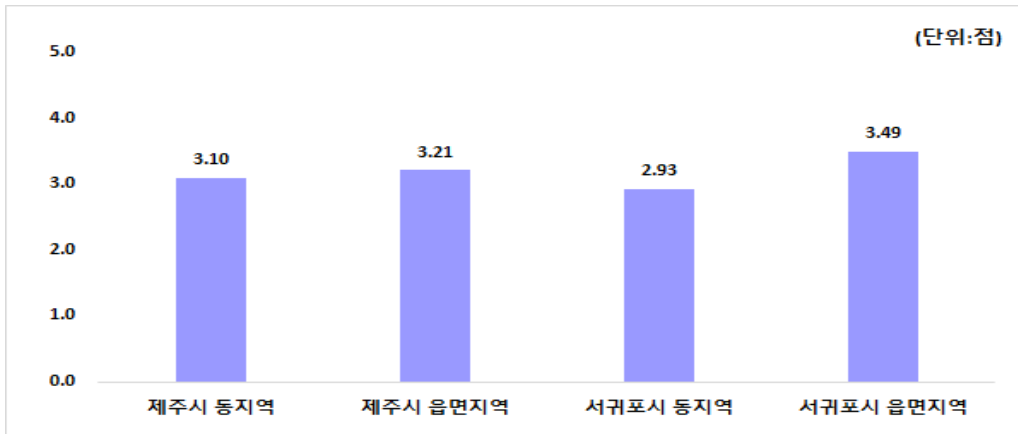
〈표 4-10〉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가뭄, 폭염, 황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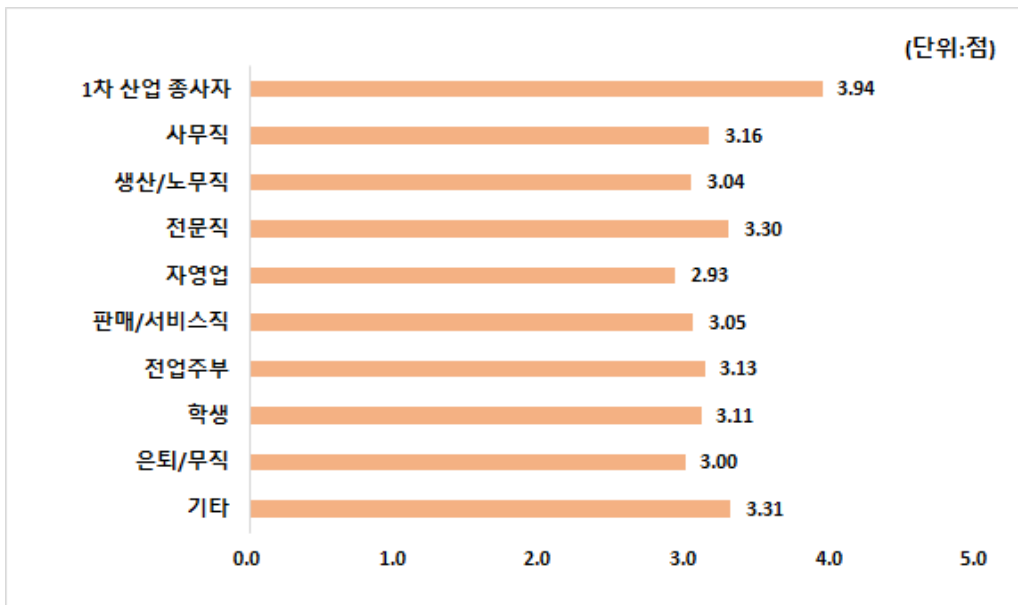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	t/F
합계		429	17 (4.0)	92 (21.4)	165 (38.5)	121 (28.2)	34 (7.9)	3.15
성별	여성	219	8 (3.7)	45 (20.5)	83 (37.9)	65 (29.7)	18 (8.2)	3.18
	남성	210	9 (4.3)	47 (22.4)	82 (39.0)	56 (26.7)	16 (7.6)	3.11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5 (3.1)	42 (25.8)	58 (35.6)	48 (29.4)	10 (6.1)	3.10
	제주시 읍면지역	56	3 (5.4)	8 (14.3)	23 (41.1)	18 (32.1)	4 (7.1)	3.21
	서귀포시 동지역	120	6 (5.0)	29 (24.2)	59 (49.2)	20 (16.7)	6 (5.0)	2.93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3 (3.3)	13 (14.4)	25 (27.8)	35 (38.9)	14 (15.6)	3.49
직업	1차 산업 종사자	32	0 (0.0)	1 (3.1)	8 (25.0)	15 (46.9)	8 (25.0)	3.94
	사무직	56	1 (1.8)	17 (30.4)	17 (30.4)	14 (25.0)	7 (12.5)	3.16
	생산/노무직	27	2 (7.4)	5 (18.5)	11 (40.7)	8 (29.6)	1 (3.7)	3.04
	전문직	50	0 (0.0)	11 (22.0)	17 (34.0)	18 (36.0)	4 (8.0)	3.30
	자영업	99	8 (8.1)	22 (22.2)	46 (46.5)	15 (15.2)	8 (8.1)	2.93
	판매/서비스직	77	4 (5.2)	20 (26.0)	25 (32.5)	24 (31.2)	4 (5.2)	3.05
	전업주부	30	1 (3.3)	6 (20.0)	12 (40.0)	10 (33.3)	1 (3.3)	3.13
	학생	27	0 (0.0)	4 (14.8)	17 (63.0)	5 (18.5)	1 (3.7)	3.11
	은퇴/무직	18	1 (5.6)	5 (27.8)	5 (27.8)	7 (38.9)	0 (0.0)	3.00
	기타	13	0 (0.0)	1 (7.7)	7 (53.8)	5 (38.5)	0 (0.0)	3.31
출신 지역	제주	367	16 (4.4)	81 (22.1)	134 (36.5)	105 (28.6)	31 (8.4)	3.15
	제주 외 국내	41	1 (2.4)	10 (24.4)	22 (53.7)	7 (17.1)	1 (2.4)	2.93
	결혼이주자	21	0 (0.0)	1 (4.8)	9 (42.9)	9 (42.9)	2 (9.5)	3.57

* p<0.05, ** p<0.01, *** p<0.001

〈그림 4-6〉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가뭄, 폭염, 황사



〈그림 4-7〉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가뭄, 폭염, 황사



□ 풍랑, 해일

- 풍랑이나 해일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다른 유형의 재해 피해 가능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2.63점으로 보통 정도로 인식함
- 성별, 지역별, 직업별 집단 간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음

〈표 4-11〉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_풍랑, 해일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
전체	429	53	(12.4)	146	(34.0)	156	(36.4)	54	(12.6)	20	(4.7)	2.63

□ 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44점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표 4-12〉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교통사고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
합계	429	10	(2.3)	32	(7.5)	188	(43.8)	156	(36.4)	43	(10.0)	3.44

□ 화재, 가스폭발, 지반침하

- 화재, 가스폭발, 지반침하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02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됨

〈표 4-13〉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화재, 가스폭발, 지반침하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
합계	429	20	(4.7)	91	(21.2)	194	(45.2)	107	(24.9)	17	(4.0)	3.02

□ 건물, 시설물 붕괴

- 건물이나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65점을 나타내어 재난피해 가능성은 보

통 수준으로 조사됨

〈표 4-14〉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건물, 시설물 붕괴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
합계	429	31	(7.2)	158	(36.8)	183	(42.7)	44	(10.3)	13	(3.0)	2.65

□ 전염병, 질병, 환경오염 등

- 전염병, 질병, 환경오염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직접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5점 척도 중 평균 3.59점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평균 3.69)이 남성(평균 3.49)에 비해 약간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표 4-15〉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_전염병, 질병, 환경오염 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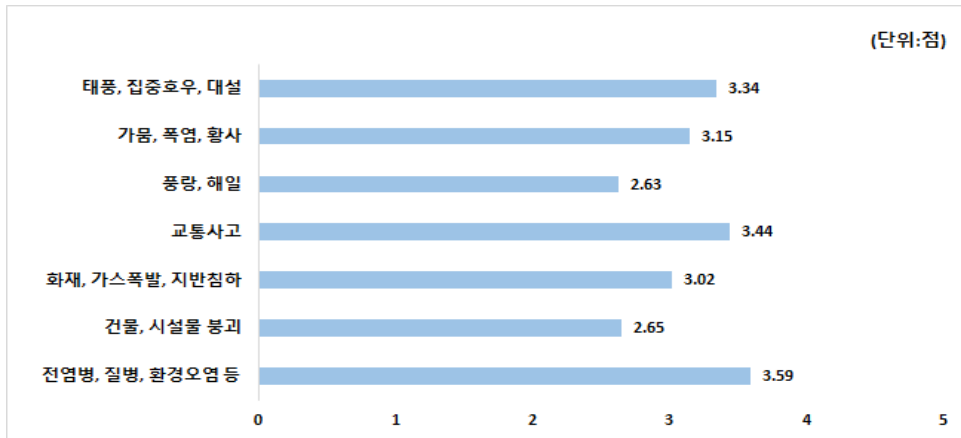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	t/F
전체		429	11 (2.6)	24 (5.6)	168 (39.2)	152 (35.4)	74 (17.2)	3.59					
성 별	여성	219	6 (2.7)	10 (4.6)	81 (37.0)	71 (32.4)	51 (23.3)	3.69	2.240*				
	남성	210	5 (2.4)	14 (6.7)	87 (41.4)	81 (38.6)	23 (11.0)	3.49					

* p<0.05, ** p<0.01, *** p<0.001

□ 재난재해 피해 가능성(종합)

-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5점 척도 조사 결과 전염병·질병·환경오염(평균 3.59)과 교통사고(평균 3.44)로 높게 나타났고 태풍·집중호우·대설(평균 3.34), 가뭄·폭염·황사(평균 3.15), 화재·가스폭발·지반침하(평균 3.02)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풍랑·해일(평균 2.63)과 건물·시설물 붕괴(평균 2.65)는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8〉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난피해 가능성



나. 안전교육훈련 및 활동 경험

1) 최근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 수강 경험

-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25.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수강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0대(36.0%)와 20대(31.4%)가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13.8%)이 낮은 비율을 보임
 - 학력별로는 고학력 집단(대학원 이상 44.4%, 전문대/대졸 32.9%)이 저학력 집단(고졸 18.8%, 중졸이하 7.4%)에 비해 안전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재난취약자 동거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재난취약자와 함께 동거(31.9%)하는 집단에서 안전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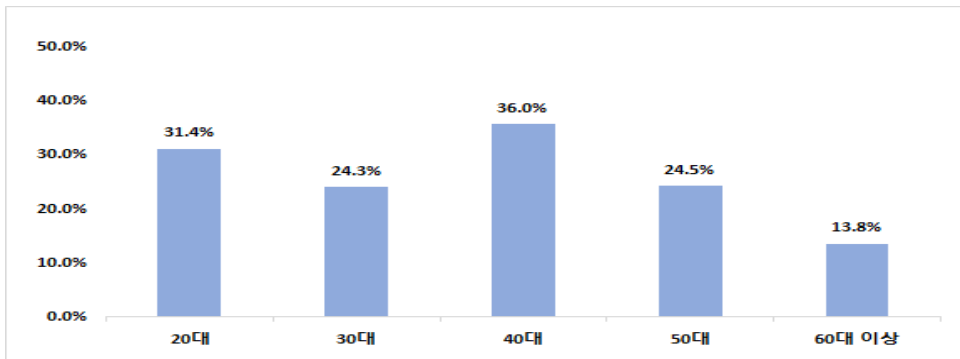
〈표 4-16〉 최근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 수강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χ ²
합계			429	110 (25.6)	319 (74.4)		
연령	20대	70	22 (31.4)	48 (68.6)	13.209*		
	30대	74	18 (24.3)	56 (75.7)			
	40대	89	32 (36.0)	57 (64.0)			
	50대	102	25 (24.5)	77 (75.5)			
	60대 이상	94	13 (13.8)	81 (86.2)			
최종학력	중졸이하	27	2 (7.4)	25 (92.6)	16.462**		
	고졸	176	33 (18.8)	143 (81.3)			
	전문대/대졸	217	71 (32.7)	146 (67.3)			
	대학원수료 이상	9	4 (44.4)	5 (55.6)			
재난취약자 동거유무	있음	182	58 (31.9)	124 (68.1)	6.429*		
	없음	247	52 (21.1)	195 (78.9)			

* p<0.05, ** p<0.01, *** p<0.001

〈그림 4-9〉 최근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 수강 경험



2) 최근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 수강 분야

- 최근 1년 이내 수강한 안전교육 분야는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26.8%), 소방안전 교육 (25.0%), 재난 재해 및 사회재난대응 요령(20.9%)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소방안전 교육(27.4%), 심폐소생술(25.5%)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심폐소생술(28.1%), 소방안전 교육(22.8%), 재난재해 및 사회재난대응요령(2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심폐소생술은 은퇴/무직(42.9%), 학생(40.7%), 1차 산업 종사자(27.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안전 교육 분야는 1차 산업 종사자(36.4%), 자영업(33.3%), 사무직 (26.8%)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7〉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수강 분야 (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재난 재해 및 사회재난대 응 요령	소방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생활안전(사 고 및 화재) 교육	물놀이 등 휴가지 대처요령	기타
성별	전체	220	46 (20.9)	55 (25.0)	59 (26.8)	37 (16.8)	18 (8.2)	5 (2.3)
	여성	106	21 (19.8)	29 (27.4)	27 (25.5)	21 (19.8)	7 (6.6)	1 (0.9)
	남성	114	25 (21.9)	26 (22.8)	32 (28.1)	16 (14.0)	11 (9.6)	4 (3.5)
직업	1차 산업 종사자	22	3 (13.6)	8 (36.4)	6 (27.3)	4 (18.2)	1 (4.5)	0 (0.0)
	사무직	41	10 (24.4)	11 (26.8)	10 (24.4)	6 (14.6)	4 (9.8)	0 (0.0)
	생산직/노무직	19	5 (26.3)	4 (21.1)	2 (10.5)	5 (26.3)	1 (5.3)	2 (10.5)
	전문직	35	10 (28.6)	8 (22.9)	10 (28.6)	5 (14.3)	2 (5.7)	0 (0.0)
	자영업	24	5 (20.8)	8 (33.3)	7 (29.2)	2 (8.3)	0 (0.0)	2 (8.3)
	판매/서비스직	27	6 (22.2)	8 (29.6)	7 (25.9)	5 (18.5)	1 (3.7)	0 (0.0)
	전업주부	8	1 (12.5)	2 (25.0)	1 (12.5)	3 (37.5)	1 (12.5)	0 (0.0)
	학생	27	3 (11.1)	4 (14.8)	11 (40.7)	3 (11.1)	6 (22.2)	0 (0.0)
	은퇴/무직	7	1 (14.3)	1 (14.3)	3 (42.9)	1 (14.3)	1 (14.3)	0 (0.0)
	기타	10	2 (20.0)	1 (10.0)	2 (20.0)	3 (30.0)	1 (10.0)	1 (10.0)

3) 안전 관련 교육 미수강 이유

- 안전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 부족(22.3%), 생계 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0.8%), 지역에서 교육기회 없음(1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부족(24.1%),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17.8%), 생계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17.5%)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생계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4.5%), 교육 실시에 대한 정보 부족(20.3%),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 (15.0%)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정보부족, 남성은 생계활동이 안전 교육 수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 직업별로는 ‘교육 실시에 관한 정보 부족’ 항목은 전업주부(32.7%), 자영업(26.9%), 사무직(26.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 항목은 기타(25.0%),

군 253)에서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50대(평균 242)와 60대 이상(평균 227) 고령층에서는 걱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이는 고 연령 집단일수록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표 4-19〉 제주지역 안전교육 횟수 적정 여부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합계		429	40 (9.3)	178 (41.5)	182 (42.4)	27 (6.3)	2 (0.5)	247					
성별	여성	219	21 (9.6)	90 (41.1)	92 (42.0)	15 (6.8)	1 (0.5)	247	.111				
	남성	210	19 (9.0)	88 (41.9)	90 (42.9)	12 (5.7)	1 (0.5)	247					
연령	20대	70	10 (14.3)	18 (25.7)	37 (52.9)	5 (7.1)	0 (0.0)	253	3.089*				
	30대	74	2 (2.7)	26 (35.1)	43 (58.1)	3 (4.1)	0 (0.0)	264					
	40대	89	6 (6.7)	35 (39.3)	40 (44.9)	8 (9.0)	0 (0.0)	256					
	50대	102	9 (8.8)	50 (49.0)	35 (34.3)	7 (6.9)	1 (1.0)	242					
	60대 이상	94	13 (13.8)	49 (52.1)	27 (28.7)	4 (4.3)	1 (1.1)	227					

* p<0.05, ** p<0.01, *** p<0.001

5)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

□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96점으로 약간 알고 있는 정도로 조사됨

-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평균 3.26)이 여성(평균 2.68)보다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평균 3.09)와 50대(평균 3.09), 40대(평균 3.0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30대(평균 2.77)와 60대 이상(평균 2.79)은 상대적으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학력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고학력 계층(대학원 이상 평균 3.44, 전문대/대졸 평균 3.19)이 저학력 계층(고졸 평균 2.76, 중졸이하 평균 2.30)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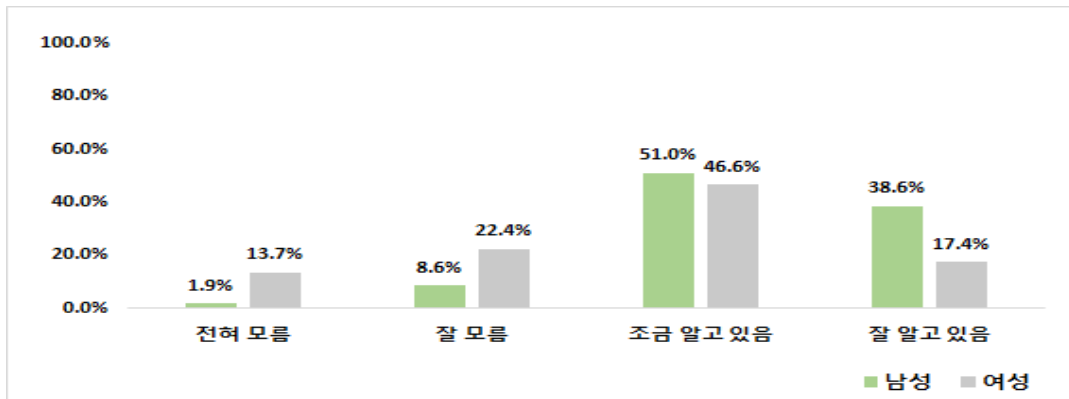
〈표 4-20〉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기 사용법

(단위 : 명, %)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 (점)	t/F
성별	합계	429	34 (7.9)	67 (15.6)	209 (48.7)	119 (27.7)	2.96
	여성	219	30 (13.7)	49 (22.4)	102 (46.6)	38 (17.4)	2.68
	남성	210	4 (1.9)	18 (8.6)	107 (51.0)	81 (38.6)	3.26
연령	20대	70	5 (7.1)	8 (11.4)	33 (47.1)	24 (34.3)	3.09
	30대	74	9 (12.2)	17 (23.0)	30 (40.5)	18 (24.3)	2.77
	40대	89	4 (4.5)	11 (12.4)	49 (55.1)	25 (28.1)	3.07
	50대	102	6 (5.9)	11 (10.8)	53 (52.0)	32 (31.4)	3.09
	60대 이상	94	10 (10.6)	20 (21.3)	44 (46.8)	20 (21.3)	2.79
최종 학력	중졸이하	27	8 (29.6)	5 (18.5)	12 (44.4)	2 (7.4)	2.30
	고졸	176	20 (11.4)	37 (21.0)	85 (48.3)	34 (19.3)	2.76
	전문대/대졸	217	6 (2.8)	24 (11.1)	109 (50.2)	78 (35.9)	3.19
	대학원수료 이상	9	0 (0.0)	1 (11.1)	3 (33.3)	5 (55.6)	3.44

* p<0.05, ** p<0.01, *** p<0.001

〈그림 4-10〉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2점을 나타내어 조금 알고 있는 정도로 응답함

- 성별로는 남성(평균 2.44)이 여성(평균 2.01)보다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평균 2.44), 전문대/대졸(평균 2.44), 고졸(평균 2.05)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장비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출신지역별로는 국내 이주자(평균 2.34)가 제주지역(평균 2.25) 출신자 집단보다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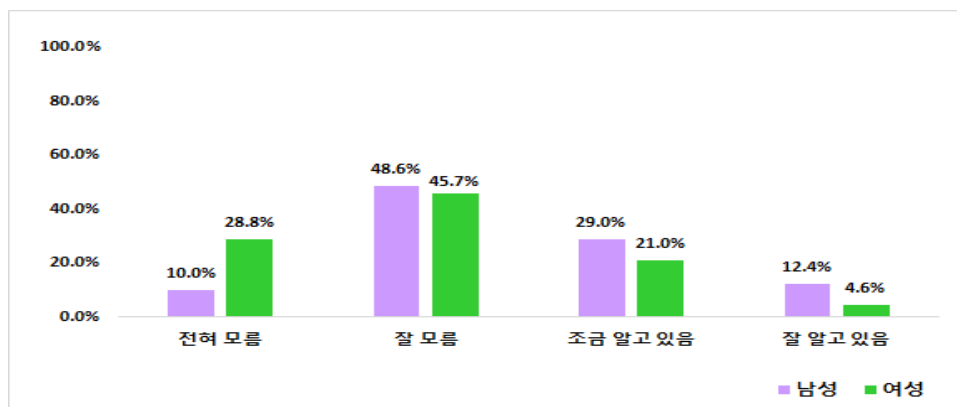
〈표 4-21〉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완강기 사용법

(단위 : 명, %)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 (점)	t/F
합계		429	84	(19.6)	202	(47.1)	107	(24.9)	36	(8.4)	2.22	
성별	여성	219	63	(28.8)	100	(45.7)	46	(21.0)	10	(4.6)	2.01	-5.290***
	남성	210	21	(10.0)	102	(48.6)	61	(29.0)	26	(12.4)	2.44	
최종 학력	중졸이하	27	14	(51.9)	12	(44.4)	1	(3.7)	0	(0.0)	1.52	14.875***
	고졸	176	44	(25.0)	88	(50.0)	36	(20.5)	8	(4.5)	2.05	
	전문대/대졸	217	25	(11.5)	97	(44.7)	69	(31.8)	26	(12.0)	2.44	
	대학원수료 이상	9	1	(11.1)	5	(55.6)	1	(11.1)	2	(22.2)	2.44	
출신 지역	제주	367	65	(17.7)	178	(48.5)	93	(25.3)	31	(8.4)	2.25	6.770**
	제주 외 국내	41	8	(19.5)	16	(39.0)	12	(29.3)	5	(12.2)	2.34	
	결혼이주자	21	11	(52.4)	8	(38.1)	2	(9.5)	0	(0.0)	1.57	

* p<0.05, ** p<0.01, *** p<0.001

〈그림 4-11〉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완강기 사용법



□ 소화전 사용법

○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4점 척도 기준 평균 2.43점으로 나타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평균 2.73)이 여성(평균 2.13)보다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학력(대학원 이상 평균 2.67, 전문대/대졸 평균 2.63)이 저학력 집단(고졸 평균 2.2, 중졸 평균 1.85)보다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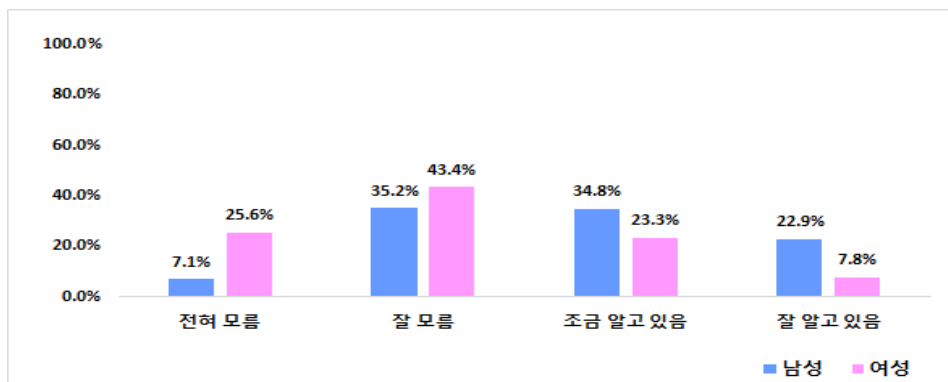
〈표 4-22〉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전 사용법

(단위 : 명, %)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 (점)	t/F
전체		429	71	(16.6)	169	(39.4)	124	(28.9)	65	(15.2)	2.43	
성별	여성	219	56	(25.6)	95	(43.4)	51	(23.3)	17	(7.8)	2.13	-6.991***
	남성	210	15	(7.1)	74	(35.2)	73	(34.8)	48	(22.9)	2.73	
최종 학력	중졸이하	27	11	(40.7)	11	(40.7)	3	(11.1)	2	(7.4)	1.85	9.643***
	고졸	176	35	(19.9)	79	(44.9)	45	(25.6)	17	(9.7)	2.25	
	전문대/대졸	217	24	(11.1)	75	(34.6)	75	(34.6)	43	(19.8)	2.63	
	대학원수료 이상	9	1	(11.1)	4	(44.4)	1	(11.1)	3	(33.3)	2.67	
출신 지역	제주	367	51	(13.9)	147	(40.1)	110	(30.0)	59	(16.1)	2.48	9.842***
	제주 외 국내	41	9	(22.0)	14	(34.1)	12	(29.3)	6	(14.6)	2.37	
	결혼이주자	21	11	(52.4)	8	(38.1)	2	(9.5)	0	(0.0)	1.57	

* p<0.05, ** p<0.01, *** p<0.001

〈그림 4-12〉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소화전 사용법



□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68점으로 나타나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평균 2.93)이 여성(평균 2.44)에 비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20대(평균 3.03), 50대(평균 2.75), 40대(평균 2.60) 순으로 높게 조사됨. 20대 집단에서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안전에 관한 관심이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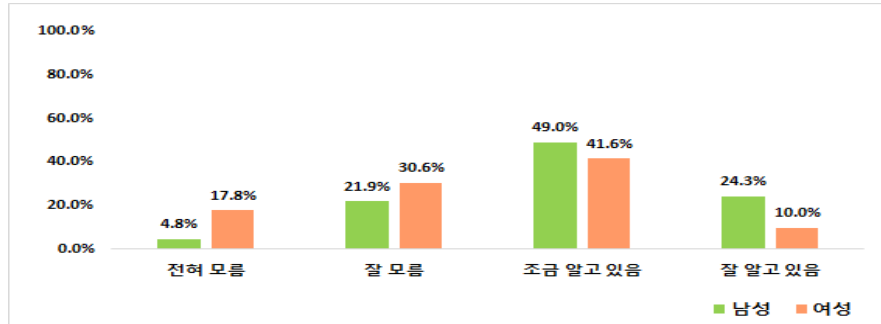
〈표 4-23〉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폐소생술

(단위 : 명, %)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 (점)	t/F
합계		429	49 (11.4)	113 (26.3)	194 (45.2)	73 (17.0)	2.68
성별	여성	219	39 (17.8)	67 (30.6)	91 (41.6)	22 (10.0)	2.44
	남성	210	10 (4.8)	46 (21.9)	103 (49.0)	51 (24.3)	2.93
연령	20대	70	5 (7.1)	14 (20.0)	25 (35.7)	26 (37.1)	3.03
	30대	74	9 (12.2)	22 (29.7)	36 (48.6)	7 (9.5)	2.55
	40대	89	9 (10.1)	29 (32.6)	40 (44.9)	11 (12.4)	2.60
	50대	102	12 (11.8)	18 (17.6)	55 (53.9)	17 (16.7)	2.75
	60대 이상	94	14 (14.9)	30 (31.9)	38 (40.4)	12 (12.8)	2.51
최종 학력	중졸이하	27	9 (33.3)	8 (29.6)	9 (33.3)	1 (3.7)	2.07
	고졸	176	27 (15.3)	58 (33.0)	67 (38.1)	24 (13.6)	2.50
	전문대/대졸	217	13 (6.0)	47 (21.7)	111 (51.2)	46 (21.2)	2.88
	대학원수료 이상	9	0 (0.0)	0 (0.0)	7 (77.8)	2 (22.2)	3.22
출신 지역	제주	367	39 (10.6)	91 (24.8)	172 (46.9)	65 (17.7)	2.72
	제주 외 국내	41	3 (7.3)	9 (22.0)	21 (51.2)	8 (19.5)	2.83
	결혼이주자	21	7 (33.3)	13 (61.9)	1 (4.8)	0 (0.0)	1.71

* p<0.05, ** p<0.01, *** p<0.001

〈그림 4-13〉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폐소생술



□ 심장충격기 사용법

○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2 점을 나타내어 조금 알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평균 2.43)이 여성(평균 2.02)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 집단(평균 2.76)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서 20대의 관심이 높다고 풀이할 수 있음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도 높게 나타나고 전문대 이상 고학력층과 고졸이하 저학력층과의 격차도 뚜렷함

〈표 4-24〉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장충격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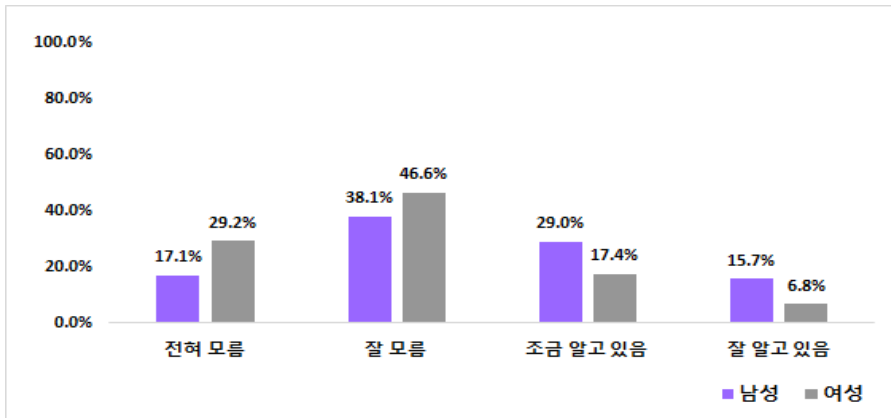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 (점)	t/F
합계			429	100 (23.3)	182 (42.4)	99 (23.1)	48 (11.2)		2.22	
성별	여성	219	64 (29.2)	102 (46.6)	38 (17.4)	15 (6.8)		2.02	-4.737***	
	남성	210	36 (17.1)	80 (38.1)	61 (29.0)	33 (15.7)		2.43		
연령	20대	70	11 (15.7)	16 (22.9)	22 (31.4)	21 (30.0)		2.76	7.773***	
	30대	74	14 (18.9)	44 (59.5)	14 (18.9)	2 (2.7)		2.05		
	40대	89	19 (21.3)	46 (51.7)	19 (21.3)	5 (5.6)		2.11		
	50대	102	27 (26.5)	38 (37.3)	26 (25.5)	11 (10.8)		2.21		
	60대 이상	94	29 (30.9)	38 (40.4)	18 (19.1)	9 (9.6)		2.07		
최종 학력	중졸이하	27	11 (40.7)	12 (44.4)	3 (11.1)	1 (3.7)		1.78	9.383***	
	고졸	176	54 (30.7)	76 (43.2)	35 (19.9)	11 (6.3)		2.02		
	전문대/대졸	217	34 (15.7)	90 (41.5)	59 (27.2)	34 (15.7)		2.43		
	대학원수료 이상	9	1 (11.1)	4 (44.4)	2 (22.2)	2 (22.2)		2.56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 (점)	t/F
출신 지역	제주	367	75 (20.4)	162 (44.1)	88 (24.0)	42 (11.4)	2.26	6.480**
	제주 외 국내	41	15 (36.6)	9 (22.0)	11 (26.8)	6 (14.6)	2.20	
	결혼이주자	21	10 (47.6)	11 (52.4)	0 (0.0)	0 (0.0)	1.52	

* p<0.05, ** p<0.01, *** p<0.001

〈그림 4-14〉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 방법 인지 정도_심장충격기



□ 성별 안전장비 사용법 인지 비율

-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비율은 여성이 조금 알고 있음(46.6%)과 잘 알고 있음(17.4%)을 모두 합해 64.0%로 나타났고 남성은 조금 알고 있음(51.0%)과 잘 알고 있음(38.6%)을 합해서 89.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성인남성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은 상당수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는 여성은 조금 알고 있음(21.0%)과 잘 알고 있음(4.6%)을 모두 합해 25.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조금 알고 있음(29.0%)과 잘 알고 있음(12.4%)을 합해 41.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뚜렷한 성별 차이가 감지됨
-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는 여성이 조금 알고 있음(23.3%)과 잘 알고 있음(7.8%)을 합하여 31.1%인데 반해 남성은 조금 알고 있음(34.8%)과 잘 알고 있음(22.9%)을 합해 57.7%에 달해 성별로 인지정도에 대한 차이가 드러남
- 심폐소생술은 여성은 조금 알고 있음(41.6%)과 잘 알고 있음(10.0%)을 모두 합해 51.6%

이고 남성이 조금 알고 있음(49.0%)과 잘 알고 있음(24.3%)의 합이 73.3%에 달하고 있음. 여성은 10.0%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성별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하여 여성은 조금 알고 있음(17.4%), 잘 알고 있음(6.8%) 모두 합해 24.2%정도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조금 알고 있음(29.0%)과 잘 알고 있음(15.7%)의 합이 44.7%에 달해 여성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인지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25〉 성별 안전장비 사용법 인지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합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합계
소화기	46.6	17.4	64.0	51.0	38.6	89.6
완강기	21.0	4.6	25.6	29.0	12.4	41.4
소화전	23.3	7.8	31.1	34.8	22.9	57.7
심폐소생술	41.6	10.0	51.6	49.0	24.3	73.3
심장충격기	17.4	6.8	24.2	29.0	15.7	44.7

□ 여성의 연령별 안전장비 사용능력

- 여성의 연령별 안전장비 사용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심장충격기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40대와 50대 연령대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특히 긍정합계 분석결과 소화기 사용법(40대 14.6%, 50대 16.9%)과 심폐소생술(40대 11.0%, 50대 15.6%) 항목에서 40대와 50대의 긍정합계가 20대와 30대보다 높게 나타나 20-30대 연령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됨
- 완강기나 소화전,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여성의 인지도는 모든 연령에 걸쳐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장비 사용법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표 4-26〉 여성의 연령별 안전장비 사용능력

구분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긍정 합계	
소화기	조금 알고 있음	14(6.4)	16(7.3)	22(10.0)	29(13.2)	21(9.6)	140 (63.9)	219 (100.0)
	잘알고 있음	8(3.7)	7(3.2)	10(4.6)	8(3.7)	5(2.3)		
	긍정합계	22(10.0)	23(10.5)	32(14.6)	37(16.9)	26(11.8)		
완강기	조금 알고 있음	7(3.2)	5(2.3)	14(6.4)	11(5.0)	9(4.1)	56 (25.6)	219 (100.0)
	잘알고 있음	1(0.5)	0(0.0)	5(2.3)	3(1.4)	1(0.5)		
	긍정합계	8(3.7)	5(2.3)	19(8.7)	14(6.4)	10(4.6)		
소화전	조금 알고 있음	5(2.3)	11(5.0)	13(5.9)	12(5.5)	10(4.6)	68 (31.1)	219 (100.0)
	잘알고 있음	4(1.8)	1(0.5)	6(2.7)	4(1.8)	2(0.9)		
	긍정합계	9(4.1)	12(5.5)	19(8.7)	16(7.3)	12(5.5)		
심폐소생술	조금 알고 있음	11(5.0)	17(7.8)	19(8.7)	30(13.7)	14(6.4)	113 (51.6)	219 (100.0)
	잘알고 있음	7(3.2)	1(0.5)	5(2.3)	4(1.8)	5(2.3)		
	긍정합계	18(8.2)	18(8.2)	24(11.0)	34(15.6)	19(8.7)		
심장충격기	조금 알고 있음	7(3.2)	4(1.8)	6(2.7)	12(5.5)	9(4.1)	53 (24.2)	219 (100.0)
	잘알고 있음	7(3.2)	1(0.5)	3(1.4)	1(0.5)	3(1.4)		
	긍정합계	14(6.4)	5(2.3)	9(4.1)	13(5.9)	12(5.5)		

6)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 교육 장소

-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TV·신문 등 대중매체(28.2%)를 통한 학습, 직장(16.8%), 학교(1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TV·신문(31.3%), 직장(17.9%), 학교(17.6%), 안전체험관(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TV·신문(25.8%), 군대·예비군·민방위 훈련(24.3%), 직장(15.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을 통한 학습경험은 여성(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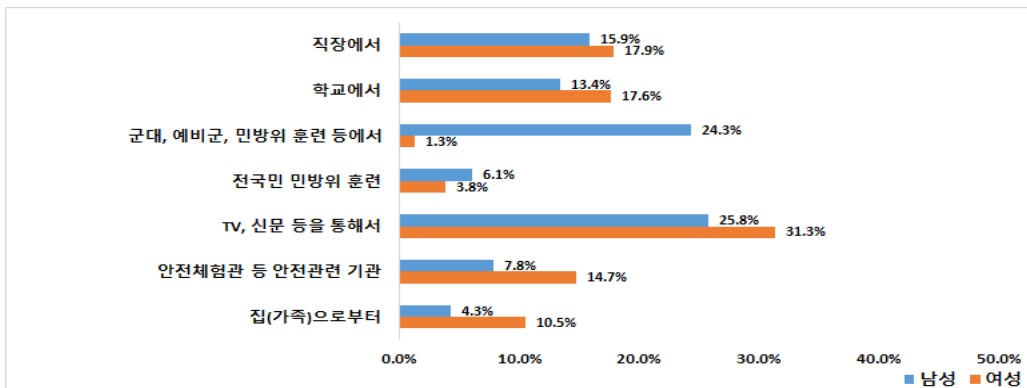
이 남성(7.8%)보다 높게 나타나 안전관련 기관의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27〉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 교육 장소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에서	전국민 민방위 훈련	TV, 신문 등을 통해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	집(가족)으로부터	기타	
전체		708	119 (16.8)	108 (15.3)	100 (14.1)	36 (5.1)	200 (28.2)	77 (10.9)	50 (7.1)	18 (2.5)
성별	여성	313	56 (17.9)	55 (17.6)	4 (1.3)	12 (3.8)	98 (31.3)	46 (14.7)	33 (10.5)	9 (2.9)
	남성	395	63 (15.9)	53 (13.4)	96 (24.3)	24 (6.1)	102 (25.8)	31 (7.8)	17 (4.3)	9 (2.3)
연령	20대	116	8 (6.9)	41 (35.3)	28 (24.1)	3 (2.6)	24 (20.7)	8 (6.9)	4 (3.4)	0 (0.0)
	30대	114	17 (14.9)	24 (21.1)	22 (19.3)	6 (5.3)	33 (28.9)	6 (5.3)	4 (3.5)	2 (1.8)
	40대	157	34 (21.7)	19 (12.1)	21 (13.4)	9 (5.7)	42 (26.8)	22 (14.0)	8 (5.1)	2 (1.3)
	50대	182	35 (19.2)	16 (8.8)	16 (8.8)	12 (6.6)	53 (29.1)	26 (14.3)	17 (9.3)	7 (3.8)
	60대 이상	139	25 (18.0)	8 (5.8)	13 (9.4)	6 (4.3)	48 (34.5)	15 (10.8)	17 (12.2)	7 (5.0)
직업	1차 산업 종사자	57	10 (17.5)	2 (3.5)	13 (22.8)	1 (1.8)	16 (28.1)	8 (14.0)	4 (7.0)	3 (5.3)
	사무직	94	22 (23.4)	12 (12.8)	16 (17.0)	4 (4.3)	24 (25.5)	12 (12.8)	3 (3.2)	1 (1.1)
	생산직/노무직	36	10 (27.8)	4 (11.1)	3 (8.3)	2 (5.6)	10 (27.8)	3 (8.3)	2 (5.6)	2 (5.6)
	전문직	88	24 (27.3)	16 (18.2)	14 (15.9)	1 (1.1)	17 (19.3)	8 (9.1)	6 (6.8)	2 (2.3)
	자영업	170	17 (10.0)	19 (11.2)	19 (11.2)	15 (8.8)	48 (28.2)	27 (15.9)	16 (9.4)	9 (5.3)
	판매/서비스직	121	21 (17.4)	18 (14.9)	21 (17.4)	6 (5.0)	43 (35.5)	6 (5.0)	5 (4.1)	1 (0.8)
	전업주부	38	5 (13.2)	6 (15.8)	0 (0.0)	3 (7.9)	11 (28.9)	4 (10.5)	9 (23.7)	0 (0.0)
	학생	50	1 (2.0)	20 (40.0)	4 (8.0)	3 (6.0)	15 (30.0)	3 (6.0)	4 (8.0)	0 (0.0)
	은퇴/무직	30	7 (23.3)	5 (16.7)	3 (10.0)	0 (0.0)	9 (30.0)	5 (16.7)	1 (3.3)	0 (0.0)
	기타	24	2 (8.3)	6 (25.0)	7 (29.2)	1 (4.2)	7 (29.2)	1 (4.2)	0 (0.0)	0 (0.0)

〈그림 4-15〉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 교육 장소



7) 재난대응 능력

□ 대피방법 인지 정도

○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21점으로 나타나 약간 아는 정도로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평균 3.37)이 여성(평균 3.06)에 비해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학력집단(대학원 이상 평균 3.56점, 전문대/대졸 평균 3.42점)이 저학력 집단(중졸 이하 평균 2.63점, 고졸 평균 3.03점)에 비해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평균 3.59점), 전문직(평균 3.46점), 은퇴/무직(평균 3.44점), 1차 산업 종사자(평균 3.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주부(평균 2.90점), 판매/서비스직(평균 3.00점), 생산/노무직(평균 3.07점) 그룹은 낮은 인지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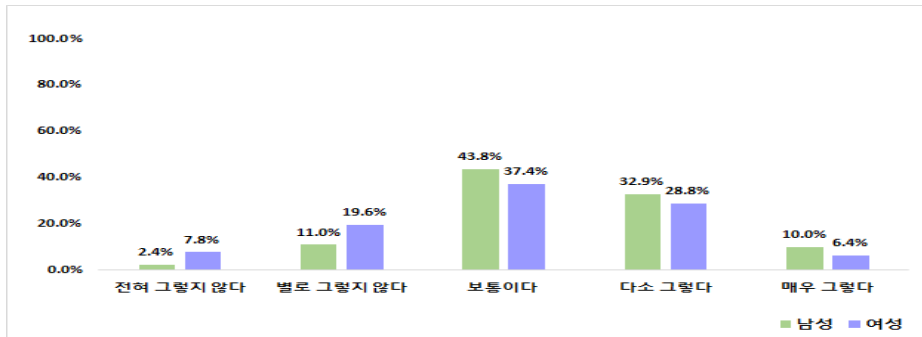
〈표 4-28〉 재난대응 능력_대피방법 인지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합계		429	22 (5.1)	66 (15.4)	174 (40.6)	132 (30.8)	35 (8.2)	3.21
성 별	여성	219	17 (7.8)	43 (19.6)	82 (37.4)	63 (28.8)	14 (6.4)	3.06
	남성	210	5 (2.4)	23 (11.0)	92 (43.8)	69 (32.9)	21 (10.0)	3.37
최 중 학 력	중졸이하	27	4 (14.8)	8 (29.6)	10 (37.0)	4 (14.8)	1 (3.7)	2.63
	고졸	176	13 (7.4)	38 (21.6)	68 (38.6)	44 (25.0)	13 (7.4)	3.03
	전문대/대졸	217	5 (2.3)	18 (8.3)	94 (43.3)	81 (37.3)	19 (8.8)	3.42
	대학원 이상	9	0 (0.0)	2 (22.2)	2 (22.2)	3 (33.3)	2 (22.2)	3.56
직 업	1차 산업 종사자	32	0 (0.0)	7 (21.9)	10 (31.3)	13 (40.6)	2 (6.3)	3.31
	사무직	56	2 (3.6)	4 (7.1)	28 (50.0)	18 (32.1)	4 (7.1)	3.32
	생산직/노무직	27	1 (3.7)	8 (29.6)	10 (37.0)	4 (14.8)	4 (14.8)	3.07
	전문직	50	1 (2.0)	4 (8.0)	23 (46.0)	15 (30.0)	7 (14.0)	3.46
	자영업	99	3 (3.0)	18 (18.2)	45 (45.5)	25 (25.3)	8 (8.1)	3.17
	판매/서비스직	77	10 (13.0)	10 (13.0)	30 (39.0)	24 (31.2)	3 (3.9)	3.00
	전업주부	30	3 (10.0)	9 (30.0)	7 (23.3)	10 (33.3)	1 (3.3)	2.90
	학생	27	0 (0.0)	1 (3.7)	12 (44.4)	11 (40.7)	3 (11.1)	3.59
	은퇴/무직	18	1 (5.6)	3 (16.7)	4 (22.2)	7 (38.9)	3 (16.7)	3.44
	기타	13	1 (7.7)	2 (15.4)	5 (38.5)	5 (38.5)	0 (0.0)	3.08
출 신 지 역	제주	367	13 (3.5)	51 (13.9)	161 (43.9)	110 (30.0)	32 (8.7)	3.26
	제주 외 국내	41	1 (2.4)	8 (19.5)	10 (24.4)	19 (46.3)	3 (7.3)	3.37
	결혼이주자	21	8 (38.1)	7 (33.3)	3 (14.3)	3 (14.3)	0 (0.0)	2.05

* p<0.05, ** p<0.01, *** p<0.001

〈그림 4-16〉 재난대응 능력_대피방법 인지 정도



□ 생존수영 수행 정도

○ 생존수영 수행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78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평균 3.05점), 20대(평균 2.96점)가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30대(평균 2.50점)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냄
- 출신지역별로는 제주출신(평균 2.86점)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섬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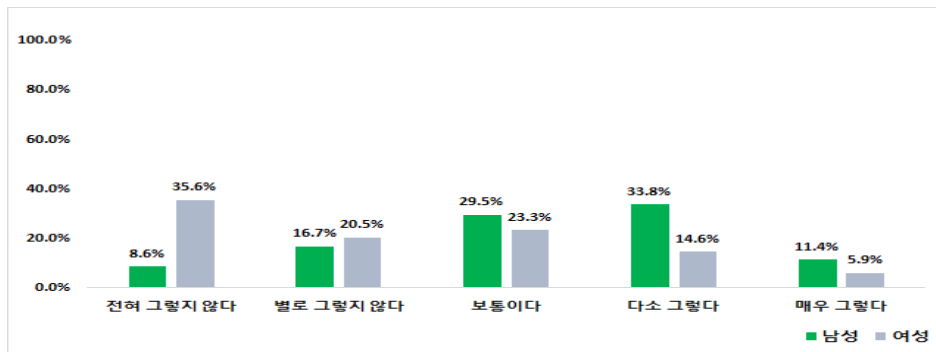
〈표 4-29〉 재난대응 능력_생존수영 수행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성별	전체	429	96 (22.4)	80 (18.6)	113 (26.3)	103 (24.0)	2.78	-7.632***
	여성	219	78 (35.6)	45 (20.5)	51 (23.3)	13 (5.9)	2.35	
	남성	210	18 (8.6)	35 (16.7)	62 (29.5)	24 (11.4)	3.23	
연령	20대	70	12 (17.1)	16 (22.9)	14 (20.0)	9 (12.9)	2.96	2.628*
	30대	74	23 (31.1)	11 (14.9)	21 (28.4)	1 (1.4)	2.50	
	40대	89	20 (22.5)	16 (18.0)	27 (30.3)	4 (4.5)	2.71	
	50대	102	27 (26.5)	18 (17.6)	27 (26.5)	8 (7.8)	2.67	
	60대 이상	94	14 (14.9)	19 (20.2)	24 (25.5)	15 (16.0)	3.05	
출신 지역	제주	367	73 (19.9)	65 (17.7)	102 (27.8)	94 (25.6)	2.86	8.338***
	제주 외 국내	41	13 (31.7)	7 (17.1)	10 (24.4)	4 (9.8)	2.56	
	결혼이주자	21	10 (47.6)	8 (38.1)	1 (4.8)	0 (0.0)	1.76	

* p<0.05, ** p<0.01, *** p<0.001

〈그림 4-17〉 재난대응 능력_생존수영 수행 정도



□ 응급처치 가능 정도

○ 응급처치 가능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88점을 나타내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평균 3.11점)이 여성(평균 2.65점)에 비해 응급처치 가능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평균 3.27점)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30대(평균 2.65점)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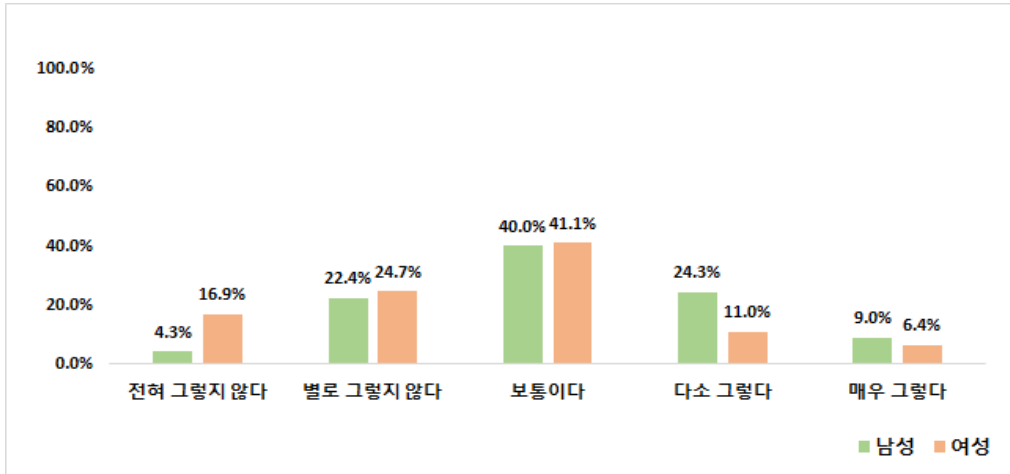
〈표 4-30〉 재난대응 능력_응급처치 가능 정도

(단위 :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합계		429	46 (10.7)	101 (23.5)	174 (40.6)	75 (17.5)	33 (7.7)	2.88	
성별	여성	219	37 (16.9)	54 (24.7)	90 (41.1)	24 (11.0)	14 (6.4)	2.65	-4.588***
	남성	210	9 (4.3)	47 (22.4)	84 (40.0)	51 (24.3)	19 (9.0)	3.11	
연령	20대	70	7 (10.0)	9 (12.9)	23 (32.9)	20 (28.6)	11 (15.7)	3.27	3.576**
	30대	74	12 (16.2)	17 (23.0)	32 (43.2)	11 (14.9)	2 (2.7)	2.65	
	40대	89	9 (10.1)	23 (25.8)	38 (42.7)	15 (16.9)	4 (4.5)	2.80	
	50대	102	10 (9.8)	27 (26.5)	43 (42.2)	16 (15.7)	6 (5.9)	2.81	
	60대 이상	94	8 (8.5)	25 (26.6)	38 (40.4)	13 (13.8)	10 (10.6)	2.91	

* p<0.05, ** p<0.01, *** p<0.001

〈그림 4-18〉 재난대응 능력_응급처치 가능 정도



□ 위기대처 능력 정도

- 위기대처 능력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89점으로 보통 정도도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평균 3.10점)이 여성(평균 2.68점)에 비해 위기대처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위기대처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남(대학원 이상 평균 3.22점, 중졸이하 평균 2.52점)
- 출신지역별로는 제주(평균 2.94점)와 국내이주민(평균 2.95점)은 비슷하게 조사된 반면 곁혼이주자(평균 1.81점) 집단이 낮게 조사됨

〈표 4-31〉 재난대응 능력_위기대처 능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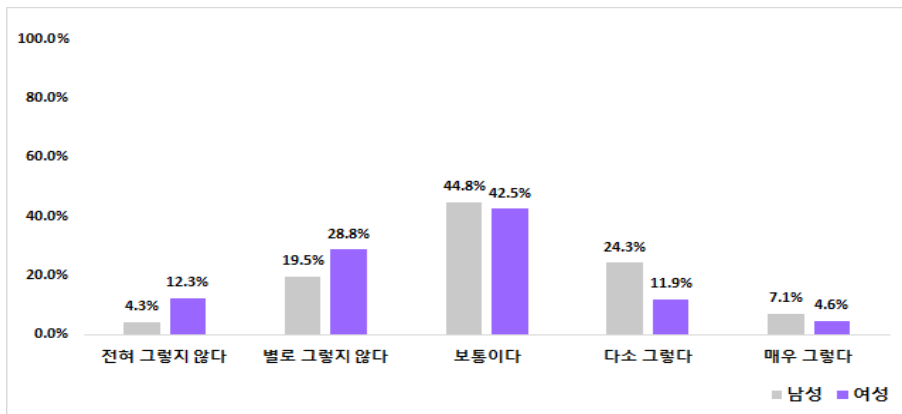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합계		429	36 (8.4)	104 (24.2)	187 (43.6)	77 (17.9)	25 (5.8)	2.89
성 별	여성	219	27 (12.3)	63 (28.8)	93 (42.5)	26 (11.9)	10 (4.6)	2.68
	남성	210	9 (4.3)	41 (19.5)	94 (44.8)	51 (24.3)	15 (7.1)	3.10
최 중	중졸이하	27	4 (14.8)	10 (37.0)	10 (37.0)	1 (3.7)	2 (7.4)	2.52
	고졸	176	18 (10.2)	52 (29.5)	65 (36.9)	33 (18.8)	8 (4.5)	2.7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학 력	전문대/대졸	217	14 (6.5)	40 (18.4)	107 (49.3)	43 (19.8)	13 (6.0)	3.00	
	대학원수료 이상	9	0 (0.0)	2 (22.2)	5 (55.6)	0 (0.0)	2 (22.2)	3.22	
출 신 지 역	제주	367	25 (6.8)	87 (23.7)	164 (44.7)	67 (18.3)	24 (6.5)	2.94	13.836***
	제주 외 국내	41	2 (4.9)	9 (22.0)	20 (48.8)	9 (22.0)	1 (2.4)	2.95	
	결혼이주자	21	9 (42.9)	8 (38.1)	3 (14.3)	1 (4.8)	0 (0.0)	1.81	

* p<0.05, ** p<0.01, *** p<0.001

〈그림 4-19〉 재난대응 능력_위기대처 능력 정도



□ 생활공간 내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의 위치 인지

○ 생활공간 내 비상구나 화재경보기·소화전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35점으로 나타나 약간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평균 3.48점)이 여성(평균 3.22점)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문대/대졸(평균 3.49점)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중졸이하(평균 3.00점)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냄. 여타 재난대응능력 항목에 비해 학력 간의 격차는 적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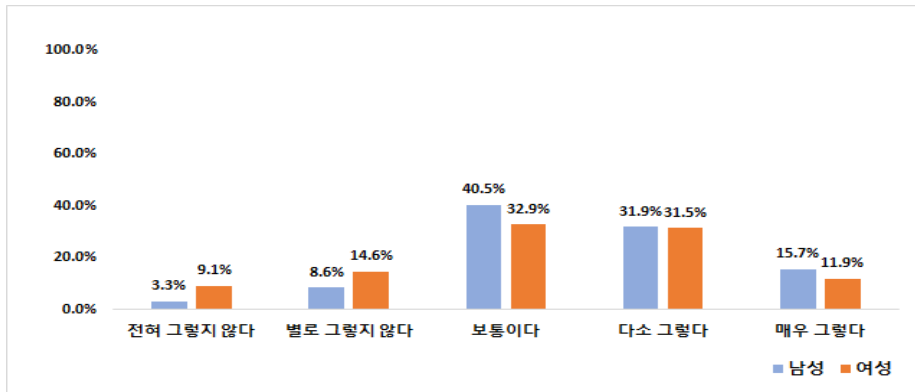
〈표 4-32〉 재난대응 능력_생활공간 내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의 위치 인지

(단위 :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전체		429	27 (6.3)	50 (11.7)	157 (36.6)	136 (31.7)	59 (13.8)	3.35	
성 별	여성	219	20 (9.1)	32 (14.6)	72 (32.9)	69 (31.5)	26 (11.9)	3.22	-4.591***
	남성	210	7 (3.3)	18 (8.6)	85 (40.5)	67 (31.9)	33 (15.7)	3.48	
최 종 학 력	중졸이하	27	4 (14.8)	6 (22.2)	7 (25.9)	6 (22.2)	4 (14.8)	3.00	3.373*
	고졸	176	16 (9.1)	23 (13.1)	65 (36.9)	50 (28.4)	22 (12.5)	3.22	
	전문대/대졸	217	7 (3.2)	19 (8.8)	82 (37.8)	78 (35.9)	31 (14.3)	3.49	
	대학원수료 이상	9	0 (0.0)	2 (22.2)	3 (33.3)	2 (22.2)	2 (22.2)	3.44	
출 신 지 역	제주	367	17 (4.6)	37 (10.1)	135 (36.8)	121 (33.0)	57 (15.5)	3.45	13.836***
	제주 외 국내	41	1 (2.4)	7 (17.1)	17 (41.5)	14 (34.1)	2 (4.9)	3.22	
	결혼이주자	21	9 (42.9)	6 (28.6)	5 (23.8)	1 (4.8)	0 (0.0)	1.90	

* p<0.05, ** p<0.01, *** p<0.001

〈그림 4-20〉 재난대응 능력_생활공간 내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의 위치 인지



□ 식량, 식수, 응급처치 물품 등 비상물품 준비

○ 응급처치 및 비상물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3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정도라 할 수 있음

-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평균 2.27점)이 여성(평균 2.19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평균 2.39점) 집단에서 응급처치 및 비상물품 준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대(평균 1.99점) 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재난취약자와 동거하고 있는지에 따른 응급처치 및 비상물품 준비정도는 재난취약자 동거인이 없는 집단(평균 2.32점)이 오히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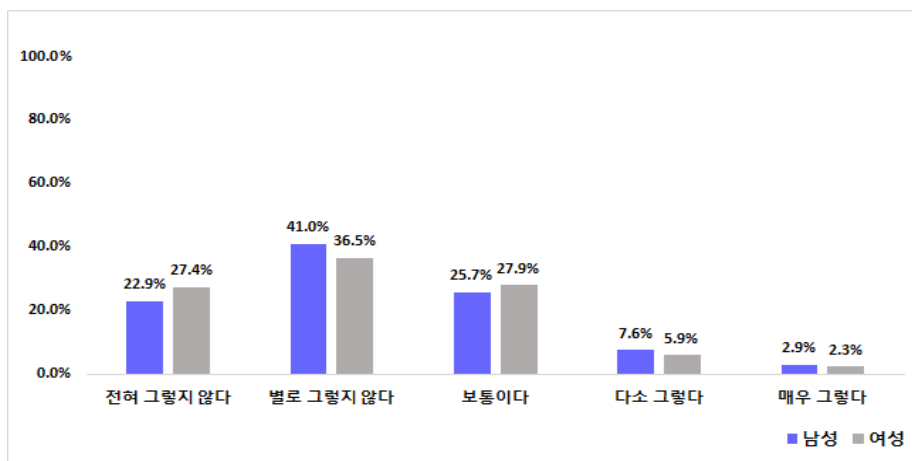
〈표 4-33〉 재난대응 능력_식량, 식수, 응급처치 물품 등 비상물품 준비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t/F
전체		429	108 (25.2)	166 (38.7)	115 (26.8)	29 (6.8)	2.23	
성별	여성	219	60 (27.4)	80 (36.5)	61 (27.9)	13 (5.9)	2.19	-786
	남성	210	48 (22.9)	86 (41.0)	54 (25.7)	16 (7.6)	2.2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2	14 (17.1)	35 (42.7)	24 (29.3)	5 (6.1)	2.39	2.443*
	100만원~199만원	110	38 (34.5)	40 (36.4)	27 (24.5)	5 (4.5)	1.99	
	200만원~299만원	131	28 (21.4)	51 (38.9)	38 (29.0)	11 (8.4)	2.31	
	300만원~499만원	85	23 (27.1)	32 (37.6)	21 (24.7)	5 (5.9)	2.24	
	500만원 초과	21	5 (23.8)	8 (38.1)	5 (23.8)	3 (14.3)	2.29	
재난 취약자 동거 유무	있음	182	57 (31.3)	72 (39.6)	32 (17.6)	18 (9.9)	2.11	-2.148*
	없음	247	51 (20.6)	94 (38.1)	83 (33.6)	11 (4.5)	2.32	
출신 지역	제주	367	89 (24.3)	141 (38.4)	103 (28.1)	25 (6.8)	2.25	3.803*
	제주 외 국내	41	9 (22.0)	17 (41.5)	9 (22.0)	4 (9.8)	2.34	
	결혼이주자	21	10 (47.6)	8 (38.1)	3 (14.3)	0 (0.0)	1.67	

* p<0.05, ** p<0.01, *** p<0.001

〈그림 4-21〉 재난대응 능력_식량, 식수, 응급처치 물품 등 비상물품 준비



□ 재난대처 능력의 성별차이

- 영역별 재난대응 능력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긍정적인 부분만 분석한 결과 대피방법에 있어서는 여성이 '다소 그렇다'(28.8%)와 '매우 그렇다'(6.4%)를 합하여 35.2%가 대피방법을 아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남성은 '다소 그렇다'(32.9%)와 '매우 그렇다'(10.0%)를 합해 42.9%로 나타나 남성이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남
- 생존수영법 인지에 대하여 여성은 '다소 그렇다'(14.6%)와 '매우 그렇다'(5.9%)의 합이 20.5%인 반면 남성은 '다소 그렇다'(33.8%)와 '매우 그렇다'(11.4%)의 합이 45.2%로 나타나 남성이 생존수영법 인지도가 높음
- 응급처치방법 인지정도에 있어서도 여성은 '다소 그렇다'(11.0%)와 '매우 그렇다'(6.3%)의 합이 17.3%에 불과하고 남성은 '다소 그렇다'(24.3%)와 '매우 그렇다'(9.0%)의 합이 33.3%를 차지하여 여성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 생활공간 내 비상구나 화재경보기, 소화전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이 '다소 그렇다'(31.5%)와 '매우 그렇다'(11.9%)의 합이 43.4%, 남성은 '다소 그렇다'(31.9%)와 '매우 그렇다'(15.7%)의 합이 47.6%로 나타나 남성이 약간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타 항목에 비해 차이가 적게 발견됨
- 식량, 식수, 비상물품 등에 대한 준비 정도 항목에서는 여성이 '다소 그렇다'(5.9%)와 '매우 그렇다'(2.3%)를 합해 8.2%로 조사된 반면 남성은 '다소 그렇다'(7.6%)와 '매우 그렇다'(2.9%)를 합해 10.5%로 나타나 남성이 약간 높음

〈표 4-34〉 성별 재난대처 능력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대피방법 인지	28.8	6.4	35.2	32.9	10.0	42.9
생존수영	14.6	5.9	20.5	33.8	11.4	45.2
응급처치	11.0	6.3	17.3	24.3	9.0	33.3
생활공간 내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위치 인지	31.5	11.9	43.4	31.9	15.7	47.6
식량, 식수, 응급처치 등 비상물품 준비	5.9	2.3	8.2	7.6	2.9	10.5

□ 여성의 연령별 재난대처 능력

- 여성의 항목별 재난대처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긍정의 합이 가장 높은 항목인 ‘생활공간 내 비상구·화재경보기·소화전 위치 인지’ 항목에서 40대(10.5%)와 50대(12.3%)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5.5%)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대피방법 인지 항목에서도 40대(9.1%)가 가장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고 20대(5.9%)에서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생존수영이나 응급처치, 비상물품 준비 항목에서는 여성의 긍정적 응답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고 연령별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음

구분		연령					긍정 합계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피방법 인지	다소 그렇다	10 (4.6)	12 (5.5)	18 (8.2)	13 (5.9)	10 (4.6)	77(35.2)	219 (100.0)
	매우 그렇다	3 (1.4)	3 (1.4)	2 (0.9)	2 (0.9)	4 (1.8)		
	긍정합계	13 (5.9)	15 (6.8)	20 (9.1)	15 (6.8)	14 (6.4)		
생존수영	다소 그렇다	5 (2.3)	3 (1.4)	8 (3.7)	8 (3.7)	8 (3.7)	45(20.5)	219 (100.0)
	매우 그렇다	2 (0.9)	0 (0.0)	2 (0.9)	4 (1.8)	5 (2.3)		
	긍정합계	7 (3.2)	3 (1.4)	10 (4.6)	12 (5.5)	13 (5.9)		
응급처치	다소 그렇다	6 (2.7)	2 (0.9)	6 (2.7)	4 (1.8)	6 (2.7)	38(17.3)	219 (100.0)
	매우 그렇다	4 (1.8)	1 (0.5)	2 (0.9)	3 (1.4)	4 (1.8)		
	긍정합계	10 (4.6)	3 (1.4)	8 (3.7)	7 (3.2)	10 (4.6)		
생활공간 내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위치 인지	다소 그렇다	5 (2.3)	12 (5.5)	18 (8.2)	21 (9.6)	13 (5.9)	95(43.4)	219 (100.0)
	매우 그렇다	7 (3.2)	2 (0.9)	5 (2.3)	6 (2.7)	6 (2.7)		
	긍정합계	12 (5.5)	14 (6.4)	23 (10.5)	27 (12.3)	19 (8.7)		
식량, 식수, 응급처치 등 비상물품 준비	다소 그렇다	1 (0.5)	1 (0.5)	6 (2.7)	2 (0.9)	3 (1.4)	18(8.2)	219 (100.0)
	매우 그렇다	1 (0.5)	1 (0.5)	1 (0.5)	1 (0.5)	1 (0.5)		
	긍정합계	2 (0.9)	2 (0.9)	7 (3.2)	3 (1.4)	4 (1.8)		

8) 재난대응의 성별차이 여부

- 재난대응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성별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52.9%), 60대 이상(50.0%), 40대(48.3%) 순으로 높게 나타나 비교적 고 연령층 집단에서 재난대응 능력의 성별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저학력 집단(중졸이하 55.6%, 고졸 42.0%)에서 재난대응의 성별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재난대응의 성별차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영업(56.6%), 1차 산업 종사자(53.1%), 사무직(46.4%), 전문직(46.0%)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5〉 재난대응의 성별차이 여부

(단위 : 명,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χ ²
합계		429	181 (42.2)	152 (35.4)	96 (22.4)			
연령	20대	70	14 (20.0)	32 (45.7)	24 (34.3)	28.900***		
	30대	74	23 (31.1)	29 (39.2)	22 (29.7)			
	40대	89	43 (48.3)	27 (30.3)	19 (21.3)			
	50대	102	54 (52.9)	33 (32.4)	15 (14.7)			
	60대 이상	94	47 (50.0)	31 (33.0)	16 (17.0)			
최종학력	중졸이하	27	15 (55.6)	5 (18.5)	7 (25.9)	14.368*		
	고졸	176	74 (42.0)	52 (29.5)	50 (28.4)			
	전문대/대졸	217	89 (41.0)	90 (41.5)	38 (17.5)			
	대학원수료 이상	9	3 (33.3)	5 (55.6)	1 (11.1)			
직업	1차 산업 종사자	32	17 (53.1)	10 (31.3)	5 (15.6)	38.956**		
	사무직	56	26 (46.4)	19 (33.9)	11 (19.6)			
	생산직/노무직	27	7 (25.9)	6 (22.2)	14 (51.9)			
	전문직	50	23 (46.0)	16 (32.0)	11 (22.0)			
	자영업	99	56 (56.6)	28 (28.3)	15 (15.2)			
	판매/서비스직	77	30 (39.0)	31 (40.3)	16 (20.8)			
	전업주부	30	10 (33.3)	11 (36.7)	9 (30.0)			
	학생	27	5 (18.5)	15 (55.6)	7 (25.9)			
	은퇴/무직	18	4 (22.2)	9 (50.0)	5 (27.8)			
	기타	13	3 (23.1)	7 (53.8)	3 (23.1)			
출신지역	제주	367	153 (41.7)	138 (37.6)	76 (20.7)	29.242***		
	제주 외 국내	41	24 (58.5)	11 (26.8)	6 (14.6)			
	결혼이주자	21	4 (19.0)	3 (14.3)	14 (66.7)			

* p<0.05, ** p<0.01, *** p<0.001

9) 성별 재난대응능력 차이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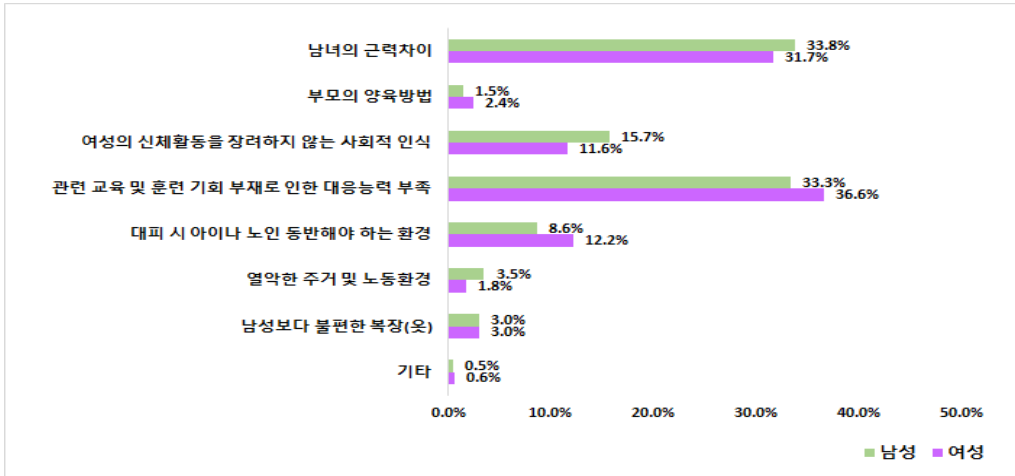
- 성별로 재난대응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교육기회 부재로 인한 능력부족(34.8%), 남녀의 근력차이(32.9%), 여성의 신체적 활동제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13.8%)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능력차이'에 관한 항목에서는 여성(36.6%)이 남성(33.3%)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녀의 근력차이'에 항목에서는 남성(33.8%)이 여성(31.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차이를 남성은 타고난 차이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교육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별로는 '남녀의 근력차이' 항목에서는 20대(42.9%)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8.7%)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차이' 항목에서는 40대(39.5%)가 가장 높고 30대(30.4%)에서 가장 낮게 조사됨

〈표 4-36〉 성별 재난대응능력 차이 발생원인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남녀의 근력차이	부모의 양육방법	여성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재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대피 시 아이나 노인 동반해야 하는 환경	열악한 주거 및 노동환경	남성보다 불편한 복장(옷)	기타	
전체		362	119 (32.9)	7 (1.9)	50 (13.8)	126 (34.8)	37 (10.2)	10 (2.8)	11 (3.0)	2 (0.6)
성 별	여성	164	52 (31.7)	4 (2.4)	19 (11.6)	60 (36.6)	20 (12.2)	3 (1.8)	5 (3.0)	1 (0.6)
	남성	198	67 (33.8)	3 (1.5)	31 (15.7)	66 (33.3)	17 (8.6)	7 (3.5)	6 (3.0)	1 (0.5)
연 령	20대	28	12 (42.9)	0 (0.0)	2 (7.1)	9 (32.1)	3 (10.7)	0 (0.0)	2 (7.1)	0 (0.0)
	30대	46	16 (34.8)	1 (2.2)	7 (15.2)	14 (30.4)	7 (15.2)	1 (2.2)	0 (0.0)	0 (0.0)
	40대	86	28 (32.6)	1 (1.2)	9 (10.5)	34 (39.5)	9 (10.5)	2 (2.3)	2 (2.3)	1 (1.2)
	50대	108	36 (33.3)	1 (0.9)	18 (16.7)	37 (34.3)	10 (9.3)	2 (1.9)	3 (2.8)	1 (0.9)
	60대 이상	94	27 (28.7)	4 (4.3)	14 (14.9)	32 (34.0)	8 (8.5)	5 (5.3)	4 (4.3)	0 (0.0)

〈그림 4-22〉 성별 재난대응능력 차이 발생원인 (1+2순위)



10) 안전 관련 활동 참여 여부

- 안전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15.6%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남성(16.2%)이 여성(15.1%)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20.2%), 50대(18.6%), 60대 이상(18.1%)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20대(8.6%)와 30대(9.5%) 참여율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남

〈표 4-37〉 안전 관련 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

구분			하고 있다		하지 않는다		χ ²
합계			429	67 (15.6)	362 (84.4)		
성별	여성	219	33 (15.1)		186 (84.9)		.102
	남성	210	34 (16.2)		176 (83.8)		
연령	20대	70	6 (8.6)		64 (91.4)		7.335
	30대	74	7 (9.5)		67 (90.5)		
	40대	89	18 (20.2)		71 (79.8)		
	50대	102	19 (18.6)		83 (81.4)		
	60대 이상	94	17 (18.1)		77 (81.9)		

11) 안전 관련 활동 유형

- 참여하고 있는 안전 관련 활동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점검(58.2%), 안전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26.9%)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점검(여성 60.6%, 남성 55.9%)과 안전 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여성 30.3%, 남성 23.5%) 부분에서 모두 남성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참여율을 나타냄
 - 연령별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점검 부분은 30대(71.4%), 60대 이상(70.6%)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 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 부분에서는 40대(38.9%), 50대(31.6%), 30대(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8〉 안전 관련 활동 유형

(단위 : 명, %)

구분		안전 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	관련 단체 기부 활동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점검	안전관련 정보의 수집 및 검토	안전 관련 시민 모니터링 및 정책참여	기타	χ^2
합계		67	18 (26.9)	2 (3.0)	39 (58.2)	6 (9.0)	1 (1.5)	
성별	여성	33	10 (30.3)	1 (3.0)	20 (60.6)	1 (3.0)	0 (0.0)	4.901
	남성	34	8 (23.5)	1 (2.9)	19 (55.9)	5 (14.7)	1 (2.9)	
연령	20대	6	0 (0.0)	1 (16.7)	3 (50.0)	2 (33.3)	0 (0.0)	20.667
	30대	7	2 (28.6)	0 (0.0)	5 (71.4)	0 (0.0)	0 (0.0)	
	40대	18	7 (38.9)	0 (0.0)	8 (44.4)	1 (5.6)	1 (5.6)	
	50대	19	6 (31.6)	0 (0.0)	11 (57.9)	2 (10.5)	0 (0.0)	
	60대 이상	17	3 (17.6)	1 (5.9)	12 (70.6)	1 (5.9)	0 (0.0)	

다. 재난대응 및 정책수요

1) 재난 대비 정보 습득 프로그램 참여 의사

- 재난 대비 정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의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4점 척도 기준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고 참여할 예정(60.1%)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남성(평균 2.73점)과 여성(평균 2.82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참여율을 나타냄

-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고 50대(평균 2.88점)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30대(평균 2.70점)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냄
- 재난취약자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정보습득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정도는 재난 취약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룹(평균 2.88점)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임

〈표 4-39〉 재난 대비 정보 습득 프로그램 참여 의사

(단위 : 명, %)

구분		전혀 참여 하고 싶지 않음	별로 참여 하고 싶지 않음	참여 할 예정	적극 참여 할 예정	평균 (점)	t/F
합계		429	11 (2.6)	117 (27.3)	258 (60.1)	43 (10.0)	2.78
성별	여성	219	6 (2.7)	46 (21.0)	148 (67.6)	19 (8.7)	2.82
	남성	210	5 (2.4)	71 (33.8)	110 (52.4)	24 (11.4)	2.73
연령	20대	70	2 (2.9)	20 (28.6)	42 (60.0)	6 (8.6)	2.74
	30대	74	2 (2.7)	20 (27.0)	50 (67.6)	2 (2.7)	2.70
	40대	89	3 (3.4)	22 (24.7)	55 (61.8)	9 (10.1)	2.79
	50대	102	1 (1.0)	24 (23.5)	63 (61.8)	14 (13.7)	2.88
	60대 이상	94	3 (3.2)	31 (33.0)	48 (51.1)	12 (12.8)	2.73
재난취약자 동거유무	있음	182	2 (1.1)	38 (20.9)	121 (66.5)	21 (11.5)	2.88
	없음	247	9 (3.6)	79 (32.0)	137 (55.5)	22 (8.9)	2.70

* p<0.05, ** p<0.01, *** p<0.001

2) 지역에서 필요한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내용

- 지역에서 필요한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피난 및 대피훈련(30.2%), 상처 등 응급처치 훈련(20.2%), 기구 등을 사용한 응급 구조 훈련(1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고 소화 훈련 부분에서 남성(15.0%)이 여성(11.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40〉 지역에서 필요한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내용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피난 및 대피훈련	소화 훈련	신고 방법 훈련	상처 등 응급처치훈련	기구 등을 사용한 응급 구조 훈련	가족 및 이웃의 안부 확인 훈련	대피소 이용훈련	
합계		858	259 (30.2)	115 (13.4)	67 (7.8)	173 (20.2)	171 (19.9)	40 (4.7)	33 (3.8)
성별	여성	438	137 (31.3)	52 (11.9)	36 (8.2)	91 (20.8)	86 (19.6)	22 (5.0)	14 (3.2)
	남성	420	122 (29.0)	63 (15.0)	31 (7.4)	82 (19.5)	85 (20.2)	18 (4.3)	19 (4.5)

3)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희망 장소

-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장소로 희망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동 단위 주민센터 (24.6%), 전문 교육기관(19.4%), 각 직장 단위(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여성은 동 단위 주민센터(여성 24.9%, 남성 24.3%)와 각종 지역사회 복지관 및 수련관(여성 14.4%, 남성 12.2%)에서 교육받기를 남성에 비해 더 희망하는 반면, 남성은 각 직장 단위(남성 18.4%, 여성 15.8%), 온라인 교육(남성 14.6%, 여성 8.9%)을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동 단위 주민센터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60대 이상(27.8%), 40대 (26.4%), 50대(25.5%)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연령대를 위한 재난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직업별로는 동 단위 주민센터에서 재난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직업군은 1차 산업 종사자 (34.9%), 전업주부(31.7%), 자영업(2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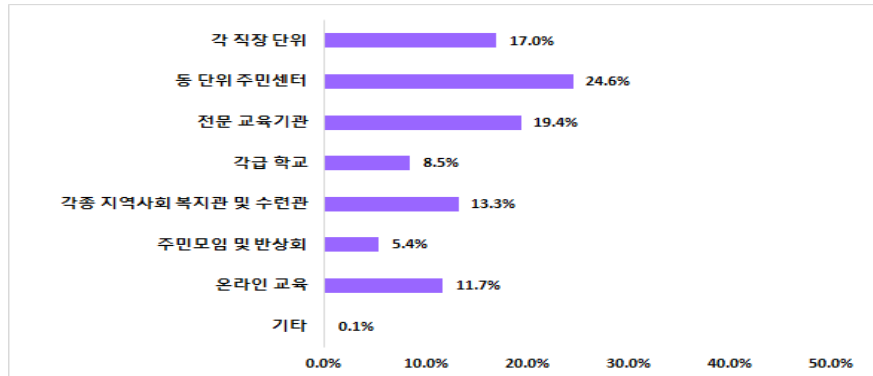
〈표 4-41〉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희망 장소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각 직장 단위	동 단위 주민센터	전문 교육기관	각급 학교	각종 지역사회 복지관 및 수련관	주민모임 및 반사회	온라인 교육	기타	
합계		857	146 (17.0)	211 (24.6)	166 (19.4)	73 (8.5)	114 (13.3)	46 (5.4)	100 (11.7)	1 (0.1)
성 별	여성	438	69 (15.8)	109 (24.9)	85 (19.4)	45 (10.3)	63 (14.4)	28 (6.4)	39 (8.9)	0 (0.0)
	남성	419	77 (18.4)	102 (24.3)	81 (19.3)	28 (6.7)	51 (12.2)	18 (4.3)	61 (14.6)	1 (0.2)
연	20대	140	35 (25.0)	27 (19.3)	30 (21.4)	19 (13.6)	10 (7.1)	0 (0.0)	19 (13.6)	0 (0.0)

구분			각 직장 단위	동 단위 주민센터	전문 교육기관	각급 학교	각종 지역사회 복지관 및 수련관	주민모임 및 반사회	온라인 교육	기타
령	30대	148	23 (15.5)	33 (22.3)	35 (23.6)	15 (10.1)	21 (14.2)	3 (2.0)	18 (12.2)	0 (0.0)
	40대	178	33 (18.5)	47 (26.4)	25 (14.0)	16 (9.0)	24 (13.5)	5 (2.8)	27 (15.2)	1 (0.6)
	50대	204	31 (15.2)	52 (25.5)	43 (21.1)	12 (5.9)	29 (14.2)	14 (6.9)	23 (11.3)	0 (0.0)
	60대 이상	187	24 (12.8)	52 (27.8)	33 (17.6)	11 (5.9)	30 (16.0)	24 (12.8)	13 (7.0)	0 (0.0)
직 업	1차산업종사자	63	5 (7.9)	22 (34.9)	10 (15.9)	2 (3.2)	14 (22.2)	5 (7.9)	4 (6.3)	1 (1.6)
	사무직	112	35 (31.3)	23 (20.5)	21 (18.8)	6 (5.4)	15 (13.4)	2 (1.8)	10 (8.9)	0 (0.0)
	생산직/노무직	54	10 (18.5)	12 (22.2)	10 (18.5)	4 (7.4)	10 (18.5)	5 (9.3)	3 (5.6)	0 (0.0)
	전문직	100	25 (25.0)	17 (17.0)	26 (26.0)	8 (8.0)	9 (9.0)	1 (1.0)	14 (14.0)	0 (0.0)
	자영업	198	21 (10.6)	56 (28.3)	33 (16.7)	12 (6.1)	33 (16.7)	15 (7.6)	28 (14.1)	0 (0.0)
	판매/서비스직	154	30 (19.5)	39 (25.3)	29 (18.8)	12 (7.8)	16 (10.4)	10 (6.5)	18 (11.7)	0 (0.0)
	전업주부	60	1 (1.7)	19 (31.7)	12 (20.0)	10 (16.7)	7 (11.7)	4 (6.7)	7 (11.7)	0 (0.0)
	학생	54	8 (14.8)	11 (20.4)	12 (22.2)	14 (25.9)	4 (7.4)	1 (1.9)	4 (7.4)	0 (0.0)
	은퇴/무직	36	6 (16.7)	6 (16.7)	7 (19.4)	5 (13.9)	2 (5.6)	3 (8.3)	7 (19.4)	0 (0.0)
	기타	26	5 (19.2)	6 (23.1)	6 (23.1)	0 (0.0)	4 (15.4)	0 (0.0)	5 (19.2)	0 (0.0)

〈그림 4-23〉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희망 장소 (1+2순위)



4)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

-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 및 훈련정보 안내(18.8%)와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1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실시(16.8%),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1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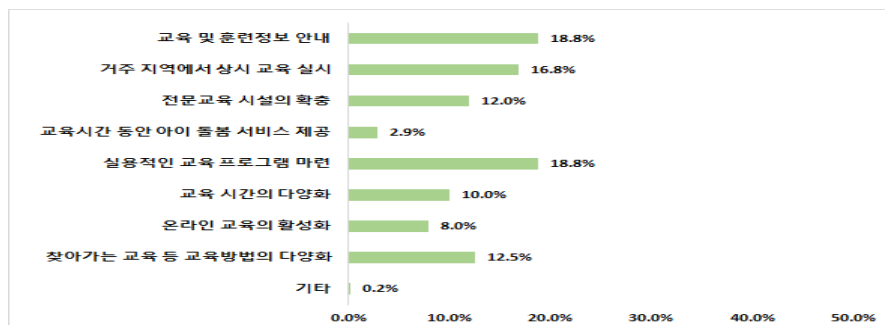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은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여성 17.8%, 남성 15.7%)와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여성 20.1%, 남성 17.4%), 교육시간의 다양화(여성 11.6%, 남성 8.3%)부분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남성은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남성 13.3%, 여성 10.7%)부분에서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연령별로는 교육 및 훈련정보 안내 부분은 50대(23.0%),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항목에서는 20대(22.1%),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 항목에서는 60대 이상(20.7%)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4-42〉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교육 및 훈련정보 안내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	전문교육 시설의 확충	교육시간 동안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교육 시간의 다양화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방법 의 다양화	기타	
전체		858	161 (18.8)	144 (16.8)	103 (12.0)	25 (2.9)	161 (18.8)	86 (10.0)	69 (8.0)	107 (12.5)	2 (0.2)
성 별	여성	438	82 (18.7)	78 (17.8)	47 (10.7)	13 (3.0)	88 (20.1)	51 (11.6)	23 (5.3)	55 (12.6)	1 (0.2)
	남성	420	79 (18.8)	66 (15.7)	56 (13.3)	12 (2.9)	73 (17.4)	35 (8.3)	46 (11.0)	52 (12.4)	1 (0.2)
연 령	20대	140	28 (20.0)	23 (16.4)	10 (7.1)	3 (2.1)	31 (22.1)	18 (12.9)	11 (7.9)	15 (10.7)	1 (0.7)
	30대	148	25 (16.9)	18 (12.2)	25 (16.9)	9 (6.1)	30 (20.3)	16 (10.8)	13 (8.8)	12 (8.1)	0 (0.0)
	40대	178	28 (15.7)	31 (17.4)	23 (12.9)	8 (4.5)	30 (16.9)	13 (7.3)	20 (11.2)	25 (14.0)	0 (0.0)
	50대	204	47 (23.0)	33 (16.2)	21 (10.3)	2 (1.0)	41 (20.1)	22 (10.8)	18 (8.8)	20 (9.8)	0 (0.0)
	60대 이상	188	33 (17.6)	39 (20.7)	24 (12.8)	3 (1.6)	29 (15.4)	17 (9.0)	7 (3.7)	35 (18.6)	1 (0.5)

〈그림 4-24〉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 (1+2순위)



5) 재난 재해 대피소 위치 인지 여부

○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2%로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27.1%)이 여성(21.5%)보다 대피소 위치 인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문대/대졸(31.3%) 대학원 이상(22.2%), 고졸(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31.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23.3%), 서귀포시 동지역(20.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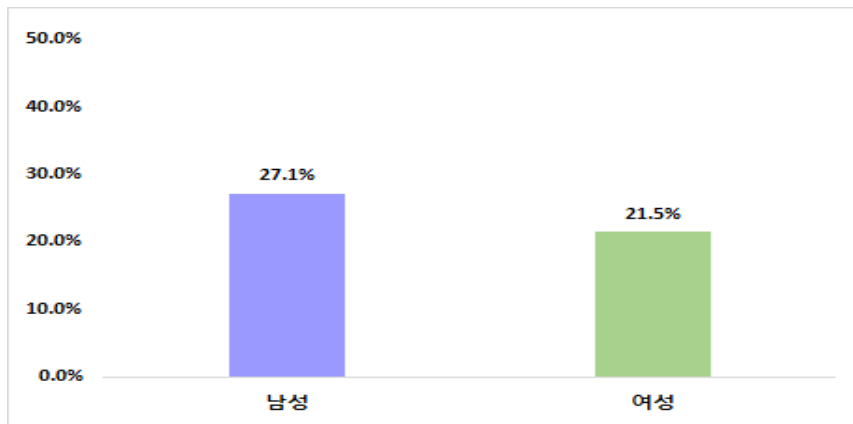
〈표 4-43〉 재난 재해 대피소 위치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안 다		모른다		χ^2
합계			429	104 (24.2)	325 (75.8)		
성별	여성	219	47 (21.5)	172 (78.5)			1.884
	남성	210	57 (27.1)	153 (72.9)			
최종학력	중졸이하	27	4 (14.8)	23 (85.2)			12.237**
	고졸	176	30 (17.0)	146 (83.0)			
	전문대/대졸	217	68 (31.3)	149 (68.7)			
	대학원수료 이상	9	2 (22.2)	7 (77.8)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52 (31.9)	111 (68.1)			11.587**
	제주시 읍면지역	56	6 (10.7)	50 (89.3)			
	서귀포시 동지역	120	25 (20.8)	95 (79.2)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21 (23.3)	69 (76.7)			

* p<0.05, ** p<0.01, *** p<0.001

〈그림 4-25〉 재난 재해 대피소 위치 인지 여부



6)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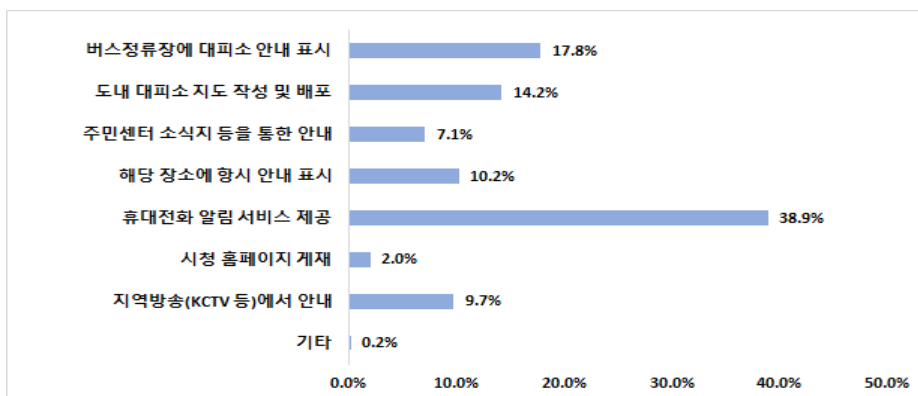
-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 제공(38.9%) 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피소 안내 표시(17.8%), 도내 대피소 지도 작성 및 배포(1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통한 홍보 항목은 40대(44.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피소 안내 및 표시 항목은 60대 이상(20.1%)과 40대(19.8%), 그리고 도내 대피소 지도 작성 및 배포 항목은 30대(23.4%)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됨

〈표 4-44〉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버스정류장에 대피소 안내 표시	도내 대피소 지도 작성 및 배포	주민센터 소식지 등을 통한 안내	해당 장소에 향시 안내표시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 제공	시청 홈페이지 게재	지역방송 (KCTV 등)에서 안내	기타	
합계	650	116 (17.8)	92 (14.2)	46 (7.1)	66 (10.2)	253 (38.9)	13 (2.0)	63 (9.7)	1 (0.2)	
성별	여성	344	65 (18.9)	40 (11.6)	27 (7.8)	31 (9.0)	134 (39.0)	9 (2.6)	37 (10.8)	1 (0.3)
	남성	306	51 (16.7)	52 (17.0)	19 (6.2)	35 (11.4)	119 (38.9)	4 (1.3)	26 (8.5)	0 (0.0)
연령	20대	112	21 (18.8)	17 (15.2)	5 (4.5)	13 (11.6)	43 (38.4)	2 (1.8)	11 (9.8)	0 (0.0)
	30대	124	23 (18.5)	29 (23.4)	4 (3.2)	10 (8.1)	47 (37.9)	4 (3.2)	7 (5.6)	0 (0.0)
	40대	126	25 (19.8)	19 (15.1)	13 (10.3)	11 (8.7)	46 (36.5)	5 (4.0)	7 (5.6)	0 (0.0)
	50대	154	20 (13.0)	18 (11.7)	12 (7.8)	16 (10.4)	68 (44.2)	1 (0.6)	19 (12.3)	0 (0.0)
	60대 이상	134	27 (20.1)	9 (6.7)	12 (9.0)	16 (11.9)	49 (36.6)	1 (0.7)	19 (14.2)	1 (0.7)

〈그림 4-26〉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 (1+2순위)



7)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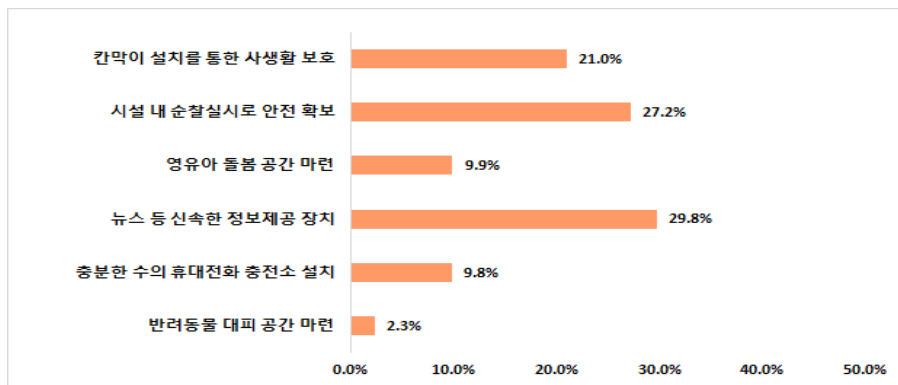
-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뉴스 등 신속한 정보제공 장치(29.8%), 시설 내 순찰 실시로 안전 확보(27.2%), 칸막이 설치를 통한 사생활 보호(2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연령별로는 칸막이 설치를 통한 사생활 보호 항목에서는 30대(25.0%), 시설 내 순찰실시로 안전 확보(30.0%) 항목은 40대, 뉴스 등 신속한 정보제공 장치 항목은 50대(32.8%)와 60대 이상(32.4%)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영유아 돌봄 공간 마련 항목은 30대(16.9%), 충분한 수의 휴대전화 충전소 설치 20대(15.7%)와 30대(10.8%)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여 세대별 특징이 드러남

〈표 4-45〉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칸막이 설치를 통한 사생활 보호	시설 내 순찰실시로 안전 확보	영유아 돌봄 공간 마련	뉴스 등 신속한 정보제공 장치	충분한 수의 휴대전화 충전소 설치	반려동물 대피 공간 마련
합계		858	180 (21.0)	233 (27.2)	85 (9.9)	256 (29.8)	84 (9.8)
성별	여성	438	89 (20.3)	117 (26.7)	45 (10.3)	129 (29.5)	43 (9.8)
	남성	420	91 (21.7)	116 (27.6)	40 (9.5)	127 (30.2)	41 (9.8)
연령	20대	140	26 (18.6)	39 (27.9)	9 (6.4)	40 (28.6)	22 (15.7)
	30대	148	37 (25.0)	31 (20.9)	25 (16.9)	35 (23.6)	16 (10.8)
	40대	178	33 (18.5)	54 (30.3)	20 (11.2)	53 (29.8)	13 (7.3)
	50대	204	46 (22.5)	55 (27.0)	15 (7.4)	67 (32.8)	19 (9.3)
	60대 이상	188	38 (20.2)	54 (28.7)	16 (8.5)	61 (32.4)	14 (7.4)

〈그림 4-27〉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8)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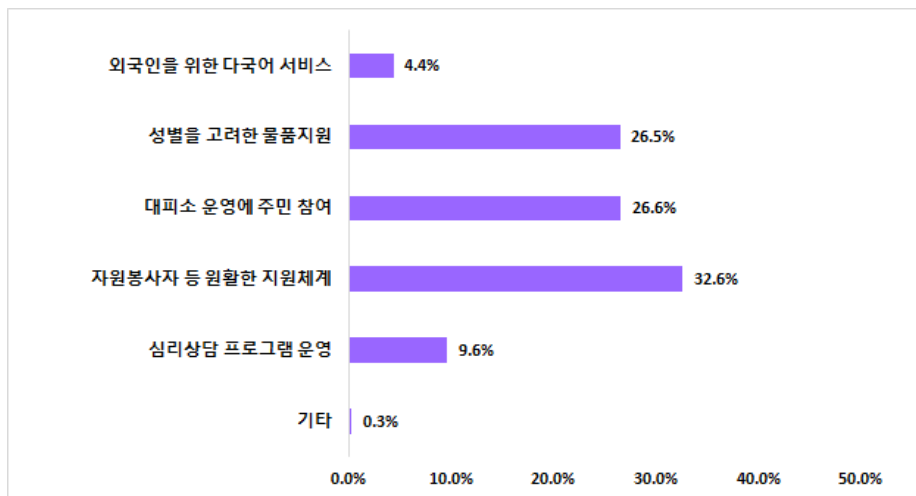
-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지원체계 (32.6%), 성별을 고려한 물품 지원(26.5%), 대피소 운영에 주민 참여(2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자원봉사자 등 원활한 지원체계에서 남성(35.7%)이 여성(29.7%)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별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표 4-46〉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성별을 고려한 물품지원	대피소 운영에 주민 참여	자원봉사자 등 원활한 지원체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타	
합계		858	38 (4.4)	227 (26.5)	228 (26.6)	280 (32.6)	82 (9.6)	3 (0.3)
성별	여성	438	26 (5.9)	116 (26.5)	121 (27.6)	130 (29.7)	42 (9.6)	3 (0.7)
	남성	420	12 (2.9)	111 (26.4)	107 (25.5)	150 (35.7)	40 (9.5)	0 (0.0)

〈그림 4-28〉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 고려사항 (1+2순위)



9) 안전체험과 인지도 및 만족도

□ 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인지 여부

○ 제주지역에 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에 불과함

- 성별 인지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23.3%)이 남성(21.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0대(31.4%)와 40대(30.3%)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재난취약자와 동거하는지에 따른 집단적 차이에서는 재난취약자 동거 집단(20.1%)이 재난취약자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17.0%)보다 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주목할 점은 출신지역별 인지도 분석 결과 결혼이주자 집단(0.0%)에서는 단 한 사람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을 알지 못한다고 조사됨

〈표 4-47〉 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안 다		모른다		χ ²
합계		429	95	(22.1)	334	(77.9)	
성별	여성	219	51	(23.3)	168	(76.7)	.339
	남성	210	44	(21.0)	166	(79.0)	
연령	20대	70	4	(5.7)	66	(94.3)	20.566***
	30대	74	13	(17.6)	61	(82.4)	
	40대	89	27	(30.3)	62	(69.7)	
	50대	102	32	(31.4)	70	(68.6)	
	60대 이상	94	19	(20.2)	75	(79.8)	
재난취약자 동거유무	있음	182	53	(29.1)	129	(70.9)	8.923**
	없음	247	42	(17.0)	205	(83.0)	
출신지역	제주	367	91	(24.8)	276	(75.2)	11.119**
	제주 외 국내	41	4	(9.8)	37	(90.2)	
	결혼이주자	21	0	(0.0)	21	(100.0)	

* p<0.05, ** p<0.01, *** p<0.001

□ 안전체험관 이용 경험 여부

○ 안전체험관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4%로 매우 적은 비율로 조사됨

-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남성(7.1%)이 여성(3.7%)에 비해 이용 경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주시 동지역(9.2%)이 안전체험관 이용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48〉 안전체험관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χ^2
합계		429	23 (5.4)		406 (94.6)		
성별	여성	219	8 (3.7)		211 (96.3)		2.573
	남성	210	15 (7.1)		195 (92.9)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3	15 (9.2)		148 (90.8)		7.814
	제주시 읍면지역	56	2 (3.6)		54 (96.4)		
	서귀포시 동지역	120	4 (3.3)		116 (96.7)		
	서귀포시 읍면지역	90	2 (2.2)		88 (97.8)		

* p<0.05, ** p<0.01, *** p<0.001

□ 안전체험관 이용 만족도

- 안전체험관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73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정도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평균 4.00점)이 남성(평균 3.57점)에 비해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20대(평균 4.00점)와 30대(평균 4.00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49〉 안전체험관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점)	t/F
전체		22	0 (0.0)	1 (4.5)	8 (36.4)	9 (40.9)	4 (18.2)	3.73
성별	여성	8	0 (0.0)	0 (0.0)	3 (37.5)	2 (25.0)	3 (37.5)	4.00
	남성	14	0 (0.0)	1 (7.1)	5 (35.7)	7 (50.0)	1 (7.1)	3.57
연령	20대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4.00
	30대	5	0 (0.0)	0 (0.0)	1 (20.0)	3 (60.0)	1 (20.0)	4.00
	40대	8	0 (0.0)	1 (12.5)	4 (50.0)	1 (12.5)	2 (25.0)	3.50
	50대	2	0 (0.0)	0 (0.0)	1 (50.0)	1 (50.0)	0 (0.0)	3.50
	60대 이상	6	0 (0.0)	0 (0.0)	2 (33.3)	3 (50.0)	1 (16.7)	3.83

10)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 방안

-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4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체험교육 참여 인센티브 확대(19.6%)와 지속적인 도민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19.1%)이 다음으로 높게 조사됨
- 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안전체험관 홍보강화 항목에서 20대(64.3%)와 30대(52.7%)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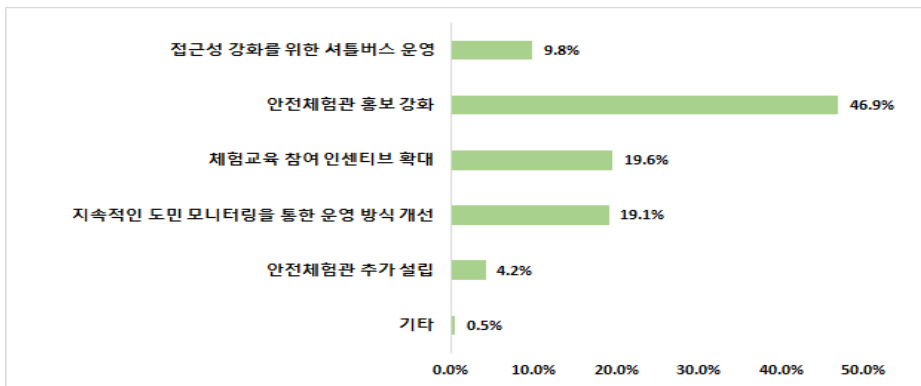
〈표 4-50〉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 방안

(단위 : 명, %)

구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	체험교육 참여 인센티브 확대	지속적인 도민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안전체험관 추가 설립	기타	χ ²
성 별	합계	429	42 (9.8)	201 (46.9)	84 (19.6)	82 (19.1)	18 (4.2)	2 (0.5)
	여성	219	21 (9.6)	107 (48.9)	39 (17.8)	42 (19.2)	8 (3.7)	2 (0.9)
	남성	210	21 (10.0)	94 (44.8)	45 (21.4)	40 (19.0)	10 (4.8)	0 (0.0)
연 령	20대	70	3 (4.3)	45 (64.3)	12 (17.1)	9 (12.9)	1 (1.4)	0 (0.0)
	30대	74	5 (6.8)	39 (52.7)	19 (25.7)	8 (10.8)	2 (2.7)	1 (1.4)
	40대	89	6 (6.7)	39 (43.8)	20 (22.5)	22 (24.7)	2 (2.2)	0 (0.0)
	50대	102	14 (13.7)	42 (41.2)	19 (18.6)	20 (19.6)	6 (5.9)	1 (1.0)
	60대 이상	94	14 (14.9)	36 (38.3)	14 (14.9)	23 (24.5)	7 (7.4)	0 (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29〉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 방안



11) 안전 환경 조성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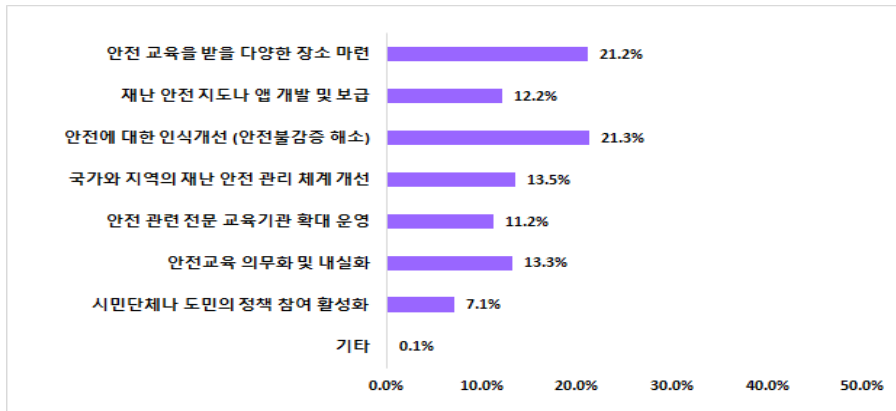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21.3%),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21.2%),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13.5%), 안전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1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남성 23.1%, 여성 19.6%)과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남성 16.4%, 여성 10.7%)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여성 23.7%, 남성 18.6%) 부분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인식과 제도개선은 남성이, 교육기회 관련 정책은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별로는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항목에서는 60대 이상(25.5%), 20대(22.9%), 50대(2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 항목에서는 40대(23.0%), 50대(23.0%), 20대(22.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1〉 안전 환경 조성 정책 방향(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	재난 안전 지도나 앱 개발 및 보급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안전불감증 해소)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개선	안전 관련 전문 교육 기관 확대 운영	안전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시민단체나 도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기타	
합계		858	182 (21.2)	105 (12.2)	183 (21.3)	116 (13.5)	96 (11.2)	114 (13.3)	61 (7.1)	1 (0.1)
성별	여성	438	104 (23.7)	52 (11.9)	86 (19.6)	47 (10.7)	53 (12.1)	59 (13.5)	36 (8.2)	1 (0.2)
	남성	420	78 (18.6)	53 (12.6)	97 (23.1)	69 (16.4)	43 (10.2)	55 (13.1)	25 (6.0)	0 (0.0)
연령	20대	140	32 (22.9)	24 (17.1)	32 (22.9)	15 (10.7)	12 (8.6)	18 (12.9)	7 (5.0)	0 (0.0)
	30대	148	23 (15.5)	24 (16.2)	25 (16.9)	16 (10.8)	24 (16.2)	26 (17.6)	10 (6.8)	0 (0.0)
	40대	178	41 (23.0)	26 (14.6)	32 (18.0)	25 (14.0)	20 (11.2)	22 (12.4)	11 (6.2)	1 (0.6)
	50대	204	47 (23.0)	19 (9.3)	46 (22.5)	32 (15.7)	18 (8.8)	27 (13.2)	15 (7.4)	0 (0.0)
	60대 이상	188	39 (20.7)	12 (6.4)	48 (25.5)	28 (14.9)	22 (11.7)	21 (11.2)	18 (9.6)	0 (0.0)

〈그림 4-30〉 안전 환경 조성 정책 방향(1+2순위)



12) 안전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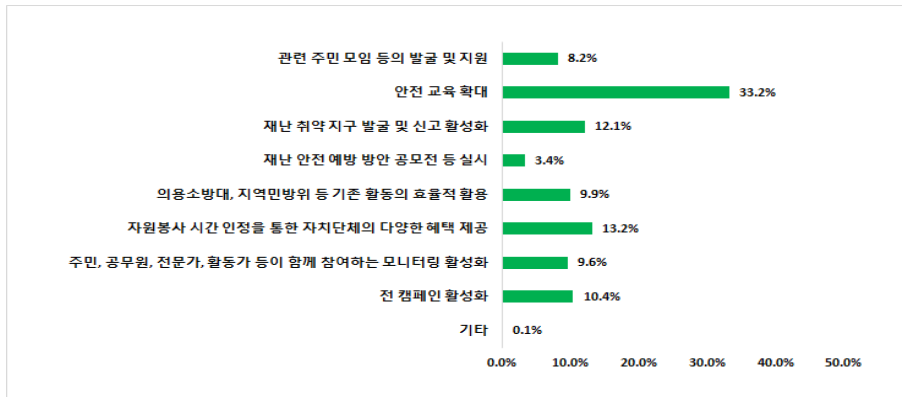
- 안전 분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 교육 확대(33.2%),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혜택 제공(13.2%), 재난 취약 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1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안전교육 확대(여성 34.2%, 남성 32.1%) 부분에서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의용소방대·지역민방위 등 기존 활동의 효율적 활용(남성 11.2%, 여성 8.7%)과 주민·공무원·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성화(남성 10.5%, 여성 8.7%)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4-52〉 안전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1+2순위)

(단위 : 명, %)

구분		관련 주민 모임 등의 발굴 및 지원	안전 교육 확대	재난 취약 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	재난 안전 예방 방안 공모전 등 실시	의용소방 대지역민 방위 등 기존 활동의 효율적 활용	자원봉사시 간 인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혜택 제공	주민,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성화	전 캠페인 활성화	기타	
합계		858	70 (8.2)	285 (33.2)	104 (12.1)	29 (3.4)	85 (9.9)	113 (13.2)	82 (9.6)	89 (10.4)	1 (0.1)
성 별	여성	438	38 (8.7)	150 (34.2)	56 (12.8)	12 (2.7)	38 (8.7)	56 (12.8)	38 (8.7)	49 (11.2)	1 (0.2)
	남성	420	32 (7.6)	135 (32.1)	48 (11.4)	17 (4.0)	47 (11.2)	57 (13.6)	44 (10.5)	40 (9.5)	0 (0.0)

〈그림 4-31〉 안전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1+2순위)



3. 소결

□ 안전 인식 및 재난 피해 가능성

- 가장 관심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염병·질병·환경오염(37.1%), 자연재해(수해, 태풍, 가뭄, 폭염, 황사 등 24.7%)와 교통사고(24.0%)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최근 코로나의 영향과 자연재해에 민감한 지역적 특성의 영향으로 풀이됨
- 최근 1년 이내 자연재해(19.6%)와 사회재난 위험 경험(21.2%)을 한 비율은 약 20% 정도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 지역(32.1%)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험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재난피해의 원인에 대한 응답(1순위+2순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28.7%), ‘안전 및 예방 교육의 부족’(24.5%), ‘개인의 대처 능력 부족’(1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안전 및 예방교육의 부족’(25.8%),이 남성(23.1%)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31.9%)가 여성(25.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5점 척도 조사 결과 전염병·질병·환경오염(평균 3.59)과 교통사고(평균 3.44)로 높게 나타났고 태풍·집중호우·대설(평균 3.34), 가뭄·폭염·황사(평균 3.15), 화재·가스폭발·지반 침하(평균 3.02)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풍랑·해일(평균 2.63)과 건물·시설물 붕괴(평균 2.65)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안전교육훈련 및 활동 경험

-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25.6%가 경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한 안전교육 분야는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26.8%), 소방안전 교육(25.0%), 재난 재해 및 사회재난대응 요령(20.9%)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 부족(22.3%), 생계 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0.8%), 지역에서 교육기회 없음(16.5%)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부족(24.1%),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17.8%), 생계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17.5%)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생계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4.5%), 교육 실시에 대한 정보 부족(20.3%),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15.0%)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정보부족, 남성은 생계활동이 안전 교육수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 안전장비 사용법 :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96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평균 3.26)이 여성(평균 2.68)보다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2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2.44)이 여성(평균 2.01)보다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4점 척도 기준 평균 2.43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2.73)이 여성(평균 2.13)보다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68이고, 남성(평균 2.93)이 여성(평균 2.44)에 비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2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2.43)이 여성(평균 2.02)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TV·신문 등 대중매체(28.2%)를 통한 학습, 직장(16.8%), 학교(1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TV·신문(31.3%), 직장(17.9%), 학교(17.6%), 안전체험관(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TV·신문(25.8%), 군대·예비군·민방위 훈련(24.3%), 직장(15.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을 통한 학습경험은 여성(14.7%)이 남성(7.8%)보다 높게 나타나 안전관련 기관의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난대응 능력 : 성별 차이 뚜렷함

-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3.37점)이 여성(평균 3.06점)에 비해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생존수영 수행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78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성(평균 3.23점)이 여성(평균 2.35점)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 응급처치 가능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88점을 나타냈고, 남성(평균 3.11점)이 여성(평균 2.65점)에 비해 응급처치 가능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위기대처 능력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89점으로 조사되었고, 남성(평균 3.10점)이 여성(평균 2.68점)에 비해 위기대처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생활공간 내 비상구나 화재경보기·소화전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고, 남성(평균 3.48점)이 여성(평균 3.22점)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응급처치 및 비상물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23점이고, 남성(평균 2.27점)이 여성(평균 2.19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재난대응의 성별차이 원인

- 재난대응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성별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나타났고 성별로 재난대응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체적으로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능력부족(34.8%), 남녀의 근력차이(32.9%), 여성의 신체적 활동제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13.8%)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능력차이'에 관한 항목에서는 여성(36.6%)이 남성(33.3%)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녀의 근력차이'에 항목에서는 남성(33.8%)이 여성(31.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차이를 남성은 타고난 차이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교육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재난대응 및 정책수요

○ 재난 대비 정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의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4점 척도 기준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고 참여할 예정(60.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에서 필요한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피난 및 대피훈련(30.2%), 상처 등 응급처치 훈련(20.2%), 기구 등을 사용한 응급 구조 훈련(1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장소로 희망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동 단위 주민센터(24.6%), 전문 교육기관(19.4%), 각 직장 단위(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동 단위 주민센터(여성 24.9%, 남성 24.3%)와 각종 지역사회 복지관 및 수련관(여성 14.4%, 남성 12.2%)에서 교육받기를 남성에 비해 더 희망하는 반면, 남성은 각 직장단위(남성 18.4%, 여성 15.8%), 온라인 교육(남성 14.6%, 여성 8.9%)을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 및 훈련정보 안내(18.8%)와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1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16.8%),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1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여성 17.8%, 남성 15.7%)와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여성 20.1%, 남성 17.4%), 교육시간의 다양화(여성 11.6%, 남성 8.3%)부분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남성은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남성 13.3%, 여성

10.7%)부분에서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2%로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27.1%)이 여성(21.5%)보다 대피소 위치 인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 제공(38.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피소 안내 표시(17.8%), 도내 대피소 지도 작성 및 배포(1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뉴스 등 신속한 정보제공 장치(29.8%), 시설 내 순찰 실시로 안전 확보(27.2%), 칸막이 설치를 통한 사생활 보호(2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지원체계(32.6%), 성별을 고려한 물품 지원(26.5%), 대피소 운영에 주민 참여(2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에 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에 불과함

- 성별 인지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23.3%)이 남성(21.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안전체험관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4%로 매우 적은 비율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7.1%)이 여성(3.7%)에 비해 이용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4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체험교육 참여 인센티브 확대(19.6%)와 지속적인 도민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19.1%)이 다음으로 높게 조사됨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21.3%),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21.2%),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13.5%), 안전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1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남성 23.1%, 여성 19.6%)과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남성 16.4%, 여성 10.7%)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여성 23.7%, 남성 18.6%) 부분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인식과 제도개선은 남성이, 교육기회 관련 정책은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음

○ 안전 분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 교육 확대(33.2%),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혜택 제공(13.2%), 재난 취약 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1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안전교육 확대(여성 34.2%, 남성 32.1%) 부분에서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의용소방대·지역민방위 등 기존 활동의 효율적 활용(남성 11.2%, 여성 8.7%)과 주민·공무원·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성화(남성 10.5%, 여성 8.7%)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제 5 장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집단면접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1. 전문가 집단면접 조사개요

- 제주지역의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현황 파악 및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 안전 활동가는 지역자율방재단 6명과 의용소방대 9명으로 구성하였고 의용소방대 구성원 중에는 안전관련 전문 강사 4명이 포함됨
-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제주지역 소방안전본부와 재난대응과의 추천을 받아 여성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가로 구성하였음.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단의 간부를 중심으로 선정함
- 전문가 면접조사의 참여자의 연령은 50대와 60대이고 활동 경력은 최소 5년 이상이었음
- 구체적인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5-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소속 및 직위	연령대	경력(년)
사례 1	지역자율방재단 간부	50대	15
사례2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60대	7
사례3	지역자율방재단 간부	50대	5
사례4	제주직할여성의용소방대 간부	60대	19
사례5	서귀00여성의용소방대 간부	50대	9
사례6	서부00여성의용소방대 간부	50대	17
사례7	동부00여성의용소방대 간부	50대	19
사례8	제주직할여성의용소방대 대원	50대	13
사례9	서귀00여성의용소방대 간부	50대	16
사례10	서부00여성의용소방대 간부	50대	15
사례11	동부00여성의용소방대 간부	50대	10
사례12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간부	50대	9
사례13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간부	50대	6

사례	소속 및 직위	연령대	경력(년)
사례14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간부	60대	16
사례15	서부00여성의용소방대 대원	50대	6

- 조사내용은 재난 안전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참여과정, 주요 참여 활동, 지역 안전을 위한 여성 활동가로서의 의미, 성인지 관점의 안전 활동의 문제점, 정책적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2〉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

구분	세부내용
안전 활동 참여 과정	· 활동 참여 계기 및 배경 · 교육 및 자격 취득 과정
주요 안전 활동	· 자연 재난 발생 시 주요 활동 · 화재 발생 시 주요 활동 · 재난대비 예방 및 점검 활동
단체 활동의 의미 및 한계	· 봉사활동의 의미 및 한계 · 여성 활동가의 한계 · 조직 및 활동영역에서의 성별분리
성인지 관점의 개선점	·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의 어려움 · 조직문화와 단체활동에서의 성별차이 · 기타 성인지 관점의 개선점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2. 조사결과

가.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과정

- 1) 안전 활동 참여 계기 : 지인의 소개, 부녀회 활동의 연장

- 안전 활동 참여자들의 단체 가입 계기는 안전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 참여했다기보다는 지인의 권유나 부녀회 활동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소수는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스스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어 사회적 지지기반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음

- 지인의 소개로 총무를 맡아달라고 해서 자율방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고 가입했으나, 재난 관련 교육을 받으며 지역에 봉사할 수 있어 나름 자부심을 느낌
- ‘나리’ 태풍 당시 살고 있는 지역이 도로와 주택 침수로 복구 작업과 봉사활동에 참여가 계기가 됨
-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재난대응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사고, 재난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됨
-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없어 부녀회에 지원, 부녀회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용소방대 가입
- 재난 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원들 모습을 보고 지원하게 됨

- 참여자들은 재난대응 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전에 관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찾고 자부심도 있음

- 지인의 권유로 응급처치나 생활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활동 시작함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를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활동하게 됨
-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활동을 시작함

2) 교육 및 자격취득 과정

- 안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훈련을 마쳤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음
- 재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보람이 있었음

- 안전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 자격증을 취득할 때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3일간 꼭 찬 일정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많은 시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정보 경로를 알 수 없어 어렵지만, 단체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편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음

○ 참여자들이 말하는 안전교육 및 훈련내용 및 취득한 자격증은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자 활동이지만 재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있어 나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전문교육 1년 12시간, 기본교육 2년 36시간으로 정해져 있음. 3년이 지나면 전문 자격증인 ‘소방안전 관리자 2급’, ‘위험물 안전 관리자’,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3일 동안 이수한 후, ‘소방안전관리자’, ‘생활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였음
-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있어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 ‘생활안전’, ‘수학여행 안전도우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함.
- 위험물관리자 교육과 소방안전관리자 2급 교육을 받음
-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지진,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주민대피 요령을 교육 받음
- 태풍, 화재, 지진발생 시 대응·대처법,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비행기사고 시 대피법, 토론훈련 연습, 실행훈련 연습

나. 주요 안전 활동 : 남성대원 보조, 대피안내, 물품정리 등 주변적 역할

○ 직접적 재난 활동 참여

- 참여자들은 태풍이나 화재,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함
- 폭설이 내리면 눈길을 치우거나 염화칼슘을 뿌리고 화재 발생 시 잔불을 정리하고 홍수가 발생하면 양수기 투입이나 배수구 정비 등의 재난대응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함

- 대설주의보 때는 눈길 치우기 및 염화칼슘 뿌리기 등을 수행함
- 화재 시 주변 교통정리, 잔불 정리를 함
- 집중 호우 시 침수지역 양수기를 투입하고, 주요 도로 배수구 및 집수구 정비함

-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장비를 점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정리하거나 복구지원에 참여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태풍 발생 시 물난리로 인한 동네 주민 대피시키기, 교통정리, 복구지원에 참여함
- 소방관들과 함께 위험취약지구 안전 점검, 태풍 때 거리에 쓰러진 나무 치우기, 실종자 수색에 참여함
- 심폐 교육(CPR),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육, 코로나 방역 활동, 소화전 일상 점검
- 해안가/하천 안전선 설치, 낚시객/물놀이객 대피 유도 및 예찰활동 수행함

- 그러나 많은 부분 참여자들의 재난대응 활동은 안전장비나 물품을 정리하거나 소방관을 안내하고 도와주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는 등 주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여름 무더위 쉼터나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활동,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도시락 조리와 배달 등 돌봄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
 - 소방관이나 남성대원들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남성대원들을 안내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화재진압 시 소방 공무원 뒤에서 호스를 끌어주고, 목마른 대원들에게 식수를 제공함, 코로나로 인해 방역 봉사
- 다중이용시설/무더위 쉼터(노인회관)/클린하우스 방역 활동
- 기상예보 시 각 천에 안전띠 설치, 무더위 쉼터 물 나눠주기, 구호물품 제공, 버스정류소 방역 등
- 재난 현장에서 기계사용 시 기계가 작동하면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소방관이나 남성대원들도 여성 대원들이 안내를 함
- 화재 발생하면 주변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물수건 준비하기, 질식자들 병원 운송하기
- 노인 돌봄, 취약 계층 홀어르신 도시락 조리/포장/배부

다. 안전 활동의 의미 및 한계 : 재난대응 자신감,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함

1) 봉사활동의 의미 : 재난대응 자신감, 지역안전에 일조

- 재난대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는 위급한 순간에 남을 도울 수 있고 교육을 하는 등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낌
- 그러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참여자일지라도 일반인보다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스스로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재난 발생 시 당황스럽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행복함
- 전문가라는 자부심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한 명이라도 더 돕고 구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자신감이 있음
- 의용소방대라는 울타리에서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을 갖게 되면서 위급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음
- 남들보다 많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음
- 그래도 많은 교육을 받았고, 보고 와서 큰 두려움은 없어짐
-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활동하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대로 수습을 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

-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활동이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음

- 조그만 힘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낌
- 내 자신과 가족 및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
-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족과 지역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

2) 여성 안전 활동가의 한계 : 체력적 한계, 장비사용 부족

- 참여자들은 여성으로서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체력적인 한계와 장비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함
- 이는 스스로 재난 발생 시 남성 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종 장비 사용 기회가 없고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음

- 교육과 자격증은 취득하였으나 체력의 한계, 전문직 여성으로서 경험부족
- 재난 시 우리는 보조하는 역할, 심폐소생술이나 생활안전에는 전문가지만 인정받지 못함
- 일반인들 보다는 재난대처능력이 있지만 전문직 직업이라 하기는 모자람
- 기동력과 리더십은 있으나 각종 장비에 대한 사용이 미숙하기 때문
-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한계로 느껴짐

라. 성인지 관점의 안전 활동 문제점

1) 교육(훈련) 및 재난대응 활동의 어려움: 적극적 참여 어려움, 남성용 복장 불편

- 재난 안전 활동을 위해서는 어려운 교육과정과 훈련 등 많은 공부와 실전연습이 필요한 전문적 영역이지만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남성보다 적극성이 부족하며 전문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함

- 남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모자라는 아쉬움이 있음
-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었음
-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많은 공부가 필요하며 꾸준히 보고 실습해야 함
-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하루 8시간 교육이 너무 지루함

- 스스로 남성보다 적극성도 부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여성이라서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재난 현장에서 여성 활동가의 현장지휘가 시민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점도 여성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함

- 재난 현장에(서)는 몸으로 부딪히는 경향이 많아서 힘이 좀 부족할 때가 많음
- 육체적인 힘이 필요할 때 체력의 한계를 느낌, 눈 치울 때 낙상 위험
-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할 때 시민 협조(부분)가 부족한 점

- 참여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여성으로서 불편한 점은 활동가를 위한 사무실이 없어 탈의나 소지품을 보관할 공간조차 없는 것, 그리고 비옷이나 장화가 남성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다 보니 몸에 너무 크고 무거운 것임
- 여성 활동가에 대한 장비제공 및 활동 공간 마련이 매우 필요함

- 방재단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활동 후 탈의할 공간이나 개인 소지품 보관함이 없다는 것이 불편함, 폭우에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할 때도 있음
-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옷차림이 문제인 것 같음
- 폭설이나 호우 시 비옷이 너무 커서 활동할 때 불편(여성용으로), 장화 무게도 만만치 않음
-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약점(양수기를 잡는다든지 힘을 쓰는 일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

2) 조직문화와 단체운영의 문제점 : 남성 중심적 운영

- 여성역할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여기며 체력적으로는 남성에 비해 부족하지만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장점도 있어 위험하거나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부분은 남성이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성도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총 단원의 35%가 여성, 참석률이 90%임, 여성역할이 매우 중요함, 운영상 여성단원들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함
- 신체적으로는 여성이 약하지만, 세밀하고 사소한 부분은 여성이 강점이라고 생각함 (캠페인, 모니터링 등)
- 여성의 참여도 높고, 일처리에 있어 월등하다고 생각함

- 남성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인식함. 이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차별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주의 정서상 여성이 남성의 기를 살리기 위해 더 움직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을 여성들이 많이 함. 표면상 재난대응에 있어 준비 활동은 여성들이 하고, 마지막은 남성이 마무리하는 등 '여성은 위험하다', '할 일이 아니다' 등의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

- 예로부터 제주는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여성들이 더 적극적임. (오히려 남성들이 더 안 하려고 함.)
- 제주의 아픈 역사와 지리적 환경 때문에 남성 위주의 생활이어서 차별이 있을 수 있었으나, 현재에 와서 재난 활동 상황에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열성적이고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남성 중심적 단체 운영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여성들이 임원도 맡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

- 활동은 다 같이 하는데 때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대접을 홀대할 때가 간혹 있는 것은 여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함

- 또한 뿌리 깊은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능력과 자질이 있는 여성이 있어도, 단장이나 책임자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함

- 여성들이 너무 옛날 방식에 얽매이는 감도 있음
- 여성이 교육적으로 더욱 지식을 쌓고, 실제로 현장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게 주변의 참여, 독려가 필요함
- 여성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었으면 함.
- 남성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편견만 버리면 여성도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능력을 인정받아 큰 상을 받고, 주요 직책에 오를수록 남자 단원들에게서 느껴지는 질투심(여자가 뭐 한 거 있느냐는 느낌),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순간순간 의견(을) 묵살시키는 점

마. 정책 개선방안

1) 구조과정의 개선방안

- 재난 발생 시 구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장에 서 임산부나 특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강조됨
- 또한 구조현장에서 여성의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배려가 필요한 여성(예: 임산부, 아이들 엄마 등)노약자, 병약자 등 대피시킬 때의 이동 과정에서 안전 위험이 높음, 인명 보호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우선적 보호가 중요함
- 구조 과정에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 방법에서 배려가 필요함

2) 재난안전 교육 참여 활성화

-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활동가와 일반도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함
- 재난과 연계된 단체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 필요함

○ 안전 활동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이론과 VOD교육 중심이었고 현장 중심적인,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함
-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전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 더 쉽게 주변에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면 함

3) 안전 분야 여성 참여 활성화 :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성평등 교육

○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에 여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 안전 활동 분야에 여성 단원들을 보다 더 많이 위촉하여 여성 활동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 분야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함

- 즉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도 필요함
-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소방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도 이루어져야 함

- 여성 인력을 좀 더 뽑아서 정책 결정 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동기 부여를 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함
- 안전총괄과 회의 시 부단장(여성) 참여가 필요함, 여성이 능력과 리더십이 있음에도 단장하기가 어려움, 여성단장을 많이 배출할 필요가 있음

○ 여성 활동가의 교육과 훈련 및 실습을 확대하여 현장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단체 활동 경력과 교육 수료증 및 자격증 부여 등을 통하여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

- 재난 활동에 관한 홍보를 통해서 자질과 기질이 뛰어난 여성들을 많이 배출해야 함
- 여성 활동가들이 교육과 실습, 현장경험이 부족하여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없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치고 있음

4) 기타 정책적 개선방안 : 사무실 및 여성용 물품지원

-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의 여성 활동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재난대응 활동 시 옷을 갈아입거나 소지품을 보관할 탈의실이나 사물함이 없다는 점, 활동가들은 각 주민센터에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아울러 지급되는 비옷이나 안전화가 방수가 잘 되지 않아 몇 시간을 젖은 상태로 대기하거나 활동하는 어려움이 있고 옷과 장화 등이 여성용이 따로 없어 크고 무거워서 불편함

- 각 동(주민센터)에 방재단만의 공간이 없다 보니, 탈의할 수가 없어 불편함. 여성활동가를 위한 주민센터 내 탈의실 및 사물함 비치 필요함
- 비옷, 안전화의 경우 방수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 방재단에게 지급되는 옷과 장비의 품질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옷 치수가 여성과 남성 구별 없이 같은 사이즈여서 (옷이 커서) 불편한 점이 있음.

- 여성 활동가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20,000원으로 되어 있는 예찰활동비의 인상 및 회의수당 지급과 더불어 차량이용 시 주차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의 제공도 고려할 만함

-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필요한 물품지원이 필요함

- 안전하게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기와 같은 안전장비와 의약품품을 비롯하여 생리대 등 여성용품의 비치도 있어야 함

- 예찰 시 전기충격기, 의약품품이 비치되었으면 좋겠음
- 선크림, 생리대 등 여성용품 비치 필요함
-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혜택을 주었으면 함 (주차비, 공연, 차량 유류비 등)

3. 소결

□ 여성의 안전 활동 참여 과정

- 안전 활동 참여자들은 활동 계기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나 전문적 능력향상을 위한다기보다는 봉사활동의 연장으로 부녀회 활동 등 사람을 많이 사귀고 자신의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재난대응 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의미와 자부심도 있음

□ 주요 활동 : 남성대원 보조, 대피안내, 물품정리 등 주변적 역할

- 참여자들은 폭설이 내리면 눈길을 치우거나 화재 발생 시 잔불을 정리하고 홍수가 발생하면 양수기 투입이나 배수구 정비 등의 재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장비를 점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정리하거나 복구지원에 참여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활동도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부분 안전장비나 물품 정리, 소방관 안내와 보조,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배급 등 주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단체 활동의 의미 및 한계 : 재난대응 자신감,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함

- 재난대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는 위급한 순간에 남을 도울 수 있고 교육을 하는 등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지만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은 부족함
- 여성으로서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체력적인 한계와 재난 발생 시 남성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종 장비 사용 기회가 없고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음

□ 성인지 관점의 안전 활동 문제점

- 재난 안전 활동을 위해서는 어려운 교육과정과 훈련 등 많은 공부와 실전연습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남성보다 적극성이 부족하며 전문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함
- 여성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점은 활동가를 위한 사무실이 없어 탈의나 소지품을 보관할 공간조차 없고, 비옷이나 장화가 남성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 하다 보니 몸에 너무 크고 무거워 활동이 불편함
- 단체의 조직구성이나 주요 활동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하여 여성 활동가의 입장은 체력적으로는 남성에 비해 부족하지만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장점도 있어 여성도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남성 활동가 중심의 조직 운영은 여성이 남성의 기를 살리기 위해 더 움직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지역의 특성과 정서가 작용함
 - 남성 중심적 단체 운영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여성들이 임원도 맡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성역할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도 필요함

□ 정책적 개선방안

- 재난 발생 시 구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임신부나 특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에 대하여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현장에서 여성의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안전 교육 및 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 필요함
- 각종 재난, 범죄 등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안전 활동 분야에 여성 단원들을 보다 더 많이 위촉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도 필요함
 -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소방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도 이루어져야 함

- 여성 활동가의 교육과 훈련 및 실습을 확대하여 현장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의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탈의실이나 사무실 등 공간 마련, 자율봉사활동가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여성용 안전 장비 구입 및 배급도 필요함
 - 여성 활동가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이나 회의수당 인상 및 지급, 주차 및 유류비 지원 등 혜택제공도 고려할만함
 - 여성 활동가들이 안전하게 예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기와 같은 안전 장비와 의약품품을 비롯하여 생리대 등 여성용품의 지원도 필요함

제 6 장

성인지적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안
3. 향후 과제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관심 있는 안전 분야는 전염병·질병·환경오염, 재난위험 경험은 지역별 차이 있음

○ 안전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관심 있는 안전 분야는 전염병·질병·환경오염, 자연재해,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도 전염병·질병·환경오염(5점 척도 평균 3.59)과 교통사고(평균 3.44)로 높게 나타났고 태풍·집중호우·대설(평균 3.34), 가뭄·폭염·황사(평균 3.15)순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1년 이내 자연재해(19.6%)와 사회재난 위험 경험(21.2%)을 한 비율은 약 20% 정도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 지역(32.1%)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험비율이 모두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최근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별로 안전 인식 및 위험 경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 뿐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의 안전인식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함

□ 재난피해 원인이나 안전 교육 미 참여 원인은 성별 차이 있음

○ 재난피해의 원인에 대한 응답(1순위+2순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28.7%), '안전 및 예방 교육의 부족'(24.5%), '개인의 대처 능력 부족'(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안전 및 예방교육의 부족'(25.8%), 남성(23.1%)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31.9%)가 여성(25.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여성이 재난피해의 원인을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참여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안전교육 분야는 심폐소생술(26.8%), 소방안전 교육(25.0%), 재난 재해 및 사회재난대응 요령(20.9%)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 부족(22.3%), 생계 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0.8%), 지역에서 교육기회 없음(1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부족(24.1%),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17.8%), 생

계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17.5%)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생계활동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24.5%), 교육 실시에 대한 정보 부족(20.3%), 지역에서 교육 기회 없음(15.0%)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정보부족, 남성은 생계활동이 안전 교육 수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 여성과 남성의 생활공간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함

□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능력에 성별 차이 뚜렷함

- 각종 안전장비 사용법에 대한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소화기사용법 (여성 64.0%, 남성 89.6%), 완강기 사용법 (여성 25.6%, 남성 41.4%), 소화전 사용법 (여성 31.1%, 남성 57.7%), 심폐소생술 (여성 51.6%, 남성 73.3%), 심장충격기 사용법 (여성 24.2%, 남성 44.7%) 등 모든 항목에서 안전장비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 안전장비 사용법에 있어 성별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어 여성의 안전장비 사용법 인지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교육 참여 확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난대응 능력의 성별차이 뚜렷함

- 모든 영역의 재난대응 능력에서 성별차이가 드러나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조사됨
 - 영역별 재난대응 능력 정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부분(능력 있음 혹은 인지하고 있음)만 분석한 결과 대피방법(여성 35.2%, 남성 42.9%), 생존수영(여성 20.5%, 남성 45.2%), 응급처치(여성 17.3%, 남성 33.3%), 생활공간 내 비상구·화재경보기·소화전 위치(여성 43.4%, 남성 47.6%), 식량·식수·응급처치 등 비상물품 준비(여성 8.2%, 남성 10.5%)로 각각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임
 - 다만 생활공간 내 비상구·화재경보기·소화전 위치(여성 43.4%, 남성 47.6%)나 식량·식수·응급처치 등 비상물품 준비(여성 8.2%, 남성 10.5%)와 같이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는 성별격차가 적게 나타나 여성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성별차이에 대한 원인 : 교육기회 및 장소

- 앞서 서술한 대로 안전장비 사용과 재난대응 능력에 있어 여성인 남성보다 낮게 조사되어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재난대응에 성별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교육기회 부재로 인한 능력부족(34.8%), 남녀의 근력차이(32.9%), 여성의 신체적 활동제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13.8%)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로 다른 생활공간과 활용영역이 안전교육의 참여기회의 차이로 연결되며 이는 재난대응 능력의 차이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음
 -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을 배운 장소는 여성은 TV·신문 등 대중매체(31.3%), 직장(17.9%), 학교(17.6%), 안전체험관(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TV·신문(25.8%), 군대·예비군·민방위 훈련(24.3%), 직장(15.9%)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성의 군대·예비군·민방위 훈련 및 직장을 통한 안전교육 기회의 차이가 성별 재난대응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됨
-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장소로 희망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동 단위 주민센터(24.6%), 전문 교육기관(19.4%), 각 직장 단위(17.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 및 훈련정보 안내(18.8%)와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1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실시(16.8%),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12.5%)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홍보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피소 설치 및 운영방안 :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확대, 성별을 고려한 설치 및 운영

-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2%로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27.1%)이 여성(21.5%)보다 대피소 위치 인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대피소 위치 홍보 방안은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 제공(38.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피소 안내 표시(17.8%), 도내 대피소 지도 작성 및 배포(14.2%)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피소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뉴스 등 신속한 정보제공 장치(29.8%), 시설 내 순찰 실시로 안전 확보(27.2%), 칸막이 설치를 통한 사생활 보호(21.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피소 운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지원체계(32.6%), 성별을 고려한 물품 지원(26.5%), 대피소 운영에 주민 참여(26.6%) 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피소 설치 시에는 신속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운영방식은 성별을 고려한 지원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방안 : 인지도 낮아 참여 및 홍보 확대 필요

- 제주지역에 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 사실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전체 응답자의 22%에 불과하고 안전체험관의 이용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체험관이 개관한지 불과 1년 정도(2020년 11월 개관)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면대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4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체험교육 참여 인센티브 확대(19.6%)와 지속적인 도민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19.1%)이 다음으로 높게 조사됨
 - 안전체험관이 향후 중요한 안전교육 및 훈련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예비군·민방위 훈련이나 직장 등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전업주부 등 공적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도민들을 위한 홍보 및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안전 환경조성 정책방향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안전인식 개선, 교육확대 필요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21.3%),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21.2%),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13.5%), 안전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1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남성 23.1%, 여성 19.6%)과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선(남성 16.4%, 여성 10.7%)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여성 23.7%, 남성 18.6%) 부분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인식과 제도개선은 남성이, 교육기회의 확대와 내실화는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함

- 안전 분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 교육 확대(33.2%),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혜택 제공(13.2%), 재난 취약 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12.1%) 순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의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안전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혜택 제공하여 참여를 활성화하며, 재난 취약 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여성 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 : 역량 강화 및 지원, 성평등 인식

- 재난 발생 시 구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임산부나 특히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현장에서 여성의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안전 교육 및 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 필요함
- 각종 재난, 범죄 등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안전 활동 분야에 여성 단원들을 보다 더 많이 위촉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도 필요함
 -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소방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도 이루어져야 함
- 여성 활동가의 교육과 훈련 및 실습을 확대하여 현장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의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탈의실이나 사무실 등 공간 마련, 자율봉사활동가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여성용 안전 장비 구입 및 배급도 필요함
 - 여성 활동가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이나 회의수당 인상 및 지급, 주차 및 유류비 지원 등 혜택제공도 고려할만함
 - 여성 활동가들이 안전하게 예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기와 같은 안전 장비와 의약품품을 비롯하여 생리대 등 여성용품의 지원도 필요함

2. 정책제안

가. 안전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1)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

□ 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취약계층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5조 지원 대상에 명시된 안전취약계층은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으로 명시되어 있어 임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여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
- 지원 대상에 임산부나 아이동반 보호자를 추가

〈표 6-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개정안

구분	현재	개정안
제 5조 (지원 대상)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임산부나 아이동반 보호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목적 및 필요성

- 재난안전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주요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관련 내용은 제 6장 보칙에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언급되어 있을 뿐 도민들을 위한 적극적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 안전교육 사업은 「국민안전진흥기본법」 제6조 안전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1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4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안전교육 및 진흥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도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정책강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 조례제정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 교육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실태조사 실시할 때 성별분리통계 및 분석의 의무를 포함
- 교육실시 : 도민대상 안전교육 실시에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재난약자 고려하는 계획 수립
- 교육내용, 강사의 자격 및 역량강화, 교육홍보
- 위원회 성별균형 고려하여 구성

나. 안전교육 및 훈련에 여성 참여 확대

1)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재난대처능력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발견됨
 - 소화기 사용, 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여성이 남성보다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
- 이는 여성과 남성의 안전교육 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 남성은 전체 94.2% 안전장비 및 훈련 경험(군대와 민방위 훈련(34.3%), 직장(20.7%), 여성은 전체 약 72.1%만이 경험 있음(직장 25.3%, 학교 25.9%, TV나 신문 27.2%)
- 조사 결과 안전교육을 원하는 장소는 각 직장(여성 25.6%, 남성 29.0%), 동 단위 주민센터(여성 29.7%, 남성 21.9%), 전문 교육기관(21.2%) 순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체험 교육실시가 필요함
- 특히 출산과 양육 등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을 제안함

□ 사업 내용

- 여성안전 활동가(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여성안전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및 대피방법, 지역 내 재난대피소 위치,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생활안전 수칙 등
 - 교육대상 : 각 마을단위 부녀회, 여성단체 등

□ 기대효과

- 여성의 안전교육 참여 확대로 재난대응 능력 제고
- 여성 안전 전문 강사 활동 확대로 전문성 강화 및 여성 일자리 기회 제공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방안전본부, 재난대응과

2)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에 여성 참여 확대

□ 목적 및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안전장비 사용 능력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인지나 생존수용, 응급처치, 위기대처능력 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재난대응에 있어 무려 42.2%가 성별차이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성별차이의 원인으로 주로 교육의 부재로 인한 능력부족(34.8%)과 남녀의 근력차이(32.9%)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됨
 - 이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가 재난안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보다 더 크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에 대한 생활안전 뿐 아니라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안전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개 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범죄안전, 보건안전) 44개 세부영역에 걸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등 여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및 실적에 대한 성별분석이 전무하고 도민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지원이 부족함
 - 도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목표를 연 인원 400명으로 정하고 있어¹⁹⁾ 교육인원 목표 상향 조정 및 여성참여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장소로 희망하는 곳은 동 단위 주민센터(24.6%), 전문교육기관(19.4%), 각 직장단위(17.0%)순으로 나타나 전문 교육기관이나 각 직장단위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접근하기에는 주민 센터에서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등 여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읍면동 주민 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여성참여 확대
- 안전교육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19)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 6-3,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 부문 참조

- 안전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성별통계 작성, 이후 여성참여 확대를 성과목표로 지정하고 담당자 및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다. 여성 활동가 양성 및 환경 개선

1) 여성 안전 활동가를 위한 주민 센터 내 공간 설치

□ 목적 및 필요성

-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재난 발생 시 현장정리, 소방관 지원, 이재민 안내, 구호물품 제공 등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음
- 여성안전 활동가(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의견조사 결과 재난 발생 시 탈의실과 소지품 보관 장소가 없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도내 각 주민센터 내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사물함을 비치하여 재난발생시 여성 활동가의 출동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도내 각 주민센터 내 여성재난활동가를 위한 사무실 및 사물함 설치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소방안전본부

2) 여성안전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전문가 집단면접 조사 결과 여성 활동가와 전문 강사의 역할이 한정적이고 활동가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²⁰⁾

20) 제주특별자치도의 2021년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5-2, 소방안전강사 전문역량 강화 사업이 있으나 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가 지원 인원 목표를 16명으로 설정하고 있고 여성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내용

- 여성 활동가는 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스스로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활동과정에서도 주로 단체의 리더나 주도적인 역할은 남성이 하고 구호물품을 나누어주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등 주변적인 역할에 그침
- 현재 제주지역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등 활동을 위한 참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한정하고 있음
- 여성 활동가가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역량강화를 통하여 모범을 보이고 안전 관련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여성재난안전 활동가 과정 개설을 통한 안전전문 활동가 양성하여 재난 발생 시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활동
 - 마을단위 부녀회나 여성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로 참여 확대
- 교육비 지원 및 교육과정 수료 이후 활동가로 참여 시 수당 지급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여성 안전 활동가를 위한 의류 및 장비 개선

□ 목적 및 필요성

- 의용소방대, 안전 전문 강사, 자율방재단 등 여성안전 활동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 면접 결과 재난 활동 시 사용하는 의복(비옷)이나 장화 등 소품들이 남녀공용이라 너무 크고 무겁고 비옷이나 장화가 방수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 내용

-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등 안전관련 여성 활동가의 활동에 필요한 의류나 장비

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등의 성능을 높이고 몸에 맞는 것으로 구입하여 지급

- 여성의 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생리대, 선크림, 신변보호를 위한 전기충격기 등)

□ 추진체계 : 제주소방안전본부, 재난대응과

라. 성인지 관점 재난대응 정책 강화

1) 안전 활동가 대상 성인지 교육

□ 목적 및 필요성

- 여성안전 활동가의 의견조사 결과 의용소방대, 소방인력,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
- 남성 종사자들이 중심역할을 하고 여성들이 보조 및 주변역할을 담당하는 관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여성들은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소방관 돌봄, 취약계층 도시락 조리, 구호 물품 제공, 주민대피 안내 등 재난현장에서 남성을 보조하거나 주변적인 일을 담당함
 - '여성은 위험하다, '여성의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고 여성이 단순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전문 인력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에 성인지 내용 반영 (안전교육 전문 인력 육성·활용 영역)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예방대응과

2)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제주지역에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안전체험관의 인지도(22.1%)와 이용률(5.4%)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46.9%)하고 교육 참여 인센티브 확대(19.6%)와 지속적인 도민 모니터링(19.1%)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의 안전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 전문교육 기관인 안전체험관 시설물 이용에 여성을 배려한 환경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안전체험관 홍보 강화
 - 도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대중교통시설, 지역방송(자막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 안전체험교실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내용 포함하도록 모니터링 실시
-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복장구입
 - 안전체험관 이용 대상자 중 여성 및 복장이 불편한 이용자(스커트, 정장 등)를 위한 체험복(활동복) 구입 및 대여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소방안전본부

3) 성인지 관점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국민 배포중인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서는 그림이나 내용 등이 남성

중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상당 수 발견됨(3장 참조)

- 또한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징하는 표현이 발견됨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여성 및 재난취약자를 위한 재난 취약지역 발굴 및 안내
 - 기존 대피소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대피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대피소 지도제작 및 보급
 -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장소선정 및 안내, 시설물 설치, 운영 등에 재난취약자의 이해를 고려한 안내서 작성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재난대응과

3.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그 결과 안전교육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재난의 범위를 주요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 한정하여 광범위하게 포괄하지 못하였고 재난발생 시 대응단계별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음
 - 재난대응에 있어 임시대피소나 피난처에서의 노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문제, 단계별 매뉴얼 작성 등은 포함하지 못함
 - 또한 여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중요성을 도출했을 뿐 여성 내부의 다양한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제안은 고려하지 못했음
 - 향후 여성독거노인이나, 여성 1인 가구,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 여성, 자연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농어촌 여성 등 여성내부의 집단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강희영. 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동식 외. 2015. 「재난안전관리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안태윤. 201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민연경·박해숙·김은숙. 2020. 「강원도 재난안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박창열·라정일. 2019. 「안전취약계층 재난대비 지원체계개선방안」. 제주연구원.
- 송이은. 2016.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미혜 외. 2015. 「재난관리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행정안전부(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
- _____(2020), 「2019 행정안전백서」.
- _____(2020),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
- _____(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 _____(2021),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 _____(2021),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 _____.(2019). 「2019 재해연보」
- 허라금. 2012.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 철학」 13집. P. 1-26.
- _____. 2015. “위험시대 ‘재난’과 정치적 책임”. 「철학연구」. 108권. P. 71-92.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센터. 2020. “제주 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jeju.go.kr/safe/safe/safe.htm>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안전관리계획.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 _____, 「국민행동요령」 <https://www.floridadisaster.org>
- 재난연감 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27&emgPage=Y&menuSeq=736&viewtype=read&bbs_ordr=2134)

“제주도 안전체감도, 도민에게 듣는다”. 도민안전실 보도자료 2020. 10. 5
KOSIS(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사고발생 인명피해 현황(사망)

【부록】 1. 설문지 : 제주지역 재난안전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제주지역 재난안전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관한 대응 및 인식,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제주지역 여성·아동 등 재난취약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조사대상 : 제주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 연구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책임연구 : 이화진 연구위원
--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 더피알컨설팅(주)

I. 안전에 대한 인식

Q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음	약간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한 편임	매우 안전함
1) 자연재난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재난	①	②	③	④	⑤

Q2. 귀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안전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 ① 자연재해(수해, 태풍, 폭염, 가뭄, 황사 등) ② 교통사고(차, 선박, 항공 등)
 ③ 사회적 재난(화재, 가스폭발, 건물·시설물 붕괴 등) ④ 전염병, 질병, 환경오염 등
 ⑤ 기타 (_____)

Q3.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자연재난	①	②
2) 사회재난	①	②

Q4. 귀하는 사람들이 재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 ② 피난대피 인프라(대피소, 안내시설 등) 부족
 ③ 담당자(혹은 기관)의 관리 부실 ④ 안전 및 예방교육의 부족
 ⑤ 개인의 대처 능력 부족 ⑥ 언어 및 용어이해 부족
 ⑦ 지역 정보 부족 ⑧ 기타 (_____)

Q5. 귀하가 다음의 사고 또는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참조)

항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1) 태풍, 집중호우, 대설	①	②	③	④	⑤
2) 가뭄, 폭염, 황사	①	②	③	④	⑤
3) 풍랑, 해일	①	②	③	④	⑤
4) 교통사고 (차, 선박, 항공 등)	①	②	③	④	⑤
5) 화재, 가스폭발, 지반침하 등	①	②	③	④	⑤
6) 붕괴(건물, 시설물)	①	②	③	④	⑤
7) 전염병, 질병, 환경오염 등	①	②	③	④	⑤

II. 안전 교육·훈련 및 활동 경험

Q6.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안전 관련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7번으로 이동) ② 없다 ( 8번으로 이동)

Q7. (Q6 ① 있다 응답자) 귀하께서 최근 1년 이내 받으신 안전교육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다중 응답)

- ① 재난 재해 및 사회재난대응 요령 ② 소방안전 교육
③ 심폐소생술 교육 ④ 생활안전(사고 및 화재) 교육
⑤ 물놀이 등 휴가지 대처요령 ⑥ 기타 (_____)

Q8. 위에 제시된 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귀찮아서 ②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④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지역에서 교육기회가 없어서 ⑥ 교육실시에 관한 정보를 몰라서
⑦ 관련 교육기관의 존재와 위치를 몰라서 ⑧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⑨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⑩ 기타 (_____)

Q9. 귀하는 제주지역에서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안전장비 사용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Q10. 귀하께서는 다음의 안전장비 사용방법 및 대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1) 소화기 사용법	①	②	③	④
2) 완강기 사용법	①	②	③	④
3) 소화전 사용법	①	②	③	④
4) 심폐소생술	①	②	③	④
5) 심장충격기 사용법	①	②	③	④

Q11. 귀하께서 위의 안전장비 사용 및 대응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직장에서 ② 학교에서 ③ 군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에서
 ④ 전국민 민방위 훈련 ⑤ TV, 신문 등을 통해서 ⑥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
 ⑦ 집(가족) 으로부터 ⑧ 기타 ()

※ 다음은 재난대응 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Q12. 귀하의 재난대응 능력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생존수영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시 위기대처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평소 생활하는 공간의 비상구,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의 위치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식량, 식수, 응급처치 물품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13. 귀하께서는 재난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 14번으로 이동) (➡ 15번으로 이동) (➡ 15번으로 이동)

Q14. (Q13 ① 그렇다 응답자) 재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원인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남녀의 근력차이 ② 부모의 양육방법
 ③ 여성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④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재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⑤ 대피 시 아이나 노인 동반해야 하는 환경 ⑥ 열악한 주거 및 노동환경
 ⑦ 남성보다 불편한 복장(옷) ⑧ 기타 ()

Q15.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 16번으로 이동) ② 하지 않는다 (➡ 17번으로 이동)

Q16. (Q15 ① 하고 있다 응답자)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안전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주요한 활동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안전 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자원봉사 포함) ② 관련 단체 기부 활동
- ③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점검 ④ 안전관련 정보의 수집 및 검토
- ⑤ 안전 관련 시민 모니터링 및 정책참여 ⑥ 기타 (_____)

Ⅲ. 재난대응 및 정책 수요

Q17. 귀하께서는 재난 대비 정보 지식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②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 ③ 참여할 예정 ④ 적극 참여할 예정

Q18. 재난 재해 관련 지역에서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피난 및 대피훈련 ② 소화 훈련
- ③ 신고 방법 훈련 ④ 상처 등 응급처치 훈련
- ⑤ 기구 등을 사용한 응급 구조 훈련 ⑥ 가족 및 이웃의 안부 확인 훈련
- ⑦ 대피소 이용 훈련 ⑧ 기타 (_____)

Q19. 귀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 재해 등 위험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면 적당한 장소는 어디인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우선순위에 따라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각 직장 단위 ② 동 단위 주민센터
- ③ 전문 교육기관 ④ 각급 학교
- ⑤ 각종 지역사회 복지관 및 수련관 ⑥ 주민모임 및 반상회
- ⑦ 온라인 교육 ⑧ 기타 (_____)

Q20. 귀하께서 위험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교육 및 훈련정보 안내 ② 거주 지역에서 상시 교육 실시
- ③ 전문교육시설의 확충 ④ 교육시간 동안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 ⑤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⑥ 교육 시간의 다양화
- ⑦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⑧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 ⑨ 기타 (_____)

(1순위 : 2순위 :)

- ① 안전 교육을 받을 다양한 장소 마련 ② 재난 안전 지도나 앱 개발 및 보급
 ③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안전불감증 해소) ④ 국가와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개선
 ⑤ 안전 관련 전문 교육 기관 확대 운영 ⑥ 안전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⑦ 시민단체나 도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⑧ 기타 ()

Q28. 안전 분야에서 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관련 주민 모임 등의 발굴 및 지원
 ② 안전 교육 확대
 ③ 재난 취약 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
 ④ 재난 안전 예방 방안 공모전 등 실시
 ⑤ 의용소방대, 지역민방위 등 기존 활동의 효율적 활용
 ⑥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혜택 제공
 ⑦ 주민,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성화
 ⑧ 안전 캠페인 활성화
 ⑨ 기타 ()

※ 다음은 귀하의 개인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만 () 세
3)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99만원 ③ 200만원 ~ 299만원 ④ 300만원 ~ 499만원 ⑤ 500만원 초과
4) 최종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대졸 ④ 대학원수료 이상
5) 현재 거주 지역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6) 결혼유무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 및 별거
7) 재난취약자 동거 유무	① 영유아(0-6세) ② 미성년 자녀(7~20세) ③ 65세 이상 고령자 ④ 임산부 ⑤ 장애인 ⑥ 기타 ()
8) 직업	① 1차 산업 종사자(농·수·축·임업) ② 사무직 ③ 생산직/노무직 ④ 전문직 ⑤ 자영업 ⑥ 판매/서비스직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은퇴/무직 ⑩ 기타()
9) 출신지역	① 제주 ② 제주 외 국내(육지) ③ (결혼)이주자 ④ 외국인 ⑤ 기타

【부록】 2 성인지 관점의 대피소 체크리스트 예시(일본)

① 대피소 공간	
프라이버시	☐ 수유실(의자, 수유용 베게 또는 쿠션, 기저귀교환대) ☐ 성별로 구분된 탈의실과 휴게실을 갖추 ☐ 남녀 탈의실과 남녀휴게실이 떨어진 곳에 있음 ☐ 칸막이·파티션이 있고, 그 높이와 크기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분함
배려가 필요한 사람	☐ 적절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단차가 없음 ☐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구역이 있음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역이 있음 ☐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만의 가구를 위한 구역이 있음 ☐ 여성전용공간(여성용품 배치 및 여성상담)이 있음 ☐ 어린이를 위한 공간(어린이 놀이터, 학습, 정보제공) 및 돌봄 구역이 있음 ☐ 다리와 허리가 약한 사람들을 위한 침구를 제공하고 있음
화장실	☐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 있음 ☐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은 떨어진 곳에 있음 ☐ 여성화장실: 여성용품, 방범 벨 설치, 변기 수는 여성용을 많이 설치함 ☐ 다목적화장실을 설치함 ☐ 야외화장실은 어둡지 않게 설치함 ☐ 화장실 내부 및 화장실까지의 이동경로에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음 ☐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입욕시설	☐ 안전하고 가능한 무장애로 설치함 ☐ 혼자서(혹은 도움을 받으면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
안전	☐ 대피소의 위험장소 및 사각지대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칸막이가 높을 경우 개인 공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기타	☐ 각 공간에 표찰(픽토그램, 쉬운 일본어)이 부착되어 있음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정보압수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게시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② 대피소 운영체제 및 운영규칙	
운영체제	□ 관리책임자에 남녀 모두를 배치함 □ 자치운영조직의 임원에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고 있음 □ 운영조직에 다양한 조직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음 · 돌봄이 필요한 사람 · 학교운영위원회 · 장애인 · 중고생 ·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외국인
운영규칙	□ 대피자에 의한 식사조리와 설거지, 청소가 특정성별과 특정 위치의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 □ 여성용품(생리용품, 속옷 등)은 여성담당자가 배포할 것
요구 파악	□ 대피자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수합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건의함 설치 등) □ 여성, 자녀양육, 노약자를 돌보는 가족의 요구사항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대피자 명부를 작성하고 정보를 철저히 관리함(이름, 연령, 성별, 건강상태, 보육, 간병 등 돌봄을 요하는 상태, 대피장소,, 외부 문의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 □ 상담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전문직과 협력한 멘탈 케어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③ 폭력예방 및 안전 확보	
□ 배우자 폭력 피해자 등 대피자 명부 작성과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남녀가 함께 방법체제를 담당함 □ 취침장소와 여성전용공간의 순회경비를 실시하고 있음 □ 대피소 주변 자동차 내부에 숙박인이 있는 경우 자동차 주변 순회경비를 실시 하고 있음 □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음(포스터 게시, 상담카드 설치, 조명 증설, 여성과 어린이는 2명 이상 행동하고, 이동시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 □ 방법 벨, 호루라기를 배포함 □ 불안, 고민,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상담창구, 남성을 위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홍보하고 있음	

④ 위생환경 및 감염병 예방

- 감염병 예방(손 씻기, 소독, 마스크) 대책이 시행되어 있음
- 화장실 사용방법, 오염물 처리 등 위생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 화장실 전용 신발(슬리퍼 등)이 사용되고 있음
- 쓰레기 수거 및 분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조리 시에는 조리순서 표시, 식품관리, 주 알레르기원의 유무 표시, 잔반 폐기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음

⑤ 재택대피자 등 지정대피소 외 대피자 지원

- 재택대피자를 포함한 지정대피소 외 대피자 정보를 등록하고 있음(특히 배려가 필요한 사람 파악을 위함)
- 재택대피자를 포함한 지정대피소 외 대피자에 대한 식품 및 물자배포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음
- 재택대피자를 포함한 지정대피소 외 대피자에 대하여 지원정보 전달체제가 정 비되어 있음
- 재택대피자를 포함한 지정대피소 외 대피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780-01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일 2021년 10월 30일

발행인 구 만 섭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건설회관 4층)

☎ 064-710-6512, Fax. 064-710-6519

인쇄소 한그루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